* * *

소문은 잉크보다 빨리 마른다. 종이와 활자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사람들은 벌써 다음 이야깃거리를 찾아 눈을 굴린다. 어제의 추문은 오늘의 하품이고, 오늘의 비극은 내일의 헌 신문이 되었다. 리넛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게 그녀의 유년시절이었고, 지금은 밥벌이의 기반이 되어주었으니까.

「크로네 사교계 소식」 셋째 면. 손때 묻은 가십지를 한 장 넘기며, 리넛은 식어 빠진 단 음료를 한 모금 빨았다. 자극적인 단맛에 미간으로 한껏 질색하면서도, 설탕이 혀에 들러붙는 감각에 어깨가 조금 풀렸다.

'어디 보자. 이번 주에는 누가 잉크를 낭비했을까'

질문에 화답하듯 자극적인 타이틀들이 앞다투어 쏟아졌다. 어느 자작가 며느리가 시가 패물을 빼돌렸다더라. 어느 백작 영식이 무도회에서 두 영애에게 동시에 청혼했다더라. 그리고 한 귀퉁이, 산 공작가가 이번 가을 추수절에도 문을 걸어 잠갔다더라. 리넛의 눈길이 그 줄에서 반 박자 머물렀다가 미련 없이 지나갔다. 너무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서 리넛처럼 샅샅이 지면을 훑지 않는 이상 일부러 찾아내기도 어려운 기사 꼭지였다. 저주받은 가문 이야기는 수명이 질겼다. 벽지의 얼룩처럼, 너무 오래 들러붙어 있어서 아무도 더는 들여다보지 않는 종류의 흉터였다.

'이 가십지, 가만 보면 지면이 어정쩡하게 남을 때마다 옛날 얘기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 기존 기사 인터뷰나 하나 더 따서 넣으란 말이야.'

감상은 그뿐이었다. 종이에서 그녀가 더이상 읽지 않은 글자는 없었다. 대신 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사실을 읽으려 애썼다. 패물을 빼돌렸다는 자작가 며느리 기사에 눈이 절로 갔다. 사흘 전만 해도 온 사교계가 그 이름을 씹어 댔는데, 오늘 자 기사는 벌써 시들했다. 문장이 성의없이 짧아지고 단어가 게을러졌다.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문장들이 그저 한없이 가벼운 무게로 날리고 있었다.

'이미 호사가 귀족들 사이에선 오르내리지도 않겠고, 기사도 오늘내일이 마지막이겠군.'

새로운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면 어제의 배우는 막 뒤로 내려갈 뿐이다. 설 수 있는 무대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배우를 원했다. 흥미와 관심이란 때론 손에 담긴 물 같아서, 세게 쥘수록 빠르게 새어 나간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과 망각이 리넛의 일을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 혹은 그 이름에 다른 이야기를 입혀 돌려보내는 것.

‘오늘도 더 쓰레기 같거나 덜 쓰레기 같은 기사 잘 봤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주위에 들리지 않도록 중얼거리며 리넛은 가십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렸다. 창밖으로는 크로

네의 잿빛 오후가 내려앉고 있었다. 빛맞이절이 코앞이라 거리엔 벌써 등을 내거는 손길이 분주했다. 한 해의 가장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온다는 절기. 사람들은 빵을 나누고 등을 밝히며 서로의 복을 빌었다.

'이번 빛맞이절은 그저 모두가 별 탈 없고 근심없길.'

요즘 거리 분위기가 영 어두웠다. 그건 가십지를 안 봐도 알 수 있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등 하나가 대중없이 점멸했다.

* * *

트벳테리 세탁소는 크로네 구시가의 좁은 골목 끝에 있었다. 입구가 좁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벽인줄 알고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간판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빛바랜 나무판에 이름 네 글자가 적혀있을 뿐이다. 크론발트 왕국어로 빨래하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옷을 빨아 주기는 했다. 그게 세탁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아니었지만. 리넛은 헤매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끼이익 길게 울었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늘어졌다. 아무리 조심히 열어도 반드시 소리가 났다. 그게 이 골목에서 가장 값싼 보안 장치였기에 세탁소 주인은 일부러 기름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센이 고개를 들었다.

"오셨습니까.“

"네. 어제 맡긴 거 찾으러요."

리넛은 적당히 둘러댔다. 세탁 하녀 복장을 한 채였기에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았다. 한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장부에 코를 박았다. 콧등에 걸린 안경이 흘러내릴 듯 위태로웠다. 한센은 좋은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셈이 정확하고, 쓸데없는 걸 묻지 않았다. 카운터를 지키고, 들어온 빨랫감을 분류하고, 손님을 응대했다. 매달 어김없이 월급봉투가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했다. 게다가 손님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대부분을 장부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 숫자를 쓰고 계산하고 확인하는데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센은, 입이 무거운 일을 맡기기에 적당한 사람이었다.

'여전히 성실하네.’

트벳테리 세탁소는 세탁소를 위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밀한 서류와 편지가 오가는 곳이었다. 당당하게 우편을 주고받거나, 공용문서 보관소를 이용하기에는 뒷맛이 찝찝하고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이 세탁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손에 꼽았다. 리넛 역시 궁금해하지 않으며 세탁물 분류대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 들어온 빨랫감들이 광주리에 수북했다. 존재감이 흐린 세탁소치고는 많았다. 셔츠, 페티코트, 식탁보.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단숨에 신사용 재킷 한 벌을 끄집어냈다. 익숙한 질감은 손끝에 지문처럼 새겨져있었다.

안주머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종이가 만져졌다. 리넛은 그 종이를 손바닥 안에 말아 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재킷을 도로 광주리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옆에 이미 세탁되어 놓인 천 한 무더기를 대충 주워들고 품 안에서 둥글게 갈무리했다.

"또 올게요, 한센 씨.“

"예. 살펴 가세요."

리넛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 * *

의뢰소 거점은 세탁소에서 두 골목 떨어진 소담한 건물이었다. 벌이가 안정되면서 삼층짜리 주거용 건물을 통째로 빌렸다. 일층은 아직 용도를 정하지 않은 척 비워 뒀고, 이층은 작업실, 삼층은 리넛의 거주지였다. 리넛은 여기서 먹고 잤다. 따로 주소를 둔 곳도 없었고, 일과 삶의 경계가 흐릿한 편이 편했다. 이층 작업실에 들어선 리넛은 램프에 불을 댕기고, 손바닥에 말려 있던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쳤다. 힘 있는 글씨에는 또박또박 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펜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가로획 끝이 크게 휘었고, 마침표가 종이를 찍어 누른 자국으로 남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의뢰 케이스였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화가 잔뜩 났네.'

리넛은 이제 필체만 보고도 대충 의뢰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앉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의뢰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미 소문에 시달린 사람들은 한 장의 종이 안에서라도 소문과 자신의 가문, 이름이 함께 존재하는 걸 끔찍하게 여겼다. 이번 의뢰 역시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만 담겨 있었다.

「상인 가문과 혼약한 영애의 파혼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떠돌고 있음. 파혼 사유는 남자의 변심. 바로 잡아주길 바람.」

리넛은 종이에서 눈을 뗐다. 펜 한 자루를 손가락 사이로 빙글 돌렸다. 생각이 굴러갈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남자 측 유책인데 여자 측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가?”

사유의 진실 여부야 어찌 됐든 명예 문제는 사실일 가능성이 컸다. 이런 일에서 웬만하면 약자는 여자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거짓을 말해도 여자에게 손가락질이 더 많이 쏠리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리고 귀족 영애와 상인 가문 아들의 혼약이라니. 처음부터 여자가 밑지고 들어가는 거래였다. 리넛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리넛의 어머니 역시 무결했으나 무너졌다. 소문은 발 없는 말 같았고, 진실은 그저 말이 없었다. 소문은 늘 진실보다 빠르고, 멀리 갔다. 리넛은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잘 알았다.

‘그만 생각하자.’

리넛은 뚜껑을 덮듯 기억을 끄고 다시 의뢰서로 눈을 돌렸다. 의뢰서에 적혀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사람들은 의뢰를 넣을 때 늘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적었다. 피해자라 우기지만 알고 보면 가해자고, 억울하다 호소하지만 캐 보면 구린 데가 있고. 그래서 리넛은 의뢰서만 믿고 바로 일을 받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직접 확인하고 의뢰 내용이 진실로 판명된 뒤에야 일을 받았다. 소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헛소문에 놀아나면 그것만큼 우스운 꼴도 없으니까. 리넛은 의뢰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내일부터 좀 돌아다녀봐야겠네.'

의뢰서 속 영애가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부터 알아봐야겠지. 골목 끝에서 누군가 흥얼거리는 절기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들었다. 빛이 돌아온다, 빛이 돌아온다, 하는.

* * *

이튿날, 리넛은 어제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거리로 나섰다. 수수한 회갈색 외투에 챙 넓은 모자. 장바구니를 든 평범한 부인. 누가 봐도 시장에 나온 살림꾼의 차림새였다.

‘가장 좋은 변장은 아무도 두 번 쳐다보지 않는 얼굴이지.’

목적지는 안데르센 가문 근방이었다. 크로네에서 발간되는 일간, 주간, 월간지를 늘 챙겨두고 의뢰소에 보관했다. 그 중 며칠 전 신문에서 의뢰서 속 주인공을 찾아냈다. 그 기사에는 불과 몇 줄이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점점 더 넓은 지면을 차지하다가 결국은 제일 굵은 타이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파혼한 귀족 영애, 상대는 상인 아들. 그 조건으로 최근 화제가 됐던 사람은 사교계에 하나뿐이었다. 하프룬 안데르센. 소문은 익명이라는 미명 아래 친절하게도 그녀의 모든 것을 떠들어 주었다.

「작년 봄 약혼한 안데르센 백작가의 외동딸과 올센 상회의 외아들 모르텐 올센. 두 달 전 돌연 파혼! 신분을 넘지 못한 사랑!」

그리고 기사 말미에 덧붙인 한 줄이 있었다.

'항간에서는 영애가 그를 가지고 놀다가 질려 매몰차게 버렸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영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리넛은 상점거리 어귀의 채소 가판 앞에 서서, 적환무 한 개를 들었다 놨다 하며 생각했다. 귀족 영애에게 파혼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결혼 시장에서는 아쉬운 요소가 됐다. 게다가 상대가 평민이었다면, 다음으로 영애의 결혼

상대가 될 귀족 남성은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도 있었다. 여성 편력을 은근히 자랑스레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와 분위기를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이중잣대가 따로 없었지만. 어쨌든 아직 이 나라는 신분 차를 넘는 사랑, 흠이 있는 신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리넛은 무를 내려놓고, 가판 주인에게 슬쩍 말을 붙였다.

"이 근처가 올센 상회죠? 요즘 그 집 아들 때문에 시끄럽던데…."

"아이고, 말도 마요.“

주인은 따분하던 표정을 환하게 밝히며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떠들 상대를 잘 만났다는 듯,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선심쓰듯 알려주려고 몸이 달아 있었다. 게다가 얘기하려는 주인공이 같은 평민이라면 입을 잘못 놀려 생길 위험이나 부담도 없었다.

"귀한 댁 아가씨가 불쌍해서 어떡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싶었는데, 서로 좋아한다니까 잘되길 바랐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완전히 안타까운 표정은 아니었다.

"여자 쪽이 잘못해서 헤어진 거라던데요."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데… 모르텐 그 녀석이 영 억울하게 파혼당한 사람 같지가 않어.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 봐와서 알거든? 세기의 사랑 어쩌구 하길래 당분간은 보이지도 않거나 죽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 얼굴이 폈다니까."

'오호. 적어도 의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가치는 있겠네.'

채소 가판대에서 이뤄진 수다는 적환무 한 단보다 값어치가 있었다. 흔쾌히 값을 치렀다.

“잘 골랐어. 이제 겨울이라 이번이 적환무 먹을 마지막 기회야.”

소문을 판매한 줄도 모르고 무값 만을 받아 챙긴 주인이 인심 좋은 미소로 리넛을 배웅했다.

* * *

소문의 주인공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왔다. 하프룬 안데르센이 자선 모임에 나간다는 정보를 파비안이 물어다 준 덕이었다. 그는 같이 의뢰소를 운영하는 크리니케 자작가 차남이었다.

"빛맞이절 앞두고 열리는 자선회예요. 안데르센 영애도 명단에 있더라고요. 파혼하고 두문불출하다가 처음 얼굴 내미는 거라던데요.“

파비안은 작업실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다리를 까딱이며 말했다. 사교계 마당발다운 산뜻한 말씨였다. 발이 넓고 엉덩이가 가벼웠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입은 무겁다는 게 이 남자의 매력이었다.

"영애가 생각보다 빠르게 용기를 냈네."

"연말 연회에 얼굴을 비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자선 모임 정도면 의도도 좋고 규모도 크지 않아 부담이 덜하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파비안은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 낫다 할 뿐이지 본인 마음은 지옥이겠지만요. 다들 은근슬쩍 소문도 확인하고, 얼굴 보러 오는 거지,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리넛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날 자선회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은 안데르센 영애의 수치심과 자존심이 될 것이다. 리넛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가장 궁지에 몰린 순간을 봐야 하니까.

"의뢰받을 거예요?"

파비안이 꼬았던 다리를 풀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그렇다면……, 마담 솔베이그 의상실이 좋겠어요. 안데르센 가문이 거래하는 의상실이에요. 이번 자선회 드레스 코드가 북부령 피외르뒤 지방에서 건너온 패턴을 이용한 옷이거든요. 그 유행이 시작할 때 파혼하는 바람에 아직 드레스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

리넛은 씩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맞았고 필요한 정보를 찰떡같이 찾아왔다. 마음이 통하는 동료와 일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 * *

크로네에서 제법 이름난 의상실 「마담 솔베이그」는 빛맞이절 행사와 연말 연회로 이어지는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을 늘리고 있었다. 덕분에 리넛은 어렵지 않게 보조 재단사로 취직했다. 안데르센 가에서 방문 의뢰 인력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리넛이 자원해서 손을 들었다. 그녀에게 바느질만 시키려던 수석 재단사는 보조 재단사 업무를 맡겨봤다. 실력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는 안데르센 가에 치수를 재러 가는 길에도 리넛을 동행시키기로 결정했다.

“에이피나.”

수석 재단사가 문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에이피나, 아니 리넛을 조용히 불렀다. 하프룬 아가씨와 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끝낸 뒤였다. 치수를 재기 위해 리넛이 사뿐히 다가갔다. 하프룬 안데르센은 귀족 아가씨의 모습 자체였다. 곧게 편 등, 예의 바른 미소, 그리고 손. 리넛은 목에 걸린 줄자를 풀어 쥐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치수를 잴게요.“

"그래.“

하프룬은 리넛 앞에 섰다. 리넛은 그 뒤로 돌아가 어깨선부터 줄자를 댔다. 닿자마자 살짝 움츠러드는 어깨가 예민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마음을 이해하듯 서두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까칠해 보이는 피부와 무력한 눈빛이 잘 보였다. 채소 상인의 말과 눈 앞의 모습을 교차해보자면, 확실히 이번 파혼으로 더 상심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쪽은 안데르센 가문인 듯했다.

"다 쟀어요, 아가씨. 수선한 드레스를 가지고 근 시일 내에 한 번 더 들르겠습니다."

"그래."

자선회까지 새 드레스를 가봉할 시간까지는 없다 보니 하프룬이 가지고 있던 기존 드레스를 수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 오늘 늦지 않게 세탁소로 가서 안데르센 가에 의뢰 수락서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갈무리하며 도구를 챙겼다.

* * *

그날 밤, 의뢰소 건물에 셋이 모였다. 단촐해보이는 구성이지만 의뢰소의 전원이었다. 리넛, 리브, 파비안. 리브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늘 불쑥 나타나는 여자였다. 거처가 어딘지 리넛도 정확히는 몰랐다. 곳곳에 은혜를 입혀 둔 집이 많아서, 그런 데를 떠돌며 얻어먹고 다니는 것 같기도 했다. 한 군데 묶여 사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었다.

"안데르센 가 의뢰를 받으려고 해."

리넛이 운을 뗐다.

"아무래도 떠도는 소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아직 정황 아닌가?"

리브가 의사답게 정확한 곳을 짚었다. 정확히는, 정식 면허를 끝내 못 받은 의사다웠다. 리브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리넛은 코를 찡그리며 난처하듯 웃었다.

"알아. 그런데 받고 싶어. 적어도 단순히 파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불명예를 얻는 건 과한 처사잖아. 도와주자. 응?"

“린이 그럼 그렇지.”

중얼거리며 리브가 끄덕거렸다. 이런 의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는 리넛을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았다.

"그래서 리브, 올센 상회는 요즘 어때? 얻은 단서가 있어?”

안데르센 가문의 의뢰가 들어오자마자 리브와 파비안에게 사전 작업을 지시했었다. 그렇게 파비안이 자선회와 의상실 정보를 물어왔고, 리브는 그간 올센 상회 근처를 배회하며 관찰했다.

"아들은 못 만났는데, 하나 걸리는 건 있어. 최근에 꿀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꿀값이요? 빛맞이절 특수로 뛴 거 아닌가요?”

파비안이 물었다.

“그걸 감안해도 단기간에 가격이 훅 뛰었대. 그래서 거리의 상점들을 돌아봤는데 하나같이 꿀만 없더라고. 촛대, 양초, 밀가루는 많은데 말이야.”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안그래도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꿀 생산지인 링뷔 지방 사정으로 올해 꿀 공급이 확 줄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

리브가 코웃음을 쳤다.

"링뷔는 멀쩡해."

두 사람이 동시에 리브를 봤다.

"사실 지난달 의뢰가 끝나고 링뷔에 다녀왔어. 아는 약초꾼이 거기 살거든. 벌도 꿀도 멀쩡해. 평년이랑 생산량도 비슷하고, 흉년은 절대 아니야. 아마 수도 소식을 들으면 양봉꾼들도 어리둥절해 할 걸. 평소처럼 예년 가격에 꿀을 넘겼는데 수도에선 값이 미쳤다고 하니까.“

“수도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일차적으로 공급받아 상인협회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건 상인 협회장이지?”

“그리고 올해 상인 협회장은 올센 가에서 맡고 있고.”

리넛의 말에 리브가 자연스레 꼬리를 이었다.

“결정적으로, 모두 같은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올센 상회의 대응만 묘하게 달라. 다른 상회들은 급하게 보리로 만든 맥아당이라도 급하게 사들이고 있거든? 어쨌든 제단에 꿀 대체품이라도 올려두려고 사람들이 찾을 거 아냐.”

그런데 올센 상회는 남 일을 보듯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있다는 소리였다. 퍼즐 조각이 손안에서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올센 상회가 꿀을 숨기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리넛이 말했다.

"예를 들면 말이야. 올센 상회가 꿀을 어딘가에 쟁여 놓고, 산지 핑계를 대며 값을 띄우는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 빼돌렸을 수도 있고. 빛맞이절을 앞두고 특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잖아.”

"하지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상인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죄는 아니지 않나요?"

파비안이 물었다. 귀족이다보니 평민의 생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리브와 저에게 존대를 해서 가끔 까먹지만, 파비안은 귀족이었다. 처음부터 말을 높였고, 친해진 뒤에는 왜 말을 놓지 않냐는 말에 파비안은 늘 웃으며 ‘이게 편해요’라고 답했다.

"보통 시기의 평범한 꿀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거야."

리넛이 계속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빛맞이절에 쓰게 될 꿀이야. 신께 올리는 제병에도 들어가고, 빵에도 넣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빛을 나눈다는 절기에 쓰는 건데 거기에 손을 댄 거야. 신께 올리기 위해 신성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제물을 말이야.”

"허억. 완전 신성모독이네."

리브가 말만으로도 두렵다는 듯이 어깨를 잘게 떨었다. 신 같은 존재는 믿지도 않으면서. 과

장하는 몸짓을 리넛이 장난스레 슬쩍 흘겼다. 세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 나라에서 신성모독은 잘못 불거지면 단순한 도덕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특히 명예와 신앙심을 높게 치는 귀족들이 두려워했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불경하다는 낙인을 더 무서워했다.

”린, 어떻게 이걸 써먹을지 방법을 찾았어?”

“응. 둘의 파혼 사유를 이걸로 하면 되겠어. 약혼자 집안이 신께 올릴 꿀을 건드리는 걸 알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혼을 걷어찼다고. 신앙과 도덕심이 사랑보다 앞선, 신실하기 그지없는 영애. 그림 좋지?"

처음부터 모든 방면으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을 헤맬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몇 가지 단서를 건지면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를 짜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나가면서 점점 정확한 방향으로 루트를 수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리브가 팔짱을 풀었다.

"좋아. 그런데 지금은 심증뿐이니까 우선 꿀의 행방을 찾아야겠네. 그 꿀이 실제로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을까?"

며칠 밤낮을 올센 상회 근처에서 죽치며 오가는 수레 경로를 모두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품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린,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파비안이 움직이면 최소한 하나라도 유용한 정보를 찾아오곤 했다. 시나리오가 산산조각이 나도, 그 조각이라도 얻었다. 리넛과 리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 * *

파비안은 올센 상회의 꿀단지를 찾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은 집안의 고용인들과 그저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평민인 리넛과 리브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존댓말을 쓸 만큼 그는 계급 의식에서 얽매이지 않는 편한 주인이었다. 그만큼 고용인들 역시 가문의 둘째 아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며 위했다.

그가 물어보고 다닌 것은 최근에 공고가 난 새 일자리였다. 이미 자작가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형제자매 부모 중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났다는 정보를 꿰고 있었다. 만약 올센 가에서 꿀을 몰래 숨겨두고 있다면, 이를 별도로 보관할 임시창고는 물론이고 그 창고를 지킬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만약 링뷔에서 들어온 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마차꾼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이다. 각 상회는 이미 자신들이 운영하는 창고가 고정되어있고 창고지기와 마차꾼이 고용되어있으니 결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자리가 나는 일이 흔하진 않았다.

「마침 고용인 중 한 명의 사촌이 올센 상회의 새 창고지기 자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창고 틈

으로 살펴봤더니 동그란 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대요. 장기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빛맞이절 전후까지만 고용됐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의 추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뢰소에 파비안이 남겨둔 쪽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우며 리넛은 눈앞의 일에 집중했다. 가봉이 끝난 드레스를 들고 안데르센 가를 다시 찾았다. 하프룬이 드레스를 건네받아 갈아입었고 리넛은 군데군데 치수가 안맞거나 들뜨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몸에서도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게 느껴졌다. 리넛은 줄자를 소매길이를 재면서 동시에 싹싹한 의상실 직원을 흉내내며 무람없이 말을 걸었다.

"아가씨, 곧 있을 빛맞이절 행사 의상도 함께 주문 넣으시는 게 어떠세요?"

"음."

하프룬이 침음을 흘렸다. 그녀는 빛맞이절 행사에 참가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자선회에 나가서 주변의 반응을 살펴보고, 괜찮은지 판단하고 싶었다. 리넛은 모른 척 말을 이었다.

"저는 속상하지만 올해 옷은 작년 것을 그대로 입으려구요."

신성한 날에 헌 옷이라니, 세상 물정에 큰 관심이 없는 백작 영애 하프룬이 악의 없는 호기심을 띄웠다.

"왜 새 옷을 짓지 않고? 더구나 너는 의상실에서 일하지 않니?"

리넛은 고개를 저었다.

"최근 들어 꿀값이 너무 뛰었어요. 빵과 꿀만 사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새 옷은 꿈도 못 꾸는 지경이에요."

대강 납득한 하프룬이 보일듯말 듯 끄덕였다. 수다쟁이 보조 재단사 에이피나, 리넛은 굳이 필요 없는 말을 한숨 쉬듯 덧붙였다.

"어느 상회가 꿀을 잔뜩 쟁여 놓고 값을 띄우고 있대요. 신께 올릴 제물로 장난을 친다나. 너무 하지 않아요?"

리넛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프룬이 생각할 시간을 줘야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굳는 것을 곁눈으로 읽었다. 수도의 상회는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중 한 상회에 크게 얽혔던 귀족 영애의 머릿속에는 단 한 곳만이 떠올랐을 것이다. 분노가 편견을 세우고, 내몰린 처지가 시야를 더 좁혀줄 것도 분명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을 위기로 내몰았던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연인보다는 적이 되어있을 셈이 컸다. 결과적으로는, 소뒷걸음질에 쥐 잡듯 진실을 찾게 되는 셈이겠지만.

"……그래, 그자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프룬이 낮게 중얼거렸다. 리넛은 모른 척 줄자를 허리로 옮겼다. 표정을 감추기 좋은 자세였다. 더 부추기거나 말을 얹지 않고 씨앗 하나를 심는 것에 만족했다. 싹은 그녀가 알아서 키울 것이었다. 복수심과,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거름으로.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것을 보아하니 영애는 어리숙해 보이지도, 유약하지도 않은 듯했다.

“지난번에 잰 치수로 빛맞이절 의상도 하나 만들게. 주문을 넣어주렴.”

생각을 끝낸 하프룬의 목소리에 심지가 솟은 듯했다.

“예 아가씨.”

잘 맞아떨어진다면 이번 의뢰의 마지막은 영애가 직접 매듭 질 수 있으리라. 리넛이 도구를 챙겨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훑어본 영애의 드레스 소매에 삐져나온 실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걸 톡 뽑았다. 가시 하나가 빠지듯 깔끔해졌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녀는 문을 나섰다.

* * *

같은 시각, 올센 상회 앞에 약제사 하나가 나타났다. 리브였다. 리브는 며칠 그 앞을 어슬렁거리며 때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늘 상회에 나와 앉아 있는 노인은 어쩌다 일어나서 걸을 땐 다리를 끌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찡그린 주름이 얼굴에 가득했다. 하루종일 상회에 별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어도 상회 종업원들이 노인을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모르텐 올센의 아버지이자 상회 협회장 라르스 올센이 분명했다. 마침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때 리브는 그 곁을 지나가는 척하다 걸음을 멈췄다.

"어르신. 발이 편찮으신가요?”

“뭐야?”

“혹시 발등에서 정강이에 불그스름한 자국이 생겼나요? 아니면 곪으신 건가요?"

라르스가 경계심 많은 살쾡이처럼 리브를 노려봤다.

"댁이 뭘 안다고.“

"상태가 심각해보이는데… 뭐, 제가 신경 쓸 것은 아니죠."

리브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자 라르스가 붙잡았다.

"혹시 의사인가?"

리브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본 노인의 얼굴에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 떠올라 있었다.

"앉아 보시겠어요?"

리브가 옆으로 맸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잠깐 보고서 진료비 덤탱이를 씌우는 거라면…”

으름장을 놓는 노인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봤다.

“제가 무료 의료 봉사도 해서요.”

진료비는 당신네 아들과 파혼한 가문이 낼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리브는 라르스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라르스 올센의 발에는 곪은 상처가 깊었다. 며칠만 더 뒀으면 정강이를 타고 번졌을 것이고, 그러면 늙은 몸에는 어떤 합병증이 찾아 올지 알 수 없었다. 리브는 군말 없이 처치했다. 고름을 빼고, 약초를 짓이겨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다. 라르스는 처음엔 으르렁댔지만 앓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입을 다물었다.

"……좀 낫네."

노인이 마지못해 중얼거렸다.

"사흘에 한 번씩 천을 갈아야 해요. 안 그러면 도로 곪아요. 그리고 식사도 좀 신경 쓰시구요. 단 거 좀 줄이세요. 어르신 같은 분들 발에 그런 게 잘 와요."

"나 같은 늙은이가 단 걸 뭘 얼마나 먹는다고."

입 안으로 우물거렸다. 치료 중간부터 옆에서 구경하던 종업원이 끼어들었다.

"어르신이 꿀을 좋아하세요. 매일 한 숟갈씩 드시는데.“

리브의 손이 꿀이라는 단어에 잠깐 천을 감던 손을 멈췄다. 내색 없이 천을 마저 감고 매듭을 지었다.

"꿀도 줄이세요. 당분간은."

리브가 일어서며 종업원에게 말했다.

"천이 지저분해지면 풀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아드리세요."

가방을 다시 맨 리브가 그대로 떠나려 하자 라르스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아마 진료 중에는 '정말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나'를 의심하다가, 진료가 끝나고 나니 '정말 이 의사가 진료비를 받지 않나'를 의심한 눈치였다. 그러다 진짜 댓가 없이 떠나려 하자 의심을 풀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맙네."

평생을 상인으로 살아온 노인은 웬만한 병증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을 정도로 돈을 아꼈다. 동시에 무언가를 줬으면 받아내야 하고, 받았으면 작은 것이라도 줘야 한다는 거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야 다음에 더 큰 것이 들어올 테니까.

"의사 선생, 내가 치료비 대신 좋은 정보를 하나 주지."

리브는 별 기대없이 고개를 기울였다. 라르스가 비밀을 얘기한다는 듯 목소리를 줄인 탓이었다.

"혹시 제단에 올릴 꿀을 준비할 거라면 닷새 뒤에 우리 상회에 와서 사. 그때까진 사지 말고."

지금 왕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꿀값이 뛰어오르고 있어 내일 사면 오늘보다 두 배 손해, 모레에 사면 세 배는 손해였다. 라르스는 누구도 이해 못 할 말을 했지만 리브는 그 말뜻을 단숨에 파악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의뢰소에 쪽지를 남겨야겠다. 정보를 얻은 리브의 발걸음이 상회를 벗어날수록 점점 빨라졌다.

* * *

하프룬은 테이블 아래에서 장갑 끝을 만지작거렸다. 자선 바자회 날, 귀족들은 저마다 손에 기부 명목의 동전 주머니를 들고 얼굴엔 자비로운 미소를 걸었다. 빛맞이절을 앞두고 신실함을 내보이겠다며 갸륵한 행세를 했다. 파혼 소식이 알려진 후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자리였기에, 애써 다잡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흘러 샜다. 어쩌다 주변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저를 향한 얘기인가 싶어 안그래도 더운 입 속을 뜨거운 찻물로 데웠다. 그러다 주위의 기운이 조금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순간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안데르센 영애? 그간 격조했군요. 도통 볼 수가 없어 걱정했는데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불린 이름에 조금 성급하게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안면만 어렴풋이 익숙하고 이름은 모르는 자였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건, 그가 보수적인 계급주의자임을 넘어 끔찍한 귀족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처음 자신과 모르텐의 약혼이 알려진 뒤, 한동안 그와 눈이 자주 마주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뜩잖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기에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 하나?'하고 의문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귀족 영애를 공고한 신분제 밖으로 걷어찰 방법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났다. 그리고 파혼 소식을 듣자마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다.

"실례지만 안부를 나눌 만큼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군요, 귀공."

하프룬은 흥분하지 않고 귀족답게 상대의 무례를 조용히 꼬집었다. 하지만 남자는 오늘을 길일로 잡은 듯 껄렁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아! 레이디 하프룬의 예법이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귀족가문의 영애로서 알고 있을 기본을 알고 계셨군요.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길."

속에 뜻이 담긴 것 같은 불쾌하기만 한 사과였다.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대꾸를 대신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시선을 돌리니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혀있었다. 파혼한 영애가 어떤 표정으로 무너질지 구경이 난 눈치였다. 숫제 힘이 들어갈 뻔한 얼굴 근육을 진정시키고 있으려니 시건방진 목소리가 이어 들려왔다.

"그런데 영애, 달고 오신 금화 주머니가 작아 보이십니다. 설마 오늘 자선회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녀가 오늘 모금을 위해 들고 온 주머니는 결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자비를 나누는 날 아닙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순결한 마음과 몸을 희롱한 뒤 내쳐버린 영애께서는 우리보다 큰 성의를 준비하셔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잠시 침묵하자 주변의 수근거림이 일었다.

"귀족 영식이 평민 여성을 가지고 노는 것이야 들어봤어도… 귀족 영애가 정숙하지 못하게. 에그."

"그 상인네 아들만 불쌍하게 됐지요.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을 것 아녜요?"

파혼은 전적으로 올센 가의 통보였다. 이유도 알 수 없이 모르텐의 마음이 식었다고 했다. 계급으로 사랑과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었기에 끓는 속을 안고 파혼 얘기를 꺼냈다. 백작 영애가 평민에게 차이다니, 어디 가서 꺼내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였다. 이별의 아픔을 달랠 시간

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었기에 외부 일정을 삼가며 그간 친구들이나 가십지도 멀리했다. 그랬기에 자신을 둘러싼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지 도통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두운 실체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사교계에 다시 복귀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차마 신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나온 참이었다. 하지만 저의 부정이라니? 평민과 파혼한 여성을 향한 조소와 비아냥 정도로만 상상했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제가 누군가를 희롱했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디서부터 사실을 밝히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앞서 들은 문장만 부정했다. 새된 목소리가 기침처럼 터졌다. 평정심을 잃은 그녀를 남자는 비죽이며 더욱 몰아세웠다.

"아니 그럼 힘없고 약한 평민이 감히 귀족 영애를 실없이 대하고 장난 놀음을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자신도 여태 궁금해했던 것을 콕 짚자 말문이 턱 막혔다. 맞다고 답하더라도 대부분은 믿지 않을 것이며, 평민한테 우스꽝스럽게 놀아난 귀족이라는 멍에가 가문에 씌워질까 두려웠다. 치솟는 분기를 참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드레스 자락만 노려보고 있는데, 드레스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자선회 드레스코드를 맞추기 위해 새로 달아 넣은 피외르뒤 패턴이었다. 자연스레 의상실의 재단사가 떠올랐다. 아이피나였는지, 에이피나였는지.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다.

'어느 상회가 꿀을 잔뜩 쟁여 놓고 값을 띄우고 있대요. 신께 올릴 제물로 장난을 친다나. 너무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올센 상회일 것이다. 모르텐이 기울어진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춰보고 싶어 자신에게 종종 내세웠던 것이 그의 아버지인 라르스 올센이 올해 상인 협회장이 되었다는 얘기였다. 외부에서 수도로 들여오는 물품들을 먼저 받아보기 때문에 귀한 것은 가장 먼저 살펴본다고 했다. 좋은 물건은 어느 정도 더 받아 챙겨도 상회끼리 눈을 감아 준다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아가씨 가문에 먼저 넣어드릴 수 있어요, 하고 머쓱해 하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게 느껴져서 설렐 때가 있었다.

"아까 귀공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신성한 나눔이라고 하셨나요?"

하프룬이 눈을 질끈 감고 일어섰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 드려야겠어요. 지금 이 도시에서 그 신성한 나눔을 막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영애?"

남자가 난데없는 주제에 눈살을 찌푸렸다. 하프룬은 멈추지 않았다.

"올해 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제 시종을 통해 알아보니, 링뷔 구릉지에 흉작이 들었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연회장이 술렁였다. 빛맞이절을 앞두고 다들 꿀을 찾았지만, 가격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다. 암만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도 귀족 가문에서 제단에 올릴 정도의 분량을 사지 못할 리는 없거니와 가격이 오른 이유를 딱히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자선회에서 신에게 올릴 제물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다'는 얘기를 선뜻 꺼낼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다. 하프룬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는 분위기가 보이자, 의자에 일어서서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그 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빛맞이절 특수를 노리고 말이죠."

앞선 대화에서 계속 언급된 '장난'을 일부러 다시 사용했다. 그 단어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고 주어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었다.

"링뷔의 양봉업은 올해도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사람들이 목소리 주인을 찾아 자연스레 몸을 돌리자 한 남성이 자연스레 무리에서 파헤쳐졌다. 남자는 무대에 올라온 것을 의식하며 쓰고 있던 검은색 벨벳 샤페롱을 살짝 잡으며 가벼운 목례를 돌렸다.

"아, 알본스 윌름슨입니다. 오늘 자선회를 연 윌름슨 백작부인과 종남매 관계이지요."

그를 알아본 주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허락을 받았다는 듯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웠다.

"저는 백작부인의 요청을 받아 자선회를 준비하며 밀랍 초를 제법 많은 수를 들여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다시피 자선회를 위해 내부를 장식할 초가 많은 수량 필요했고, 곧 있을 제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들 주변에는 깨끗하고 반듯한 초들이 촛대에 꽂혀 테이블과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의미가 깊은 물건이기에 좋은 품질의 초를 구하길 원했고, 그래서 링뷔에 방문해 밀랍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 왔습니다. 또 꼭 올해 생산된 초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순수한 처녀 일벌이 생산한 밀랍만이 성스러운 제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기실 그것을 다 따지는 것은 왕실이나 교회, 또는 매우 신실한 가문 뿐이었지만.

“필연적으로 비싼 가격을 각오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더군요. 양봉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링뷔의 기후가 적당해 꽃이 오랜 기간 만개했다고 합니다. 밀랍 수확량이 많았다는 것은 으깰 벌집이 많았다는 것이고, 으깰 벌집이 많다는 것은 벌집이 그만큼 커서 꿀을 많이 딸 수 있다는 뜻도 되지요.”

“그러면 수도에서 퍼진 링뷔의 소식은 거짓이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꿀이…?”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을 하프룬이 빠르게 받아쳤다.

“누군가 산지에서 정상 가격에 사들여 어딘가에 쟁여 두고, 흉작 핑계를 대며 값을 띄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녀는 재단사의 귀띔이 사실인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정말로 모르텐 올센 그인지는 알 겨를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다시는 사교계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다. 적어도 다시 돌아온다면, 어느 늙은 귀족의 후처 정도의 이름표를 달고서겠지. 아직 앞길이 창창한 그녀는 그 상상을 견딜 수 없었다.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모르텐과 올센 가에 대한 분노도 얼마간 깔려있었다. 그리고 평생을 귀족으로 살아온 영애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평민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알았더라도 그녀 스스로의 명예보다는 값쌀 것이라 생각했다. 지극히 귀족다운 생각이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평소에도 호응이 큰 영애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한때 상회 가문과 미래를 약속했지요. 덕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를테면 상인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어디까지 무도해질 수 있는지도요.“

‘올센 상회가 범인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 후에 문제가 커져도 발뺌할 수 있겠지.’

하프룬은 떨리는 숨을 한 번 골랐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한숨처럼 보였다.

"신께 올릴 제물로 폭리를 취하다니…. 빛을 나누는 절기에 가난한 이들이 빛을 못 나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음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오늘 이와 같은 신성한 자리에서 말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아주세요. 윌름슨 백작 부인, 부디 이 자선회가 모금 기금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한 죄인의 부끄러운 고백이랍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몰랐던 백작 부인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상회라고 언급은 안 했으나 모두 같은 곳을 떠올렸다. 연회장이 드문드문 분노로 술렁였다. 그 술렁임 속에서 안데르센 영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평민을 두고 희락을 즐긴 영애, 한 번의 파혼으로 값어치가 떨어진 영애에서 지극히 신실한 영애, 신성을 사랑보다 앞세운 고결한 영애로.

* * *

같은 시각, 회문저택. 크로네 구시가의 한 귀퉁이, 오래된 담장에 둘러싸인 흰 저택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선회 초대장도 도착하지 못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회문저택이라 불렀다. 한때는 흰 문이었는데 드나드는 발길이 하도 많아 회색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 했다. 까마득한 옛날이야기였다. 지금은 드나드는 발길이 없었다. 산 공작 가문. 불 꺼진 저택 안쪽, 한 사내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망설였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

백지가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펜을 들었다. 또박또박 반듯하게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주를 풀어주는 곳이 있다고 했다.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의뢰를 넣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 준다고. 사내는 그 소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의뢰서에 답변이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온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였다.

* * *

자선회에 있던 하인들이 그날 밤 시장 골목으로 그 이야기를 날랐다. 자선회를 마치고 가문으로 돌아온 귀족들이 고용인들에게 꿀 가격의 사정을 묻기도 했다. 고용인들 앞에서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함께 분노해주는 좋은 주인을 흉내 낼 요량도 있었다. 이야기는 빠르게 담장을 넘어 수도의 거리까지 흘러나갔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 들불처럼 퍼뜨렸다. 거리에 달린 등의 불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꿀을 구경하기는커녕 급한대로 맥아당을 수소문하던 자들이었다. 자신의 형편 탓인 줄로만 알았던 구차한 구색 내기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깨닫자 분노가 한 곳으로 향했다. 기대했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상회 사람들도 꽤 섞여 있었다.

"신께 올릴 꿀에 손을 대? 어떤 천벌을 받을 놈들이!"

"수도의 상회라면 우선 상업 거리로 가보면 되겠군!"

해가 밝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상업 거리로 몰려들었다. 올센 상회를 비롯한 상회가 모여있는 곳이었다. 특히 상회 협회장을 맡은 올센 상회 앞이 가장 먼저 인파로 메워졌다. 처음엔 수십이었다가 이내 수백이 됐다. 올센 상회 종업원들은 처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인 줄 알고 반갑게 가판을 내걸었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건물 안으로 숨어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

"라르스 올센! 협회장! 나와보쇼!"

“올해 링뷔에서 꿀을 얼마나 들여왔는지 직접 봐야겠소!”

“흉년이라는게 진짜야? 장부를 공개해!”

함께 겁을 먹었던 다른 상회에서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슬쩍 상황을 지켜봤다. 올해 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손해가 꽤 막심했다.

“이 사실을 처음 밝힌 게 올센 가와 얘기가 오가던 귀족 영애라던데!”

“뭐? 그러면 정말 올센에서 손가락을 놀린 거 아냐?”

"신성모독자들!"

누군가 퍼뜨린 얘기가 걷잡을 수 없이 거리의 어지러운 타일 위를 타고 흘렀다. 그쯤 되자 정신없이 후다닥 달려온 모르텐 올센이 튀어 나왔다.

“아니 신성모독이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제가 알게 모르게 끌려가야 속이 시원하겠소!”

목소리가 잠시 누그러졌다.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이 종교재판소까지 끌려가는 걸 바라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상을 나누던 이웃이었다. 그때 다시 누군가 말했다.

“흉작 얘기는 뭐요?”

"흉작 소문은 우리가 낸 게 아니에요. 올해 꿀이 적다고 했더니, 알아서 이야기가 퍼진 거지."

“그럼 꿀 양이 대체 얼마나 들어온 건데! 장부 없어, 장부?”

“링뷔 쪽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모르텐은 오금이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정확한 수량을 얘기한다면 몰매를 맞을 것 같았다. 걸핏하면 모든 상황을 올센 가가 덮어쓸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돈을 반짝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속살거렸고, 행동에 옮긴 것은 자신이었다. 그 외 공범은 없었다.

“자, 자, 다들 침착하세요. 나도 꿀이 적은 것이 하도 수상해서 알아보니 링뷔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길에 운송 문제가 좀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밤낮으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그 꿀들을 다시 찾아올 방법을 구해뒀습니다. 머지않아 수도로 들어올 거예요.”

“하루가 급하다고 지금! 그 꿀들은 언제 들어오는 건데?”

“어……, 이, 이번 주말! 그때까지는 수급이 될 거요!”

대충 둘러댄 대답에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잠시 상황을 정리할 여유가 생겼다.

‘귀족 자선회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흘러 나왔다지… 그럼 필시 그 여자뿐이다’

우연한 기회로 마주친 귀족 영애였다. 잘보이면 백작가와 거래를 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검수를 마치고 가지고 있던 팔찌를 드렸다. 장사꾼의 미덕인 말솜씨로 입바른 칭찬을 가득 얹었다. 대단히 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가공되지 않은 자잘한 원석 수정들이 특이한 패턴으로 촘촘히 박혀 있어 빛을 받을 때마다 올망졸망하게 반짝이는, 썩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물건이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선물을 하느냐며 냉정히 돌아서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받아갔다. 그 뒤로 가끔 백작가의 주문이 들어오길래 아부가 잘 통했다 싶어 신이 났는데, 웬걸 백작가에 납품을 갈 때마다 영애와 마주치게 됐다. 그러다 연정이 생기고, 없는 용기를 모두 끌어 모아내 고백을 했더니 수줍은 승낙이 돌아왔다. 비슷한 처지의 남들은 꿈도 못 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간이며 쓸개며 빼줄 듯이 굴었다. 이를 알게된 아버지도 이 기회에 귀족과 연줄을 잇자며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에 약혼까지 별 어려움이 없었다. 안 될 거라 생각한 백작의 승인도, 영애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결국 받아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던 어느 날, 나를 시기하던 경쟁 상회의 후계자가 찾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협회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하는 결혼이겠지?’

질투 섞인 모함인 줄 알았으나 불안한 마음에 상인 규정을 겨우 구해 찾아보니 전부 진짜였다. 귀족이 자본과 계급을 이용해 평민인 상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평민 역시 대귀족의 유착과 정보 독점을 막는다는 명목의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었다. 3촌 이내에 귀족이 있는 집안은 공정성을 위해 상인 연합 협회장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더불어 귀족의 권세와 정보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상회의 모든 화물 마차는 관문에서 전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열된 규정들을 거듭 어겼을 경우 상회가 취급하는 품목에 일정 기간 1.5배의 가중세가 붙었다.

아버지에게 곧 제대로 상회의 주인 자리를 물려받고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일만 남았던 때다. 자칫 잘못하다간 애써 일궈온 가업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하는 결혼이라는 사실에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를 애써 숨기며 영애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떠보았더니, 상대 집안도 계급만 백작이지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제야 백작이 왜 약혼을 허락했는지 깨달았다. 여유롭지 않은 백작가 사정에 혼수를 들이지 않고도 딸을 결혼 보내고, 재정적으로만큼은 넉넉하게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무것도 모른채 고생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발걸음을 깨닫고 급하게 멈춰섰다. 영애에겐 다 얘기할 수 없었던 파혼의 사유였다.

수줍게 웃던 영애는 이 대가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백작의 장기말에 불과했을까. 갑자기 불쾌한 의심이 솟아났다. 선제공격을 당했으니 가만히 맞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여러분, 이 구역에서 우리 상회가 함께 울고 웃으며 밥벌이한 것이 대체 몇 해입니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대체 어디서 이런 오해가 시작된 겁니까?"

"아니, 귀족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들었다지 않나. 어느 상회가 꿀을 쥐고 가격을 뒤흔들고 있다고…"

허! 허리춤에 손을 차례대로 올리며 기가 찬 듯 혀를 찼다.

"촛대 한 개, 빵 하나 가격이 얼만지도 모르는 귀족님들이 갑자기 꿀 가격을 입에 올려요? 차라리 기분이 수틀린 귀족이 개미 뭉개듯이 상회 하나 망가뜨리려고 말에 칼을 심었다면 모를까."

뭔가를 참는 표정으로 말꼬리를 흐리자 오고가는 대화들이 어수선해졌다. 그때 상회 건물 안에서 라르스 올센이 다리를 살짝 절며 나왔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곰을 만날지언정, 분노에 찬 여인의 길을 막아서지는 말라더니……."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는 한탄 같았으나 사람들은 곧바로 올센 가에 일어났던 한 때의 소란을 떠올렸다. 그럼 이번 일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아무래도 모함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함께 모인다고, 거리의 사람들은 수월하게 같은 평민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럼 꿀이 들어오는 날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의심이 생긴 이상, 모두가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할 수 있을 테지요."

이번에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목소리가 비죽 삐져나왔다. 아까부터 계속 초를 치는 저 놈은 누구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상회 놈들인가? 뾰족해지는 눈빛을 바로 숨겼다.

"뭐 그렇게까지… 그건 저희 상인 협회장께서 하실 일이니 여러분이 고생하실 필요가……."

"아니지. 같이 확인하면 그만큼 꿀을 공급받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테지. 그렇게 합시다! 어떻소, 라르스?"

"뭐! 우리 올센 상회의 신의를 의심하는 거야!"

버럭하는 성미의 아버지를 잘 아는 모르텐이 그를 막아섰다. 지금은 맞불을 놓을 때가 아니라 바짝 기고 수긍할 때였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틀 뒤 아침에 이곳으로 오시오.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창고로 이동하겠습니다."

쥐고 있는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갔다. 의심 많은 작자들 같으니.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키우

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창고에 있는 꿀을 독차지하며 야금야금 시중에 뿌려대며 웃돈을 챙기려 했건만, 일이 이렇게 어그러진 이상 이득은 빠르게 포기하고 화난 민심을 잠재워야한다. 장사꾼의 계산기가 빠르게 두드려졌다.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 * *

리브가 라르스를 치료해주고 닷새라는 날짜를 받아왔을 때 리넛은 마음속으로 하프룬 백작 영애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때까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센 상회의 의도대로 꿀이 비싼 값에 시중에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망타진할 수 없을 뿐더러 모르텐이 욕심 많은 곳간을 채우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아가씨는 너무 늦지 않게, 자선회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의심의 불씨를 댕기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상회로 앞다퉈 몰려간다는 것을 듣고 따라갔다. 소박한 평민 복장을 입고 로브를 두른 뒤 무리에 섞인 리넛은 사람들이 의심의 화살을 제대로 꽂지 못하고 헤맬 때 마다 의견을 내는 척 다시 방향을 돌렸다. 그날 오후, 의뢰소에 세 명이 다시 모였다.

“이틀 뒤 아침에 올센 가가 이끄는 사람들이 창고에 가게 될 거야.”

“창고라면, 지난번에 파비안이 알아 온 그 장소지?”

“맞아요. 고용된 창고지기 수를 말미암아 보자면 적어도 창고가 두 채는 될 거예요.”

“그럼 그땐 내가 나설게. 좋은 생각이 있어.”

리브가 꺼낸 아이디어에 셋의 머리가 옹기종기 모였다. 한참 얘기를 나눈 뒤 리넛이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좋아 리브. 대신 상황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걸 고려해 관청에 정식 조사 요청도 넣어둘게.”

안온한 빛맞이절을 맞이할 날이 머지 않았다.

* * *

“자, 여기입니다. 중간에 운송 수단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상회의 사비를 털어 더 크고 좋은 수레를 보내 겨우 어제 도착한 링뷔산 꿀이에요. 자! 확인이 됐지요?”

활짝 열린 창고 안을 보기 위해 여럿의 머리가 우르르 내밀어졌다가 돌아가기를 몇 번 반복했다. 모르텐의 말에서 더 트집을 잡을 부분은 없어 보였다.

“진짜 꿀이군.”

“그럼 모르센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올센 상회에서도 가판대에 꿀이 텅텅 비어 있었잖은가.”

“하긴. 이득을 봤다기엔 수레값만 더 들었겠군.”

수량이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싶었지만 말 그대로 이송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꿀 자체가 귀한 상황이었기에 저만치의 양에도 갑자기 든든하고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그렇게 창고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무리의 맨 선두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아잇, 여기 웬 벌이야!”

“어어 조심해, 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난데없는 벌 몇 마리가 사람들에게 날아든 것이다.

“희한하네. 암만 주거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크로네에서 벌이라니?”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벌은 처음 보네.”

수도 크로네는 전반적으로 석회질 토양이어서 꽃과 같은 밀원식물이 잘 자라지 못했다. 푸른빛을 띠는 것이라고는 이끼나 고사리, 빽빽한 침엽수가 다였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벌의 등장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창고의 꿀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단지에 밀봉되어 있어서 꿀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않던가.”

“아니 그럼… 지금 이 벌들은 어디서 다 어디서 날라왔다는 거야?”

웨엥- 팔자를 그리며 비행하는 벌의 뒤꽁무니를 쫓자 지근거리에 더 많은 벌떼가 있었다. 신기한 현상에 사람들이 홀린 듯 벌을 따라갔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 홀린 아이들 같기도 했다.

“아니, 이게 웬!”

벌의 등장도 신기한데 더 놀랄만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나란히 이웃한 창고 두 채에 벌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다. 수레에 몇 마리가 딸려온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 분봉이 나서 아예

자리를 잡은 듯했다.

“이 창고 안에도 꿀이 있나본데?”

“뭐? 누구 창고인데?”

“어이 모르텐! 여기도 혹시 꿀을 뒀나?”

개방했던 창고를 갈무리하고 뒤늦게 사람들을 따라붙은 모르텐이 제일 뒷열에서 서성이다 화들짝 놀랐다.

“예? 아니 무슨… 링뷔에서 수도로 들어온 꿀은 아까 저 창고가 전부요.”

급하게 대답했는데 단어가 조금 씹혔다. 그만큼 눈앞의 상황에 당황했다. 꿀을 사실대로 공개하기는 했지만, 역시 다 내놓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이 어젯밤이었다. 그래서 모르텐은 오늘 사람들을 불러놓고 꿀이 든 창고 세 채 중 가장 큰 창고만 열어 보여줬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럼 지금 이런 시기에 꿀을 가지고 있는 상회가 어디 있단 말이야? 자네 정말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한 것 맞아?”

가장 험상궂게 생긴 자가 금방이라도 어깨를 칠 듯 가까워지며 으름장을 놨다.

“이럴 게 아니라 문을 한 번 열어보세. 으이? 열면 확인이 되지 않겠는가?”

창고 앞에 서 있던 문지기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문을 막으라고 자신들을 세워둔 것인데, 도저히 눈앞에 있는 사람 무리를 막을 도리가 없어 보였다. 게다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은 방금 창고의 존재를 부정한 모르텐이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지만 최소한의 피고용인의 직업정신과 신의를 발휘해 그 자리에서 ‘저 자가 창고 주인이오’라는 말을 하진 않았다. 그러기에는 예비 고용인들이 될 수 있는 상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비켜보시게.”

작은 손도끼를 허리춤에 끼고 다니는 자가 가장 앞에 섰다. 문짝을 부술 필요는 없었다. 창고에 든 것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됐기에 잠금장치와 연결고리만 부술 생각이었다. 보관물품이 별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주인을 찾아내 사과하고 새 자물쇠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될 일이었다. 다수가 모이며 도덕심이 흐려지고, 용기가 났으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고양감에 지배됐다. 툭, 툭 요령있게 몇 번 내려치자 연결고리는 금방 부서졌다.

“허…….”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열린 창고 안은 꿀단지로 가득했다. 천장까지 쌓인 단지들. 방금 전 창고에서 봤던 똑같은 포장, 똑같은 용기의 꿀이었다. 세월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이 틀림 없었다. 천장까지 쌓인 꿀단지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굳어 버린 황금 같았다.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모르텐을 쳐다봤다.

"아, 아니 꿀이 왜 여기도 있지?"

변명거리를 빠르게 찾지 못한 모르텐이 횡설수설하고 말았다. 모두의 눈썹이 이마를 찌를 듯 높이 솟았다.

"올센 상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군!"

"꿀을 숨겨서 자기네들만 배를 불리려고 했어!"

'상인협회장이 된 가문이 어느정도 조금 더 이득을 유리하게 챙겨간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불문율이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모르텐은 목끝까지 미친 변명을 입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도 이 양이 '어느정도' 쯤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잠깐 여기 좀 와보게!"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몇 사람이 와르르 창고 뒤편으로 몰려갔다.

"벌집, 벌집이다!"

"크고 아름다운 벌집이야!"

"뭐 벌집…?"

벌의 등장만큼이나 믿기지 않는 소리였다. 사람 머리통 크기의 벌이 창고 처마에 매달려 있었다.

"이 근방을 날고 있던 벌들이 이 벌집에서 나왔나 보구만."

"대체 어떻게 여기서 집을 짓게 된 거지?"

"지금 이 벌집이 있다는 것은… 허억!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상인치고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 상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지식인으로 통하던 이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벌들이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린다네.”

그리고 이곳은 꽃향기가 나지 않는 도시, 크론발트의 수도, 크로네였다. 근처에 벌들의 먹이는 없었다.

“이 창고에 있는 꿀을 먹이로 삼고 벌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창고에 이 꿀이, 최소 몇 달 전부터 있었다는 뜻일세!”

홱. 이번엔 모두의 고개가 모르텐으로 향했다.

“뭐, 뭐? 아니야,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지난 주에 들어온 것이라고!”

시선에 빼곡하게 찔린 모르텐이 다급히 외쳤다.

“하, 운송사고가 아니었군!”

“최소 몇 달 전부터 이걸 계획했던 거야.”

“우리들의 숨통을 조이고, 같은 평민들의 고혈을 짜 먹으려고!”

“어쩐지 못생겼더라!”

“빛맞이절을 염두에 뒀던 거지! 신께서도 외면할 자식아!”

“협회장을 맡을 때부터 이딴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닌가!”

개연성 없이 쏟아지는 악의들에 모르텐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부정하는 말들을 되는대로 주워섬긴 것 같은데 그 중 몇 마디나 형태를 갖추고 소리로 발현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저 악마의 자식에게 정의를 보여주세!”

꿀벌보다 더 사나운 침을 입과 주먹에 장착한 무리들이 모르텐을 향해 다가갔다.

* * *

결국 관청이 정식으로 창고를 조사했다.

모르텐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인지 더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던 상인들이 모르텐에게 발길질 세례를 퍼붓기 직전, 난데없이 관청 조사원들이 들이닥쳤다. 창고에 위험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 같으니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왔더니 위험 물질이 아닌 위험 생물인 벌이 있었고, 그보다 더 위험한 화난 군중이 있었다. 겨우 그 분노를 해산시키고 모르텐을 관청으로 데려갔다. 며칠 뒤 관청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상당량의 꿀이 흉작 때문에 부족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에 안 풀고 고의로 쟁여뒀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동시에 사건이 관청에서 종교재판으로 넘어갔다. 신의 제단에 올라갈 꿀로 폭리를 취하고자 했다면 이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 '성물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였다. 올센 상회는 휘청였다. 교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회의 후계자가 있는 상회와 거래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상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었다.

꿀값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묶여 있던 꿀이 풀리고 흉작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시장은 제자리를 찾았다. 평민들은 다시 빛맞이절 빵에 꿀을 넣어 만들고, 꿀단지를 제단 위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하프룬 안데르센은 용기를 내 불의를 밝힌 영애가 되었다. 진실을 위해 약혼까지 끊어 낸 용기 있는 사람. 신성을 지킨 사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신실한 가문의 자제들이 백작가에 연서를 넣었다더라 하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 * *

빛맞이절 당일, 크로네의 거리는 등불로 가득했다. 한 해의 가장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오는 날. 사람들은 집집마다 등을 내걸고 빵을 나누며 서로의 복을 빌었다. 거리는 따뜻한 불빛과 빵 냄새로 출렁였다. 상업지구 한복판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안데르센가 사람들이 거리에 큰 솥과 광주리를 내걸고 빵을 나눠 주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가난한 이들의 손에 쥐어졌다. 꿀이 발린 따뜻한 빵.

"이게 웬일이야……."

"안데르센 영애가 나눠 주는 거래!"

"고마워라. 올해는 우리 애도 절기 빵을 먹네."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입을 모아 베품에 감사해했다. 사실 안데르센 가는 빛맞이절에 거리에서 빵을 나눠 줄 만큼 신실한 집안이 아니었다. 백작가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고, 평민들과 함께 나눌 자비도 없었다. 하지만 파혼으로 한 번 고비를 겪은 안데르센 가는 이번을 기회로 삼았다. 의뢰소로 들어가다 얼떨결에 빵을 받게 된 리넛이 눈썹을 들썩이며 미소 지었다.

“그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재단사가 되었을 때 만난 하프룬 자작 영애는 이런 발상을 떠올릴 정도로 총명해 보이진 않았다. 하긴 그 정도로 혜안이 밝았다면 우리에게 의뢰를 넣을 일조차 없었겠지.

“제가 빵을 보냈지요.”

소파에 반쯤 드러누워 불빛을 갖고 놀던 파비안이 씨익 웃었다. 잠긴 서랍을 열어 안데르센가 의뢰서를 꺼낸 리넛은 벽난로에 종이를 던져 넣었다. 의뢰가 모두 끝났으니 비밀 유지를 위해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네가 빵을 보냈다고?”

소파로 돌아와 빵조각을 조금 뜯어낸 리넛이 파비안에게 조각을 슬쩍 들어보이고 입안에 그대로 가져다 넣었다.

“왠지 필요로 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마무리되는걸 보면서 바로 수도 곳곳의 빵집에 주문을 넣었어요. 보내는 곳은 전부 안데르센 자작가로 해두었지요. 우리 의뢰소 시길과 함께요.”

“흐허.”

입 안에 빵이 있어 벌리지 못한 채로 리넛이 웃었다. 그러니까 파비안은 안데르센 자작이 딸을 위해 마지막 쐐기를 흔쾌히 박을 것이라 확신했다. 트벳테리 인장을 보고 우리의 지시인 걸 알았을 테고, 의뢰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의뢰소의 지시라면 별 고민 없이 따랐겠지. 가문으로 들어오는 빵을 족족 받아 거리에 선심 쓰듯 풀며 완벽한 이미지 쇄신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반 밀가루를 써서 만든 빵이지만, 영수증에는 고급 밀가루 빵으로 가격을 계산해 의뢰비에 달아두었어요. 잘했지요, 린?”

새초롬하게 웃는 파비안은 리넛의 칭찬을 기대했다. 그녀가 파비안을 향해 싱긋 웃어줬다.

“내일 기사에 하프룬 영애의 별명으로 ‘백의의 성녀’가 붙는다에 한 표 던질게.”

“‘백가루의 성녀’가 아니라?”

리브가 차에 꿀을 한 스푼 크게 타며 농담을 던졌다.

“꿀을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저렴해졌다고 실컷 누리려는 거야?”

놀란 리넛이 묻자 리브가 작게 콧방귀를 꼈다.

“나는 원래 꿀을 좋아했다구. 그래서 이번 의뢰와 별개로 꿀 가지고 장난친 놈은 반드시 응징해야했어.”

아하. 귀엽다는 듯 리넛이 리브를 쳐다봤다.

“그래서 벌집은 어떻게 구한거야?”

“꿀은 좋은 치료제야. 꿀로 약을 만드는 약제사 중 유별난 사람들은 이곳 크로네에서까지도 직접 벌을 키우면서 꿀을 얻는다구. 없는 꽃 대신 비싼 꿀을 사먹여 가면서 말이야. 나한테 빚진 약제사 하나 없겠어?”

리브는 아는 약제사를 찾아가 벌집과 벌을 하루 빌렸다. 창고 방문 전날 밤, 잠을 자고 있던 벌들을 훈연으로 기절시킨 뒤 떼어내 벌집 째로 창고로 옮겼다. 그리고는 함께 가지고 간 밀랍으로 창고 처마에 달아두었다.

“그저 꿀을 오래전부터 보관했다는 것만 거짓 연출할 목적으로 벌집을 붙여둔 거였는데. 아예 그 창고 존재 자체를 숨길 줄이야.”

“덕분에 꿀의 존재가 더 극적으로 공개됐지. 괘씸함은 덤이고 말이야.”

“모르텐은 교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길 바라야지.”

애초에 그 사랑이 신분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다면. 귀족 영애가 평민 남성을 사랑하는 게 손가락질받을 일이 아니었다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창한 명분 없이도, 그냥 나쁜 남자랑 헤어졌다는 것만으로 떳떳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리넛이 잠깐 부질없는 상상에 빠졌다. 호, 호, 차를 불던 리브가 꿀차를 음미했다.

“아무래도 이번 의뢰의 최대 수혜자는 리브인 것 같네요.”

“시끄러워.”

파비안이 쿡쿡 웃자 리브가 핀잔을 줬다. 찻잔에 가린 입꼬리는 다 숨겨지지 않았다. 리넛은 웃음을 터뜨렸다. 드물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만족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

* * *

며칠간은 셋 모두 휴식을 즐겼다. 리넛은 그간 겨우내 준비도 살짝 했다. 두 달 정도만 있으면 해가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거였다. 겨우살이 풀을 사서 매듭을 엮어 문틀에 매달아 두었다. 이 아래를 지나가는 모두가 축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셋이 함께 모여 차와 대화를 나누는 탁자 위에는 말린 사과와 모과, 솔방울을 한 바구니에 담아 올려두었다. 은은한 향이 들숨과 함께 따라 들어왔다.

"음! 부들부들해!"

자신을 위한 선물로는 포근한 토끼털 안감을 댄 가죽 덧신을 준비했다. 파비안의 빵 강매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의뢰비가 더 들어온 덕이었다.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와 신발을 갈아신을 때마다 아늑한 기분이 들어 마음도 데워졌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린 그녀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오늘치 신문과 가십지를 규칙에 맞춰 정리해넣고 의자에 앉았다.

"어디 어떤 의뢰가 왔는지 볼까?"

간만에 세탁소에 들러 의뢰를 받아왔다. 귀족의 의뢰를, 그것도 큰 규모로 해결하고 나면 또 의뢰 수가 한 단계 늘어났다. 이를 방증하듯 리넛의 손에는 종이 여러 장이 들려있었다. 책상에 우수수 종이를 펼친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여성 편력으로 소문이 나서 억울해요? 맹세컨대 미혼 여성만 교류했습니다… 뜨거운 사나이 순정에… 하."

더 읽을 것도 없어 종이를 던졌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의뢰는 한 달에도 몇 개 씩 들어왔다. 처음에는 일일이 의뢰를 확인했으나, 그중 정말 억울했던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불이 없는 곳에서 연기가 날 리 없지 않나. 그 밖에도 진실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의뢰, 마법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의뢰, 국가와 대륙을 오가는 규모의 의뢰를 쳐냈다. 가볍고 단순한 의뢰들도 있었다.

"저희 의뢰소는 이제 수준 높은 의뢰만 받을 겁니다만?"

어깨를 펴며 마치 노련한 길드장을 흉내내며 없는 콧수염을 쓸었다. 장난치던 리넛의 손끝이 들고 있던 종이 위에서 잠깐 멈췄다.

「산 가문의 영애가 내년 데뷔탕트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사크 산-」

끝에는 가문의 인장이 찍혀있었다.

"산? 사아아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십지가 아닌 종이에서 산 가문의 이름을 본 적은 처음이었다. 리넛은 펜을 들어 손가락 사이로 돌렸다. 이제껏 받아 온 의뢰와는 결이 달랐다. 단순하고 한시적인 소문이 아니라 한 가문 전체에 씌워진 오래된 저주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아니 의뢰소 수준을 높이겠다 마음 먹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평소보다 고민이 길어졌다. 늘 늘어붙은 얼룩처럼 거슬렸던 흔적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과, 감당하지 못할 의뢰라는 걱정이 함께 솟아올랐다. 하지만 리넛은 원칙을 고수하기로했다. 의뢰를 받을지 말지 고민된다면, 언제나처럼 직접 확인해보기로. 그 결정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지 못했다.

* * *

그로부터 사흘 뒤, 리넛은 여전히 산 가문의 의뢰서 책상 위에 펼쳐 두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보통은 의뢰를 받은 후 며칠이면 진위가 가려졌다. 정말 억울한지, 캐 보면 쿰쿰한 구석이 있는지. 그런데 이번 의뢰는 사흘이 지나도록 가닥이 안 잡혔다. 파비안에게도 물어봤지만, 고개를 갸웃하며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리로 나가 산 가문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짠 것처럼 비슷한 답변을 냈다.

"산 가문? 아이고 아가씨, 그 집 근처도 가지 마요."

늙은 부인이 손사래를 쳤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대단한 공작가였다는데, 몇 대 전부터 우수수 무너졌잖아요. 가주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질 않나, 재산이 물 새듯 빠지질 않나, 집안에 흉한 일이 끊이질 않고. 그게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랑 엮이면 불행이 옮아붙는다고."

산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 다들 신화나 전설처럼 믿고 있었다. 그 실체를 직접 본 사람이나 겪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었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응? 무슨 저주인지 아느냐고? 글쎄 우린 모르지. 나도 돌아가신 조부가 들려준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주지. 멀쩡한 집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망하나요? 신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 가문은 일찌감치 신께 버림 받았어."

선대 가주가 왜 죽었는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추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다들 산 가문은 저주받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뿌리깊게 내린 믿음은 거대한 가지를 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있었다. 가문에 드나드는 외부인을 수소문하려 했지만 그 조차 여의치 않았다. 수도를 뒤져도 고용인으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립돼서 도대체 식료품이나 생필품, 의복은 어떻게 충당하는 건지 궁금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이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아 실마리를 찾았다. 산 가문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상회를 찾아낸 것이다. 다만 직접 공작저 본체를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었다. 대문만 지나 안마당에 물품 수레나 마차를 놓고 가면, 다음날 빈 수레나 마차를 다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대금은 그때그때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공작저에서 사람이 와 큰 금액을 맡겨둔다고 했다. 달아둔 금액에서 주문한 금액을 제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한다구요?”

”하하. 아가씨라면 그 저택에 맘 편히 들어갈 수 있겠어? 나는 공작저에 납품하는 날이면 아내에게 미리 알려둔다네. 그럼 집 앞에 소금 한 줄을 길게 뿌려두거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소금 선을 꼭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해.”

“혹시 잊은 적도 있으세요?”

“일이 너무 바빠 말하는걸 깜박하고 그냥 들어간 날이 있긴 했지.”

“그때 한동안 운수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해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셨다거나?”

“아니 뭐… 그렇게 물어보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래돼서 생각이 안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이 빠진 표정으로 지그시 쳐다보자 상회 주인이 머쓱해하며 말꼬리를 달았다.

“확실히 아내한테 등짝을 세게 맞긴 했어! 암. 그 통증이 꽤 아팠지.”

거리에선 더 들을 것이 없었다.

**** * *

리넛은 결국 공작저, 회문 저택을 찾아갔다. 오래된 담장에 둘러싸인 흰 저택. 한때는 흰 문이었는데 드나드는 발길이 하도 많아 회색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 했다. 까마득한 옛날이야기였다. 청동 대문에 가려 저택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담쟁이 넝쿨이 잔뜩 뻗어 있어 문의 위치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리넛은 길 건너편에서 한참 그 집을 바라봤다. 언뜻 봐도 창은 모두 덧창이 닫혀 있는 듯했다. 굴뚝에서는 올라오는 연기만이 사람 사는 곳임을 알렸다. 회문 저택은 세상으로부터 공작가를 지키고 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공작가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만 숨죽여 사는 삶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녀와 어머니가 그랬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와 어머니에게는 걸어 잠글 현관조차 없었다는 것뿐이었다. 리넛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시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저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비안이 귀띔해준 방법을 쓰기로 했다.

* * *

다음날 오전, 짙은 고동색의 스크립을 어깨에 메고, 가죽 행낭을 한 손에 든 여자가 의뢰소에서 나왔다. 리넛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성향 탓에 평소에는 머리에 뭘 쓰고 다니지 않았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첫인상을 위해 오늘만큼은 얌전히 베일을 둘렀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제법 찼기에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단이나 화려한 자수는 없지만 올이 촘촘하고 부드럽게 가공된 우플랑드를 덧입었다. 차분한 회갈색이었다. 혹시나 공작저까지 가는 길에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공작저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원색을 마주하면 거부감이 먼저

생길지도 몰랐다. 스크립 덮개에 달린 청동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적당히 빠른 걸음으로 분수가 있는 대광장으로 향했다. 대광장에 서 있는 삯마차 하나를 잡았다.

“왕립 도서관까지 가고싶은데요.”

마부는 고개를 돌려 리넛을 슥 훑어봤다.

"귀족지구?"

“네. 마님을 모시러 가야해서요.”

리넛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꾸며냈다. 괜히 목적지로 공작저를 올려 의심을 살 필요가 없었다. 마부는 별다른 의심없이 널찍한 발판을 내주었다. 리넛은 자연스레 마차에 올라탔다. 공작저까지는 걸어서 두 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기에 반드시 마차를 타야했다. 마차가 상업 지구의 소음을 벗어나 한참을 덜컹거리다 왕립 도서관 앞에 섰다. 허리춤의 가죽 포우치를 뒤져 동전 몇 닢을 꺼내 마부에게 건넸다. 마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태워 돌아갈 손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리넛은 왕립 도서관을 지나쳐 지구의 더 안쪽으로 향했다. 리넛이 걷고 있는 길은 귀족지구 내 가문비나무 가로수길이었다. 이 길의 가장 끝에 공작저가 있었고, 그 직전 건물이 왕립 도서관이었다.

“귀족님들이 왕립 도서관 방문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야.”

귀족들은 이미 자기 저택에 웬만한 책들을 갖춘 화려한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 또 책을 직접 읽기 보다는 가정교사나 시종에게 낭독을 시키고 침대에 누워 듣는 경우가 많았다. 굳이 멀고 엄숙한 왕립 도서관까지 마차를 타고 올 이유가 없었다. 그랬기에 공작저와 왕립 도서관이 나란히 있는 가문비나무 가로수 끝 길은 사람이 없어 황량한 느낌마저 들었다.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어 좋다 싶으면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딱 좋은 공작저의 환경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이윽고 회문 저택 대문 앞에 선 리넛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한 번 살폈다. 목 높이까지 오는 깃을 한 번 매만지고, 습관처럼 팔꿈치 아래부터 소매 끝까지 달린 단추를 슥 훑었다. 숨을 한 번 고르고는, 거대한 청동 대문 한복판에 박힌 사자 머리 모양의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쿵, 쿵, 쿵.

차가운 청동 고리를 들어 올려 무거운 나무 대문에 세 차례 세차게 내리쳤다. 둔탁한 파음이 공기를 가르고 대문 안쪽으로 흩어졌다.

“대문을 확인할 사람은 있겠지……?”

담을 넘어 정보를 캐거나 공작저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재주는 없었으므로 리넛이 직접 저택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침묵이 길어지자 살짝 조급한 마음이 들었

다. 의뢰소임을 밝히고 약속을 잡은 뒤 왔어야 했을까?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정보의 신뢰가 오염될 수 있었다. 쿵, 쿵, 쿵.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

"헉!"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만 더 두드린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대문 상단에 난 작은 철창 구멍의 가죽 덮개가 열렸다.

"누구십니까?"

구멍으로는 눈만 겨우 보일 정도였지만, 목소리로 나이가 꽤 든 남성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안, 안녕하세요. 불쑥 문을 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엘레노아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느릿하게 깜빡이는 눈은 무언의 긍정을 뜻하는 건지, 내쫓을 순간을 가늠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거절의 말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다음 문장을 이었다. 손에 쥔 행낭을 품에 꼬옥 껴안은 채였다.

"원래 오늘 남작저에 침실 하녀로 입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르크비크에서 이곳 크레네까지 며칠에 걸려 겨우 도착했는데…, 가문 내부의 사정으로 갑자기 고용이 취소되었다며 대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이미 고향의 집도 일터도 다 정리하고 올라온 터라,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고용이 될 줄 알고 여비를 더 챙겨 오지도 않았어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장부 정리와 바느질, 침실 수발 모두 능숙합니다."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다급하게 말을 건넸다. 스크립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구멍 틈으로 밀어 넣었다. 손이 떨리는 척 몇 번 헛손질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 제가 전에서 일하던 곳의 추천서와 신분 서류예요. 제발 집사님께 한 번만 제 사정을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며칠만이라도 재워주시고 식사를 주신다면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넛은 말하다 보니 정말 자신이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양 한 마리가 된 기분이 들어 진심을 다 해 사정했다.

'해마다 연기력이 느는 것 같아.'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길 건너에 있는 가문비나무가 스스스하며 저들끼리 비벼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기다려라.”

남자는 덮개를 내려 구멍을 닫고 구두 소리를 단정하게 내며 점점 멀어졌다. 진짜 인생 연기였는데. 만약 거절당한다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았다. 뭐지? 하지만 난 배우가 아니잖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보니 인기척이 나다가 거대한 청동 대문이 삐그덕거리며 무겁게 열렸다.

“들어오게, 엘레노아 양.”

리넛은 문을 열어 준 남자를 쳐다봤다가 살짝 움찔했다. 길게 내려오는 짙은 검은색 벨벳 우플랑드를 입은 사람은 절대 문지기로 볼 수 없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열쇠가 짤랑이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집사임에 틀림없었다. 약속 없이 무작정 방문한 평민 여성이 공작저 집사의 안내를 받다니. 황송한 대우에 조금 아득해지는 머릿속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외투 자락을 손으로 살짝 쥐어 올리고 집사를 따라 걸었다. 대문을 지나 저택 본관 건물까지 이어지는 안마당이 오랫동안 방치된 듯 거칠게 관리되어 있어, 까딱하면 옷자락을 진흙으로 물들일 것만 같았다. 넝쿨이 가득한 본관 건물 앞에 도착하니 집사가 양개형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깥의 칼바람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웅장하고 서늘한 전실이 펼쳐졌다. 외투나 모자를 받아줄 하인은 따로 없었지만, 공간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고장처럼 리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방의 벽면은 왕도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흰색과 진녹빛이 감도는 대리석으로 짜 맞추어져 있었고,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선 청동 벽등에는 미처 다 타지 못하고 굳어버린 매끄러운 밀랍 초의 잔해들이 고드름처럼 맺혀 있었다. 발밑으로는 공작 가문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증명하듯,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몸통을 한 그리핀 문양이 기하학적인 격자무늬로 정교하게 박힌 상감석 바닥이 길게 이어졌다. 한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탓인지, 정성스럽게 깎아낸 그리핀의 눈동자 위로 하얀 먼지가 아스라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실의 가장 깊은 곳, 그레이트 홀로 이어지는 아치형 문턱 양옆에는 사람의 실물 크기만 한 대리석 조각상 두 점이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섰다. 하나는 슬픔에 잠긴 채 아들을 기다리는 사냥의 여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밑에 사로잡힌 괴수의 목을 겨누고 있는 가문의 초대 공작상 같았다. 세월의 때가 타 잿빛으로 변해버린 대리석 영웅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단단한 어깨 위로 희미하게 빛바랜 녹색 자수 커튼이 겨울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리넛은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그저 귀족의 저택이 아닌 거대한 요새의 늪에 들어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공작 각하의 개인 집무실로 간다.”

“예? 개인 집무실을요?”

리넛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순간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아 목을 가다듬었다.

"따라오너라. 원래라면 네가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지만, 마침 공작 각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사정이 생기셨으니."

바른 말로 하자면 원래 대문을 넘지도 못했을 테지. 저택에 들어오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았던 리넛은 갑작스레 공작과 대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할지 위기로 느껴야 할지 헷갈렸다. 집사의 뒤를 따라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며, 리넛은 점차 저택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윽고 집사가 멈춰 선 곳은 복잡한 문양의 문이 달린 공작의 개인 집무실 앞이었다.

“제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집사는 그저 리넛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손에 든 가죽행낭을 가리켰다. 리넛은 빠르게 그 뜻을 알아듣고, 문 옆 복도에 행낭을 잘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집사가 노크를 한 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타오르는 벽난로의 훈기와 함께, 가죽 장서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향이 풍겼다.

“각하, 엘레노아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각하, 안녕하세요.”

쯧, 끝에 목소리를 좀 떨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가방의 끈을 놓은 뒤, 두 손을 치마 앞자락에 단정히 모아 쥐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며 두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쉬르크비크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 뻔 한 것을 참았다.

"예, 각하. 사정이 생겨 고용이 취소되는 바람에 무작정 이 고결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엘레노아 양, 서류를.”

리넛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집사에게 건넸다. 집사는 건네받은 종이를 갈무리해 공작이 앉은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섰다. 서류를 읽어보는 중인지 양피지가 바스락 소리만 불규칙적으로 들렸다. 위조 신분이나 가짜 추천서를 만드는 것은 처음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리브가 ‘문체 모사의 대가’라는 필공에게 맡겨 지방 서기들의 고리타분한 문체를 고스란히 흉내낸 서류였다. 인장은 리넛이 심심할 때마다 감자를 깎아 만든 가짜 치안관 문장 중 하나였다. 아무리 뼈가 굵은 집사라 한들, 마차로 사나흘이나 걸리는 변방의 치안관에게 사람을 보내 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산 가문이라면 더더욱.

‘읽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 역시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가?’

공작이 어떤 표정으로 ‘엘레노아’의 이력을 읽어내려가는지 궁금해 슬쩍 눈을 들었다.

‘엥?’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리넛의 눈이 커졌다. 책상 위에는 여성의 것이 분명한 화려한 리본 장식과 카탈로그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드레스가 그려져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책상 너머, 굳은 얼굴로 서류를 쥐고 있는 사내가 보였다.

‘뭐야, 생각보다 좀…….’

소문 속의 괴물 공작이라기엔, 리넛과 나잇대가 비슷해 보이는 희고 수려한 젊은 청년이었다.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받아 투명한 백은발이었다. 방 안에서만 자란 듯 핏기 없이 하얀 뺨 덕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글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길게 드리워진 은빛 속 눈썹 아래 내리깔고 있는 눈동자의 색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으로 들 때쯤, 고개를 들려는 낌새가 보여 리넛은 바로 시선을 내렸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기보단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가문에 도는 흉흉한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나?”

“각하.”

“예? 소문이라 하심은…….”

바로 이 얘기를 꺼낼 줄 몰랐기에 리넛이 쥔 주먹에 힘이 살짝 들어갔다. 공작을 가볍게 만류하는 듯한 집사와 리넛의 되물음이 겹쳤다. 공작은 리넛에게 계속 말을 건넸다.

“쉬르크비크에서 와서 잘 모를 수도 있어 미리 말해주지. 사람들은 이 공작저에 저주가 씌었다고들 하지. 내가 부정한 힘을 가졌다고 믿고, 이곳을 죽은 자들의 저택이라 부르며 가까이 오려 하지도 않아. 오늘 아침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한들, 네가 선택한 이곳은 왕도에서 가장 기피하는 저택이라는 뜻이다. 어느 쪽이 나은지 알 수 없지.”

‘그걸 미리 다 얘기해주면 어떡해. 아니, 혹시 나를 딱히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가?’

일손이 넉넉할 리 없는 곳이다. 아무도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제 발로 ‘나 데려가슈’하고 걸어 들어온 야무진 하녀가 나타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낚아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약점을 첫만남부터 다 꺼내서야 원.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른다 싶으면서도, 그만큼 오랜 시간 고립된 이의 순수함과 쓸쓸함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작게 혀를 찼다. 리넛은 확실한 신뢰를 주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유록색 눈동자를 단단히 빛냈다.

"각하, 지금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밤 들이칠 겨울 칼바람과 배고픔이지요. 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따뜻한 수프가 저주의 댓가라면, 응당 저를 제물로 지불하겠어요."

누군가 근거없이 떠드는 허상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라면 남의 시선과 의식을 신경 쓸 정도로 처지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리넛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소문은 사치품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저주라니, 리넛은 애초에 그런 것을 믿지 않았다. 거침없고 당찬 대답에 공작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조금 크게 떴다. 그러자 얼어붙은 호수같은 벽안이 드러났다. 진정 저 첫눈처럼 시리고 처연한 미청년이 사교계와 온 수도가 두려워 떨던 그 저주의 증거인 것이 맞나? 길에서 주워들은 소문의 반은 거짓이 되어 리넛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좋아. 그 용기를 고용하도록 하지."

공작은 책상 위에 놓인 카탈로그를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공작 영애의 데뷔탕트가 있다. 그 아이의 곁에서 사교계 장부를 돕고 의복을 돌봐줄, 지혜롭고 입이 무거운 체임버메이드가 필요해."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넛에게 다가왔다. 앉아있을 때 가늠했던 것보다 더 큰 키였지만 위압감 대신 따스한 벽난로의 온기가 함께 다가왔다. 공작은 리넛의 눈을 마주 보며 말했다.

"추천서에 쓰인대로……, 네가 글을 알고 셈이 빠른 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군."

"예,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짜 추천서를 다 읽어본 모양이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리브가 집어넣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잘한다는 노래 실력도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지?"

"예, 예?"

하. 돌아가면 리브를 족치리……. 저 양피지가 적는 대로 이뤄지는 소원 종이같은게 아닐 텐데. 킬킬 웃으며 필공에게 적을 내용을 지시하는 리브의 모습이 그려졌다.

"……공작 영애와 각하를 성심성의껏 보좌하겠습니다."

차마 노래도 부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대충 말을 돌렸다. 공작이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다는 듯 주제를 바꿨다.

“디아 산이다.”

꽤 여성스러운 이름이네. 리넛은 무심결에 생각하며 답했다.

“노라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러자 바람 빠지며 작게 웃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왜 웃지?

“여동생의 이름이 디아란 뜻이다.”

“아.”

내가 편견이 너무 없었네.

“그러고보니 내 이름도 모르겠군. 나는 이사크 산이다. 한데 노라보다는…… 이름 뒷글자를 따서 리노어는 어떻지?”

하녀 이름으로 리노어보다는 노라가 어울리지 않나? 뭐 어쨌든 짧으면 며칠, 길어도 몇 달만 쓸 이름이니 리넛은 상관 없었다.

“부디 입에 맞으시는대로 불러주세요.”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사를 바라봤다.

"구스타프, 리노어에게 방을 내어주게. 그리고 디아를 보좌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

"예, 각하.“

"리노어. 우리 가문에 온 것을 환영하네.“

말을 낮춰도 여전히 하녀에게는 너무나 예의있는 말투와 태도라고 생각하며 리넛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가볍게 얹고 고개를 숙이며 커트시했다. 가짜 하녀에게 보내는 주인의 배려에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구스타프를 따라 공작의 집무실을 나와 행낭을 주워 들었다. 리넛을 잠깐 기다려 준 구스타프는 청동 랜턴 치켜들며 어두운 대리석 복도를 앞서 가로질렀다. 저택에 들어선 순간부터 들고 있던 것이었다. 청동 대문을 넘을 때는 분명 눈이 부신 오전 열 시였건만, 내부는 한밤중과 분간이 어려웠다. 세상의 시선을 거부하듯 모든 창문에 두꺼운 나무 덧창이 굳게 닫혀 걸려 있는 탓이었다. 덧창 틈새로 새어드는 가느다란 햇빛 한 줄기를 제외하면, 청동 랜턴의 주황색 불빛에 의지해 겨우 윤곽이 드러났다. 그가 리넛을 데려간 곳은 의외로 본채의 따뜻한 중심부였다.

‘별채나 지하로 가는게 아닌가?’

리넛의 속마음을 들은 듯 구스타프가 그녀에게 설명했다.

"원래 하녀들은 지하 숙소를 쓰는 게 법도지만, 이 저택에는 사람이 적어 방이 아주 많이 남는다. 각하의 배려로 너는 영애님의 침실 바로 옆에 붙은 대기실을 쓰면 된다."

구스타프가 문을 열자, 아담하지만 아늑한 벽난로가 딸린 방이 나타났다.

"왼쪽 문은 복도로 이어지고, 오른쪽의 저 하얀 문은 영애님의 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영애님 부름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늘 귀를 열어두어라. 그리고 1층 복도 끝에는 나와 유모, 주방장의 방이 있으니 필요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내려오고. 더 궁금한게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구스타프 님."

"그러고 보니… 갈아입을 옷은 있나?"

외출복 차림인 리넛을 보며 미간을 좁혔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지, 곤란함이 느껴졌다. 리넛이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잽싸게 행낭을 들여보였다.

"물론이죠. 혹시 몰라 이전에 일하던 곳의 하녀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공작저에 정해진 하녀복이 없다면 이대로 입어도 될까요?"

고용인이라고는 아까 구스타프가 언급한 사람들이 다인 것 같았다. 사는 사람을 모두 합쳐도 손 하나에 다 꼽을 수 있는 저택이라니. 통일할 수 있는 복장이 있을 리 없다.

"준비성이 좋군. 그렇게 하게. 영애께서는 지금 저택 내에 안 계시네. 내가 너에 대해 미리 귀띔을 드려 놓을테니, 혹시나 뵙게 되면 놀라시지 않게 잘 말씀드리도록 해."

구스타프가 떠난 뒤, 리넛은 방안을 둘러보며 빙글, 한 바퀴 돌았다.

"최악의 경우 저택에 발도 못들이기, 차악의 경우 저택에 들어오는 순간 으윽! 단말마를 지르며 저주로 인해 쓰러져 죽기였는데 말이지."

리넛의 손가락 두 개가 차례대로 펴졌다.

"몸에 아직까진 이상이 없는걸?"

아, 하나 있긴 했다. 아까 공작을 보고 나서 살짝 시력이 좋아지고 개안한 것 같다. 킥킥, 실없는 생각을 하며 행낭을 열어 옷을 갈아입었다. 파비안이 챙겨준 크리니케 가문의 고용인 복장이었다.

‘하녀 복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와, 라고 미혼의 가문 차남이 얘기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 가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니 파비안이 어떻게 된 걸까라고 물어야 맞나?’

빳빳한 리넨으로 된 코이프로 귀와 머리카락을 감싸고 턱 밑에서 고정시켰다. 그 덕에 리넛의 얼굴이 더욱 단정하고 수수해 보였다. 리넨 재질의 부드러운 셰미즈 위로 울로 된 키르틀을 겹쳐 입었다. 키르틀은 짙은 녹색이어서, 리넛의 유록색 눈동자와 더없이 어울렸다. 치맛자락은 발목이 살짝 보일 정도로 딱 떨어졌다. 본격적인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기에 종아리까지 오는 두툼한 울 스타킹을 신고, 소가죽으로 된 턴슈를 신었다. 신발 안쪽에는 양모를 구겨 넣었는데, 집에 두고 온 토끼털 덧신이 그리워졌다.

“어쩔 수 없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는 이상 나의 토끼털 덧신과는 잠깐 작별하는 수밖에!”

겨울이 끝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작은 소망을 품으며 창가로 향했다. 창이 열리는지 확인해볼 생각이었다.

"으……차!“

거대한 나무 덧창의 쇠 빗장은 녹을 뒤집어쓴 채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리넛이 아랫입술을 깨물며 체중을 실어 밀어붙이자, 짧은 비명과 함께 빗장이 번쩍 들렸다. 이어 육중한 덧창을 바깥으로 힘껏 밀어젖히자, 틈새에 엉겨 붙어 있던 묵은 먼지 뭉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오전의 투명한 겨울 햇빛이 방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리넛은 콜록거리면서도 싱긋 웃었다. 이제야 좀 사람이 사는 방 같았다. 코이프를 다시 고쳐 맨 리넛은 방에 세워진 빗자루를 찾아 쥐고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쓸고 침상을 털어냈다. 대강의 청소를 마치고 옷자락을 탁탁 털었을 때는, 저택 깊은 곳에서 정오를 알리는 괘종시계 소리가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었다.

"아, 영감님이 등불을 안 주고 가셨네."

방을 나선 리넛은 움찔 멈춰 섰다. 덧창이 열린 제 방을 한 걸음만 벗어나도 복도는 빛을 집어삼킨 심연처럼 컴컴했다. 청동 램프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혹시 집사의 시험일까? 직업병처럼 의도를 가늠하며 오른손으로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었다. 손끝에 걸리는 정교한 벽면의 몰딩과 기둥의 개수를 헤아리며, 오전 낮에 집사를 따라왔던 동선을 머릿속으로 역산해 나갔다.

'오른쪽으로 스무 걸음, 기둥이 세 개 지나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리넛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였다.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참나무 장작 타는 매캐한 냄새, 그리고 뒤이어 느껴지는 뭉근한 수프의 온기가 느껴졌다.

리넛은 유록색 눈동자를 기민하게 빛내며 그 다정한 냄새의 꼬리를 잡고 거침없이 암흑 속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쯤에서는 길게 이어진 석조 복도마다 촘촘히 박힌 대리석 기둥

상단에 청동으로 된 벽걸이 촛대가 매달려 있었다. 타오르는 촛농이 벽면을 따라 붉은 눈물처럼 흘러내리며 길을 밝혀줬다. 리넛은 주방 화덕 온기가 새어 나오는 하인 공용 거실로 들어섰다. 길쭉한 참나무 식탁에는 집사와 유모, 그리고 커다란 국자를 든 주방장까지 단 세 사람만이 단촐하게 마주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그릇을 부딪치며 북적였을 과거의 흔적은 거실 구석에 쌓인 먼지 쌓인 빈 의자들로만 남아있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으련. 새로 온 아이라지?"

유모가 따뜻하게 웃으며 식탁 말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주방장이 리넛의 앞에 묵직한 토기 대접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 수프와 거친 호밀빵 한 조각이었다.

“이름이 뭐라고?”

“노라, 아니, 리노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 리노어! 나는 딜랴야. 발음하기 귀찮으면 그냥 언니라고 불러! 유모는 토라 유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내가 이 감자 수프를 끓이는 날에는 늘 감자를 12개만 깎으면 됐거든. 하지만 오늘은 네가 온 덕에 15개를 깎았다고! 하하하!”

딜랴가 주먹을 가볍게 말아쥐고 리넛의 어깨를 통통 쳤다. 가벼운 농만큼이나 가볍게 친 것 같은데, 다부진 주먹에 통뼈인 덕에 리넛의 목에서 쿨럭, 하는 잔기침이 잘게 터졌다. 그 모습을 본 구스타프는 눈썹만 한 번 훌쩍 들었다 놓으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딜랴가 하녀에게 자신을 격 없이 말해도 아무렇지 않은 눈치였다. 이 모습이 익숙하거나, 그만큼이나 허물없는 사이이거나,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리넛이 너무나 작은 존재이거나.

넓은 거실에 사람은 넷 뿐이었지만, 이곳 하인들의 식탁은 애틋하고 소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저 위층, 소연회장의 은식기를 두고 마주 앉아 있을 젊은 공작 남매의 식탁에도 이런 따스함이 있을까.

“딜랴님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계셨나요?”

지금 리넛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가문의 고용인들과 친해져, 조각같은 정보라도 하나 더 찾아내야했다. 의뢰를 수락하든 거절하든 선택에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순 없었다. 가장 벽을 허물기 좋아 보이는 딜랴를 공략하며 리넛은 가문에 들어온 목적을 다시 한 번 다잡았다.

“이곳에 오래 있었냐고? 말도 마라!”

딜랴가 커다란 수프 국자를 식탁 위에 탕,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 저택 뒤편 전나무 수풀이 내 장딴지만 했을 때부터 있었지. 우리 공작 각하랑 디아 영애

님이 요만치 해서 걷지도 못하고 뒤집기나 할 때부터 내가 이 집 음식을 책임졌단다. 그러니까 리노어 너는 물어볼 게 있으면 이 언니한테 다 물어보라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많이 신세 질게요. 그러면 이 스프는……."

리넛이 유록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상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말솜씨였다. 평생을 가문에 바친 주방장에게 이보다 좋은 사근사근함은 없었다. 딜랴는 좋은 정보원이 될 싹이 보였다.

같은 시각 저택 2층의 소연회장에는 묵직한 정적과 함께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기묘하게 뒤엉켜 있었다. 어스름한 낮빛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두꺼운 덧창이 내려앉은 방 안, 은제 촛대 위에서 일렁이는 불빛만이 은식기의 차가운 표면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공작 이사크와 그의 여동생 디아는 소리 없이 음식을 뒤적였다. 조용히 식탁을 지키던 이사크가 먼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최근 부쩍 몸이 아파지며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에 그의 안색은 밤새 앓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이사크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디아. 구스타프에게 새로 들어온 하녀 이야기를 들었니? 네 체임버메이드가 되어줄 아이다."

그 말에 투명한 유리잔을 만지작거리던 디아의 손길이 멈췄다. 디아는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웬 하녀인가 했더니, 제 데뷔탕트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은 듯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라버니."

디아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날 선 거부감보다는 오빠를 향한 염려가 섞여 있었다. 평소 살갑고 다정한 성격은 못 되었기에 퉁명스럽게 튀어나간 진심이었다.

"이런 걸로 가문에 사람을 늘릴 필요 없어요. 내 시중은 유모님만으로 충분해요. 오라버니 몸도 안 좋으신데, 외부인까지 들여가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유모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올겨울이 지나면 너도 데뷔탕트를 치러야 해. 네 드레스를 관리해 줄 장성한 또래 하녀가 한 명은 곁에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인다."

이사크는 예민해진 미간을 짚으면서도, 동생을 설득하는 목소리만큼은 억지로 힘을 쥐어짜 내어 다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디아는 영 시큰둥했다.

"전 데뷔탕트에 흥미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나비처럼 차려입고 나가서 억지로 웃고 싶지 않다구요. 가주인 오라버니도 저택에 남겨두고, 나 혼자 사교계에 나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그냥 오라버니 곁에 있을래요."

가문의 저주니 괴물이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고 싶지 않다는 표현은 생략했다. 이사크 역시 알아들었을 것이다. 디아는 시원한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디아, 건강한 영애가 이유도 없이 데뷔탕트를 치르지 않을 순 없어.”

이사크는 타오르는 속을 진정시키려 은잔을 들어 올렸다. 디아의 유리잔과 달리, 그의 은잔에서는 뭉근하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따뜻하게 데운 포도주스였다. 그가 잔을 입술에 대고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수려한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하며 한순간 일그러졌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입안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느라 잔을 쥔 손가락 마디를 하얗게 굳혔다. 뜨거운 액체가 닿자마자 헐어버린 잇몸이 강하게 자극되는 느낌에, 이사크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삼켰다.

세상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안에 숨어 살던 공작. 가문의 저주라는 오명 속에서 그가 남몰래 앓기 시작한 원인 모를 신체적 쇠약은 이미 그의 입안을 온통 피와 상처로 헤집어놓은 상태였다. 찬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여동생과 달리, 이사크가 오직 따뜻한 음료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디아는 오빠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빠가 요즘 부쩍 몸이 아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도 무언가를 억지로 참아냈다는 것을 디아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성격상 "어디가 아프냐"며 다정하게 매달리지는 못했지만, 디아는 속상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눈으로 이사크를 바라보았다. 이사크는 아무렇지 않은척 타월로 가볍게 입술을 누른 뒤,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덧붙였다.

“꼭 데뷔탕트가 아니더라도 그 애는 네게 좋은 말벗이 되어줄 거다.”

디아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의 고집이 결국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에, 더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 아이가 정말 쓸만하다면, 곁에 두진 않더라도 내쫓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도 식사 거르지 말고 다 드세요.”

무뚝뚝한 당부를 남긴 디아가 소연회장을 나섰다. 동생 앞에서는 마음 편히 아파하지도 못하는 이사크를 배려한 것이었다. 이사크는 동생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식어가는 은잔을 쥔 채 쓸쓸히 눈을 감았다. 표현은 서툴러도 서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남매의 우애는, 어두운 방 안의 촛불보다도 위태롭고 애틋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 * *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리넛은 주방 일을 돕겠다고 자처했다.

“어이쿠, 야무지기도 해라. 그럼 리노어 네가 위층 소연회장 식기 좀 수거해 올래? 구스타프가 다른 일을 보러 가셔서 말이다.”

“네, 딜랴 언니. 금방 다녀올게요.”

리넛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직한 목도 트레이를 든 채 2층 소연회장으로 향했다. 남매가 떠난 식탁은 고요했다. 리넛은 양손을 기민하게 움직이며 은식기들을 트레이에 담기 시작했다. 눈으로는 은식기 위 남겨진 흔적들을 훑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딜랴와 함께 식기를 닦으며 리넛은 짐짓 모른채 물었다.

“각하께서는 고기를 즐기지 않으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각하께서 키가 그렇게 큰 것은 소공작 시절부터 내가 열심히 고기를 요리해 드린 덕분인걸!”

“하지만 고기를 거의 다 남기셨는걸요?” 리넛이 들어올린 식기를 본 딜랴가 혀끝을 쯧, 찼다.

“아유, 오늘 고기도 영 씹기에 힘드셨나?”

“네?”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 충분히 부드러워보였다. 잘못 굽거나 질이 나쁜 고기는 아닌 듯했다.

“각하께서 종종 전혀 씹지 못하실 때가 있어. 그럴 땐 고기나 단단한 빵은 입에도 안 대시고, 오직 푹 끓여서 으깬 수프나 아주 부드러운 죽 종류만 겨우 몇 스푼 뜨시는 게 고작이야. 저렇게 마르시는데 내 속이 다 터진다니까.”

딜랴가 한숨을 쉬며 행주로 조리대를 팍팍 닦았다. 리넛은 조용히 이사크의 은잔을 집어 들었다. 잔 밑바닥에 남아 있는 차 찌꺼기를 살피던 리넛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딱딱한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하고, 오직 부드러운 액체만 삼킨다…….’

리넛은 이번에는 디아의 식기를 살폈다. 식사에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잔을 들어보니 이사크의 잔에 남은 온기와 다르게 손끝에 찬기가 느껴졌다. 그것을 본 딜랴가 덧붙였다.

“아, 두 분의 음료를 준비할 때 네가 기억해둘 것이 있다. 우리 영애님은 시원한 음료를 좋아하시니, 음료를 내드리기 전에 꼭 창밖에 두었다가 드리도록 해. 반대로 각하께서는 아주 미지근하거나 데일 정도로 따뜻한 것만 드시지. 각하께서는 포도 주스를 자주 찾으시니까 음식에 곁들일 음료로 뭘 낼지 고민되면 그냥 포도 주스를 내. 온도를 틀리지는 말고 말이야.”

딜랴는 남매가 이렇게 다르다며 껄껄 웃었지만, 리넛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리브에게 전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이나 취향도 리브가 공작 남매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문의 저주라는 기괴한 소문의 장막 뒤편, 마주한 젊은 공작 남매의 진실이 조금씩 파헤쳐지고 있었다.

* * *

주방 일을 정리하고 배정받은 처소로 올라온 리넛은 가만히 숨을 골랐다. 체임버메이드의 방답게, 리넛의 처소는 디아 영애의 침실과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건너편에서 가끔 소음이 들리는 것이 디아가 방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똑, 똑, 똑.

침대 머리맡, 영애의 방과 연결된 커넥팅 도어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문틈 사이로 디아의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리노어? 안에 있으면 잠시 들어와 봐."

리넛은 기민하게 표정을 지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두 방을 잇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디아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디아의 방은 공작의 집무실이나 저택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조금 밝았다.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한낮임에도 어둑어둑한 것은 비슷했지만, 어디선가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서늘한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디아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리넛을 돌아보며 오라버니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집사와 오라버니에게 네 얘기를 들었어. 미안하지만, 난 너를 계속 옆에 두고 쓸 생각은 없단다."

디아는 이사크와 마찬가지로 은색빛 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다. 아니다, 이사크보다는 조금 더 짙은 푸른색일까? 남매를 같이 두고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명한 건, 둘 다 선이 고운 미려한 미인이었다.

"내 시중은 누가 더 들어줄 만큼 거창할 것이 없어. 내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을 청소해주고, 곧 겨울이니 화덕을 살펴줘. 그 외에는… 없겠구나. 남는 시간에는, 오라버니가 뭐라 하셨든 너는 다른 일을 도우며 지내도록 해."

체임버메이드의 역할 중에는 여주인이 입는 의복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디아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관리할 만큼의 의복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영애님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방을 잠깐 살펴도 될까요?"

"그래, 그리고 영애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아가씨라고 불러."

디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디아에게 하루종일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리넛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저택을 돌아다니며 살피거나 고용인들과 붙어있을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리넛은 침대를 살피기 위해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바로 옆 협탁에 작은 화분들이 여럿 놓여 있었다.

"아, 그건 위험한게 아니라……!"

리넛이 화분 중 하나를 손끝으로 툭 쳤을 때였다. 디아가 미리 귀띔해주는 것을 잊었다는 듯 급하게 리넛을 돌아보며 소리치다 멈췄다. 리넛이 건든 것은 전체적으로 거무죽죽한 색에 점점이 흰색 점이 핀 색깔이나 생김새까지 섬뜩해, 잘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갈 생각도 못할 외형이었다. 그리고 솜털이 난 줄기 끝에 달린 톱니 모양의 잎사귀는 건드리는 순간 확 펼쳐지며 속살을 드러냈다. 꼭 위협적으로 독을 퍼뜨릴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네?"

리넛은 아무렇지 않게 디아를 돌아봤다.

"약초 아닌가요?"

디아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신다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약초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가끔 듣도 보도 못한 약초들을 의뢰소 탁자 위에 늘어놓고 말려대서 회의를 할 때 방해되기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리가. 리넛이 드물게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그게 약초인 걸 어떻게 알았어? 크로네 왕도의 유능한 의원들도 독초나 잡초인 줄 알텐데."

"아…… 고, 고향에서 보던 것이어서요."

"고향? 네 고향이 어딘데?"

"쉬르크비크입니다, 아가씨."

모른다. 이 약초가 쉬르크비크에서 나는게 맞는지. 저는 그냥 남 고민이나 해결해주는 평범한 평민인데요.

"쉬르크비크!"

리넛의 불안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디아가 반색하며 외쳤다.

"그래, 이 약초가 쉬르크비크라는 곳에는 흔한 것이구나. 이 잎을 짓이겨서 즙을 내면 만성적인 갈증이나 피부염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다고 책에서 읽었어. 우연찮게 내가 찾아낸 것이지. 그런데 내가 잘 키우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약초를 키워낼 방법을 아니?"

'에헤이.' 리넛은 속으로 혀를 찼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리넛은 뒷머리가 가려워 긁고 싶어졌다. 거짓말을 더 키우면 좋지 않았다. 디아가 대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잠깐… 쉬르크비크… 혹시 너, '로즈힙'도 알아?"

디아가 창가에서 걸어 나와 리넛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무표정하던 뺨에 기묘한 열망과 열기가 올라와 있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디아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갈증을 느끼듯 속삭였다.

"그 장미를 오래전부터 꼭 이곳으로 들여와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곳엔 연고도 없고, 가문 사정이 이래서야 그 먼 남부까지 보낼 사람도 없어서…… 그저 꿈만 꾸고 있었지. 왕도의 상인들은 우리 저택의 의뢰라면 질색하며 문전박대할 게 뻔하니까."

디아의 시선이 리넛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네 고향이 그곳이라면, 연줄이 닿는 상인이나 인편을 통해 그 묘목을 구해올 수 없을까? 뿌리가 상하지 않은 신선한 묘목으로 말이야."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디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리넛에게는 만능에 가까운 해결사이자 쉬르크비크가 고향인, 리브가 있었다. 애초에 '엘레노아'의 신분 서류에 고향을 쉬르크비크라고 해둔 것도, 리브가 별 고민없이 자신의 고향을 필공에게 불러 적어 넣었을 것이었다. 그 증명서의 특기에 '노래'도 함께 적어넣은 리브를 떠올리며 소소한 복수로 그녀를

귀찮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은 좋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가씨. 제 고향의 장사꾼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지요."

그제야 디아의 얼굴에서 날 선 경계심이 어느정도 걷혔다.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 끝에는 옅은 안도감도 묻어났다.

"좋아. 묘목을 무사히 가져온다면, 네가 내 데뷔탕트를 돕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오라버니에게 말씀을 드릴게."

"감사합니다, 아가씨." 당신의 데뷔탕트 전에 제가 먼저 떠날지도 몰라요. 리넛은 디아의 착각을 굳이 고치지 않았다.

* * *

저택에서의 첫날 밤, 방에 돌아온 리넛은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복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목표를 다시 되새겨봤다. 첫째, 저택 고용인들과 친해져 가문의 저주라 불리는 소문의 실체와 정보를 낚아챌 것. 둘째, 공작 가문의 서재에 잠입해 역대 가문원들의 사망 원인과 증상이 기록된 가문 계보 책을 확보하여 저주설을 확인할 것.

리넛은 램프 불빛에 의지해 밤눈을 익힐 겸, 조용히 방을 나와 저택의 복도를 거닐었다. 밤이 되자 저택은 낮보다 음산하고 기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벽면을 빽빽하게 메운 역대 공작들의 초상화들이 리넛을 내려다보았다. 캔버스 위로 뽀얗게 쌓인 먼지들은, 마치 먼저 죽은 이들에게 신이 씌워놓은 불길한 베일처럼 보였다.

리넛은 무심히 초상화 액자들을 훑으며 지나치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평소에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았을 벽면의 구석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 빛이 바래 거뭇하게 삭아버린 주변 벽지와 달리, 그 숨겨진 틈새에는 유독 선명하고 아름다운 진녹색 안료의 빛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참 고운 초록색이네…….'

처음 저택에 들어왔을 때도 곳곳에 진녹색이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가문의 인장도 진녹색이었다. 파비안에게 받은 제 하녀 복장도 진녹색이었는데, 우연치않게 공작가에 튀지 않고 어울리는 고용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리넛이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저 멀리서 가냘픈 불빛이 다가왔다. 유모였다. 유모는 늦은 밤 복도를 서성이는 하녀를 발견하고 낮게 헛기침을 했다.

“이 밤중에 잠들지 않고 무얼 하느냐, 리노어.”

“아, 유모님. 잠자리가 바뀌어 잠이 오지 않던 차에, 저택 구조를 눈에 익혀두려 나왔습니다. 밤낮으로 영애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요.”

리넛이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유모의 등불까지 대신 받아 들었다. 유모는 리넛의 기특한 태도에 경계를 조금 풀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단호했다.

“기특한 마음가짐이다만, 밤에는 되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 각하께서 몸이 편치 않으셔 밤귀가 아주 예민하시단다.”

“각하께서 많이 아프신가요? 딜랴 님도 통 식사를 못 하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던데요.”

“산 가문의 주인들이 대대로 인물들이 훤칠하시지?”

리넛이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척 운을 떼자, 유모는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초상화로 말의 주제를 돌렸다. 옆에서 바라본 그녀의 깊게 파인 눈가 그늘이 더욱 어두워졌다. 여러 액자 중 정확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분도…… 젊으실 적에는 정말 힘 있고 눈빛이 반짝이셨지. 지금 각하를 뵐 때마다, 그때의 고통이 자꾸만 겹쳐 보여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누굴 얘기하는 걸까? 이어지는 유모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집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았다.

“아물 만하면 상처가 또 터지고, 멍이 온몸에 시퍼렇다가도, 또 언제는 기력을 잃고 누워만 계시고…….

그러다 갑자기 제게 돌아온 유모의 시선에, 자세와 표정을 바로했다.

“리노어, 각하를 잘 모셔주거라. 불편하거나 아프신 곳이 없도록 말이야.”

“예 유모님. 마땅히 제가 해야할 일이지요.”

유모는 은은한 미소를 띤 채 더 이상의 말을 아끼려는 듯 등불을 받아 들고 제 처소로 걸어갔다. 홀로 남겨진 리넛의 유록색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유모가 흘린 이야기들. 현 공작을 얘기하는 건지 전대 공작을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몇 가지 증상을 더 알게 됐다. 창백한 안색, 급격히 쇠하는 기력, 상처가 자꾸 덧나고 터지는 증상과 멍…….

공작 혼자만의 증상이 아니라면, 이 가문에 정말 영혼이 오염되거나 신의 형벌을 받는 저주가

내려온 걸까?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의 냄새를 맡은 사냥꾼처럼, 리넛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의뢰소에 한 번 다녀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 *

다음 날 아침, 리넛은 자연스럽게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가 식사준비를 도왔다. 디아의 침실과 화덕을 살피는 일은 식사 후 그녀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주방 일을 도운 지 단 몇 십 분 만에, 리넛의 눈썹이 묘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주방에 있는 식재료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선반에는 바짝 말라비틀어진 건조 고기와 거친 호밀 가루, 소금에 절인 염장 채소 단지들이 들어있었다. 점심으로 내가기 위해 미리 딜랴가 창고에서 꺼내놓은 생고기의 색깔도 그리 신선해보이지 않았다. 산 가문은 사교계에서 고립된 이후 왕도의 일류 장사꾼들이 납품을 거부했다. 그래서 상회를 이용해 식료품을 납품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폐쇄성 때문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주방에는 살아 있는 색이 없었다.

딜랴가 큼직한 무쇠 칼로 순무를 쾅쾅 내리치는 모습을 보며, 리넛은 문득 이사크를 떠올렸다.

'희멀건한 것이 꼭 이사크 안색같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잘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음식을 계속 먹다가는 건강한 사람도 아프겠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리넛은 행주를 내려놓으며 딜랴와, 마침 주방을 점검하러 내려온 집사 구스타프를 향해 생긋 웃어 보였다.

"딜랴 언니, 집사 님. 아무래도 영애님과 각하의 기력을 돋우기엔 준비된 식재료가 부족해 보여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직접 왕도 시장에 나가 신선한 식재료를 좀 사 오면 안 될까요? 이래 봬도 제가 물건 보는 눈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 리노어 네가 직접?"

딜랴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집사 구스타프 역시 의외의 제안에 놀란 듯 눈썹을 훌쩍 들어 올렸다. 구스타프는 잠시 리넛의 유록색 눈동자를 빤히 응시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묵직한 은화 몇 닢을 꺼내 주었다.

"……좋다. 왕립 도서관 당번 사서들이 교대하기 위한 마차들이 오갈 거야. 잠시 후가 교대 시간이니 그것을 타고 가거라."

"네, 걱정 마세요!"

은화를 챙긴 리넛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완벽한 외출 명분이었다.

* * *

도서관 앞에서 삯마차를 탄 리넛은, 도착지로 지체없이 의뢰소 주소를 불렀다. 그녀가 아지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길게 누워 있던 리브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라, 공작저의 신참 하녀 엘레노아 양? 첫날 밤에 귀신이라도 봐서 도망쳐 나온 거야?"

리브가 큭큭 거리며 짓궂게 아는 체를 했다.

"리브, 앞으로 네가 써준 소개서는 무조건 확인해야겠어."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서류인데."

리브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뗐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리브, 너 쉬르크비크에 다녀와야겠어."

"뭐라고? 왜?"

리넛이 디아의 부탁에 대해 설명하자 리브가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답답한 것을 싫어했다. 크로네에서 쉬르크비크까지는 마차로 며칠이 걸렸다. 딱딱한 착석감과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 고생할 리브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 부탁을 냉큼 들어준다고 하면 어떡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고향에 다녀오면 좋잖아. 곧 연말이야. 가족들을 한 번 보러 가야하지 않겠어?"

그 말에도 여전히 리브는 끙, 앓는 소리를 내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리브를 제외한 리브의 가족들은 여전히 쉬르크비크에 남아있었다. 사이가 나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성격상 매년 절기나 연말연시를 가족과 꼭 함께 보내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었기에 리브는 고향에 드물게 방문했다. 고민하는 리브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기에, 우선 다음 얘기를 꺼냈다.

"리브. 저택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한 것들이랑 고용인에게서 얻은 정보들이 조금 있어."

리넛은 주방에서 보게 된 이사크의 겉보기 모습과 식성, 식사와 음식의 상태, 그리고 유모가 흘린 증상들을 빠짐없이 전달했다.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리브의 검은 눈동자가 이채를 띠었다. 그녀는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진단을 내렸다.

“그거 내가 아는 증상 같은데.”

“뭐? 병에 걸린 거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말만 듣고 진단해보자면. 괴혈병이야. 심하면 잇몸이 썩어 피가 나고,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 멍이 드는 데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도 하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고립된 선원들이나 성안에 갇힌 이들이 앓던 건데, 그 증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지?”

“가장 좋은 건 신선한 베리류나 양배추. 어쨌든 신선한 식재료를 많이 섭취해야해.”

“그거면 돼?”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식재료에 리넛은 살짝 맥이 빠졌다.

“그리고…… 로즈힙 열매 같은 것들이지.”

영 말하기 싫은 것을 말하는 듯 리브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뭐? 디아 영애가 부탁한 거?”

“응. 그런데 그래도 찝찝한 건, 요즘 괴혈병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없거든. 암만 식재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식재료를 받고 나서 직후 얼마간은 신선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을 것 아냐?”

“나도 공작가의 비밀이 그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아무래도 쉬르크비크에 가봐야 할 것 같네. 로즈힙도 구하고, 가서 스승님을 뵙고 공작가의 병증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가능하다면 치료법도 찾아보고.”

결국 리브가 마지못해 쉬르크비크행을 결정했다. 리넛이 싱긋 웃었다.

“좋아.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면 네 집으로 편지를 보낼게.”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며 리브가 일어섰다.

의뢰소를 나온 리넛은 왕도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구스타프가 준 은화로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빛깔이 고운 제철 베리류와 파릇파릇한 채소들을 한가득 구매했다. 커다란 천 가방 두 개가 묵직하게 차올랐다. 리넛은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삯마차를 타

고 왕립 도서관 앞에 내려 회문저택의 대문을 두드렸다.

* * *

"……돌아왔군."

저택의 육중한 정문을 열고 들어선 리넛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집사 구스타프였다.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여느 고용인들처럼 도망친 줄 알았던 하녀가, 양손에 터질 듯한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대로 돌아왔으니 무뚝뚝한 그도 놀라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심부름값으로 은닢을 준 것은, 혹시나 그 길로 도망가게 되더라도 산 공작가에 대해 너무 나쁜 말만은 옮기지 말아주길 부탁하는 마음도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디서 이렇게 싱싱한 놈들로만 골라왔어?"

딜랴가 돌고래 같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베리 하나를 주워 들고 싱글벙글 웃었다.

앞치마에 슥슥 닦은 베리를 한 입에 넣고 음, 음, 만족해하는 딜랴의 표정을 보며 리넛이 슬그머니 말문을 열었다.

"딜랴 언니, 혹시 오늘 각하가 제가 가지고 온 식재료로 식사를 잘 드신다면,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 뭔데?"

"앞으로 제가 식재료를 사러 밖에 간다고 하면 각하께서 늘 흔쾌히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걸 이렇게라도 가끔 드셔야 건강을 빨리 회복하실 테니까요."

"아하하, 당연하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디 보자, 각하께서 허락하실 수 밖에 기깔나는 디저트를 하나 만들어보자고."

딜랴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신나게 움직였다.

***

"리노어!"

점심시간. 하인 거실에 고용인들이 먹을 음식을 나르고 식탁 위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자니 구스타프와 딜랴가 거실로 들어섰다. 공작 남매에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오는 길이었다.

"각하께서 허락하셨어! 어찌나 미안해하시던지. 우리만 이렇게 귀한 신선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각하, 그런 게 바로 주인의 특권이지요. 저

희 걱정마시고 영애님과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각하께서도 아주 소소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

"네가 식재료를 사기 위해 외출한다면 다녀와도 된다고 하셨다. 나갈 일이 생기면 주방장이나 나한테만 미리 귀띔하고 다녀오도록 해."

딜랴와 구스타프가 차례로 말했다. 리넛은 기쁜 듯이 웃었다. 저택 대문을 종종 넘나들어도 의심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을 구실이 생겼다.

딜랴의 말대로, 그날 산 가문의 식탁에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는 빛깔'이 올랐다. 잘게 으깬 부드러운 수프 위에는 신선한 채소즙이 곁들여졌고, 새콤한 생 베리는 고기 소스로도, 식후 파이로도 만들어졌다. 이사크 공작은 싱그럽고 새콤한 맛이 제법 마음에 들었는지, 평소보다 고기를 몇 조각이나 더 먹었다. 부드러운 파이는 부스러기만 남기고 다 먹었다. 뒷정리를 위해 식기를 주방으로 전달하며 구스타프는 설거지에 여념없는 리노어의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아까 딜랴와 각하와 영애의 식사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이봐 구스타프. 간만에 두 분 식탁에서 표정이 밝으셨지?'

'…그래, 봤지.'

'나 역시도 예전엔 두 분을 위해 뭐든 무릅쓰고 밖에 나가볼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야. 자네도 나한테 말했잖아. 쓸데없이 정의로운데 앞뒤까지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나?'

'그런 내가 혹시나 잘못 처신해서 두 분께 해가 되거나, 이 저택에 안좋은 소문을 덧씌울까 싶어 어느순간부터 포기했었거든.'

'…'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너무 작은 행복마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어.'

딜랴와 웃으며 손끝으로 장난치는 말간 옆모습을 바라봤다.

'처음엔 각하를 말렸지만, 저 아이를 고용한 게 제법 잘한 선택일지도 모르겠군.'

'작은 행복'을 느꼈던 것이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는지를 곱씹으며 구스타프는 뒤를 돌아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날까지만 해도 구스타프도, 저택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싹싹한 하녀가 기특하게 사 온 과일과 채소 몇 잎이, 공작의 병증을 어떻게 뒤바꿔놓을지에 대해서.

공작가의 막내 고용인이 새로운 식재료를 부지런히 들고 드나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크 공작의 만성적인 피로가 점차 가라앉고 산발적이던 잇몸 출혈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수건을 피로 적시던 공작의 파리한 안색 위로, 아주 미세하지만 건강한 핏기가 스며들 듯 감돌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러나 지극히 좋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 * *

외출을 다녀온 날 밤. 리넛은 침대에 누워 낮에 봤던 것을 가만히 복기해보았다. 양손 가득 무거운 천 가방을 들고 안마당을 지나 저택 본체에 들어설 때는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풍경이, 고요 속에 혼자 들어서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잡초도 나지 않아 황량하게 다져진 안마당 한구석, 바람이 불어와 낮게 쌓인 모래 구릉 위로 얼핏 보인 것이 있었다. 붉은 칠이 된 나무 태엽 인형. 그리고 모래밭을 굴러다니던 알록달록한 형체들.

'아이 장난감이라니…….'

저택에 처음 들어올 때는 분명 없었던 물건들이었다.

'아닌가? 그때 구스타프를 정신없이 뒤따라가다 미처 못봤나?'

기억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원래부터 놓인 것이라 해도 수상했다. 대를 이을 어린 후계자는커녕, 미혼의 젊은 남매와 늙은 고용인 셋뿐인 이 음산한 공작저에 아기의 장난감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풍경은 조화롭지 못했다.

'공작 남매가 어릴 때 쓰던 거라면 최소 십수년은 지났을텐데 아직 색이 선명했지. 최근에 덧칠하거나 구입한 것처럼 말이야.'

순간, 리넛의 등골 위로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다. 왕도의 뒷골목을 떠돌던 산 가문의 흉흉한 유언비어 중 하나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 가문비나무 거리로 길을 잘못 든 누군가가, 한 저택에서 유령을 보고 까무라쳐 놀라 기절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보니 산 가문 저택이었다는 이야기.

'아이 유령이 있다고?'

리넛은 대체로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서늘함이 몸을 스쳤다. 리브가 있었다면 그런 존재는 말도 안된다며 단호하게 나를 안심시켜 줬을텐데. 어쨌든 이 가문에서 확인해 봐야할 목록이 하나가 늘어났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스터리 트리거를 만나게 된 리넛은 그날 밤에도 일찍 잠에 들진 못했다.

* * *

시작은 혹시 모를 유령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며칠 동안 주방과 저택을 오가며 일을 돕는 동안, 수상한 정황이 속속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고싶지 않아도, 누군가 떠 먹여주는 수준이었다.

가장 흔히 보는 모습은 디아 영애의 의심스러운 행적이었다. 디아는 아침 식사 후 화덕을 살피러 들어갈 때부터 이미 침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저택의 거대한 청동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어 밖으로 나간 흔적도 없는데, 영애는 늘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곤 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돌아온 디아의 드레스 자락과 구두 굽에 항상 거뭇한 흙과 마른 풀잎이 묻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 저택에 들어와서 다시 걸어 나간 사람은 없다는 소문도 있던데…….'

꽤나 오싹한 소문과 구덩이를 파는 영애의 모습이 상상처럼 피어올랐다. 리넛은 너무 멀리 간 생각을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밀어냈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했다. 디아를 따라다니며 은밀히 염탐하기란 불려 다니는 하녀 신분으로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고용인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공백이 티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리넛은 디아의 체임버메이드 임무를 제외하고서는 딜랴 아니면 구스타프의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

틈새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어떤 날이었다.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나고, 리넛은 주방에 조금 늦게까지 홀로 남아 마지막 뒷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걸레로 탁자를 훔치던 그녀의 귀에 아주 미세하게 끼이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나지막한 인기척이 걸려들었다.

'아이 유령! 아니면 혹시 디아 영애?'

리넛은 걸레를 내팽겨치고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을 죽였다. 어두컴컴한 복도 너머를 살그머니 바라보자, 어둠을 가르고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아이의 유령도, 디아도 아니었다. 그것은…… 커다란 로브를 뒤집어쓴 장대한 어른의 형체였다. 리넛은 침을 꿀꺽 삼키며 발소리를 죽이고 조금 더 뒤따라갔다.

그림자는 고요하면서도 신속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각하의 집무실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사크 공작의 은밀한 외출이었다.

'오늘은 저녁 식사를 아예 거르기에 평소보다 몸이 더 좋지 않은건가 했는데.'

지레짐작했던 것이 틀렸다. 낮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디아 영애와, 밤에 로브를 쓰고 돌아다니는 이사크 공작, 그리고 안마당의 아이 흔적까지.

'이걸 폐쇄된 가문이라고 부르는게 맞느냐고!'

산 가문을 둘러싼 장막은 리넛을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 * *

다음 날 아침, 리넛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속을 짐짓 숨기고 딜랴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다. 여전히 딜랴가 식재료를 주방에 옮겨주면 리넛이 손질하는 방식이었다. 힘을 쓰는 건 죄다 딜랴가 하고, 리넛은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함에 딜랴에게 물었다.

"언니, 고기나 채소는 어디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가 낮지 않아서 주방 밖에서 매번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아, 이거? 주방 옆에 작은 화물용 뒷문이 따로 있어. 거기로 나가면 식재료 외부 창고가 있지. 한 달에 한 번 정기 식재료가 들어오면 거기로 먼저 넣어. 바퀴 달린 수레가 다닐 수 있어서 편하니까. 모든 식재료를 다 가지고 올라오기엔 아무리 나라도 쉽지 않아."

젊고 힘센 고용인들이 많은 저택 같았으면 주방과 더 가까운 곳에 보관 창고를 두고, 식재료를 납품받는 날 모두 정리할 수 있을텐데. 아무리 잔뼈도 진짜 뼈도 굵은 딜랴라도 한 달 치 분량을 한 번에 옮기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고 유모와 구스타프에 부탁하기에는…….

'차라리 내가 더 도움이 되겠어.'

딜랴의 말을 들으며 감자 껍질을 깎던 리넛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어제 각하가 저 주방 옆 뒷문으로 다녀오신 거구나.'

시간이 날 때 뒷문을 한 번 확인해봐야겠다. 퍼즐 한 조각을 찾은 리넛의 손길 아래 껍질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식사 후, 리넛은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시장이 크게 열렸다. 각지에서 수도로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구스타프가 따로 시킨 일은 없었기에 딜랴에게만 간단히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일러뒀다. 평소처럼 청동 대문으로 외출을 하려던 리넛은 생각을 고쳐 뒷문으로 향했다.

'아하, 여기로 나올 수 있구나.'

뒷문을 이용해 저택을 빠져나오니 그다음 가야할 길도 눈에 보였다. 저택 뒷마당과 이어지는 우거진 숲만 무성한 듯 했으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발자국에 밟힌 자국들로 샛길이 하나 나 있었다.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흔적을 따라가니 어느새 가문비나무 길로 빠져나온 채였다.

"이렇게 움직이면 대문도 이용하지 않고, 산 가문인걸 들키지 않고도 외출이 가능하겠네."

아무리 고립된 생활을 해왔더라도 불가피하게 담장을 넘어야 할 일은 생겼을 것이다. 그때마다 이 샛길을 밟았겠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종종 걸음으로 더 걸어 삯마차를 얻어탄 리넛은 익숙하게 장을 보며 신선한 식재료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날이 갈수록 이사크의 식기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그게 자못 뿌듯해서 리넛은 장보기에 조금 신경을 썼다.

제철이 되어 올해 처음 들어왔다는 햇과일을 살피던 그녀 근처로 회색 로브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지나갔다. 왠지 모를 기시감에 고개를 휙 들어 뒷모습을 응시했다. 의뢰소 일을 하게 된 몇 년의 경력으로 말미암아, 저 남자를 지금 쫓아가야 한다는 촉이 발동했다. 리넛은 깨금발을 걸어가며 그 그림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역시 공작이야.'

고개를 돌릴 때 가끔 보이는 은발이나 옆선이 공작의 것이었다. 로브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이사크의 걸음은 의외로 거침이 없었다. 왕도의 활기 넘치는 평민들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한때 북부 공작령을 호령했다던 가문의 가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그저 평민들의 좌판에 멈춰 서서 소소한 잡화들을 구경했다. 길거리 광대들의 어설픈 공연이나,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벌이는 열띤 정치 토론을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경청하기도 했다. 그는 소문 속 비난받고 저주받은 공작이 아니라, 평범한 군중 속에 녹아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 어귀의 작은 가판대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구정물 흐르는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낡은 신문과 시들어가는 장미 몇 송이를 팔고 있었다. 이사크는 말없이 다가가 아이가 가진 장미 전부와 신문을 넉넉한 금액을 치르고 구매했다.

'상품성이 없는 꽃인데 저걸!'

공작가 재정 사정이 누굴 도울만큼 여유롭진 않을텐데.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본 것처럼 속이 타는 리넛을 꿈에도 모른 채 이사크는 저만치 홀로 앉아 볕을 쬐고 있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슬며시 장미다발을 건넸다. 상하고 짓눌린 꽃잎을 솎아내 최대한 생기를 돋운 채였다.

갑작스러운 꽃선물에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소녀처럼 환하게 피어올랐다. 이사크는 노파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로브 자락을 휘날리며 이름 없이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보이는 것은 뒷모습뿐이었기에 그녀는 이사크가 어떤 표정으로 꽃을 건넸는지 몰랐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책무 중 하나라며 평민들을 위한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가문의 의뢰를 해결할 때도 자선회가 등장했었다. 신의 축복이 내려올 것이라 믿기도 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진심인 척하며 주변에 겸손을 떨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에 우월감을 느끼는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저주받은 가문은 그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리라. 그가 내미는 손길은 도움이라기보다, 저주와 병의 악마가 건네는 악수라며 기피했으리라. 이 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까지도. 방금 건넨 돈과 꽃은,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만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텐데 뭐하러…….’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다 똑같이 당신과 당신 가문을 욕하던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골목 벽 뒤에 숨어 그 모든 뒷모습을 지켜보던 리넛은, 가슴 한구석이 서글프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고작 이런 평민의 평범한 인생조차 제 모습 그대로 즐기지 못하다니…….’

외출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공작보다 먼저 서둘러 귀가하는 마차 안에서, 리넛은 생각에 잠겼다. 의뢰를 수락하기 전 사실 확인을 위해 잠입한 위장이었건만, 로브 속에 감춰진 공작의 쓸쓸한 온기를 목격한 순간 마음의 저울추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사실 그 전부터인가? 하인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다같이 나누는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때부터. 공작이 파이를 한 입 더 먹었냐 아니냐를 두고 그날 기쁨의 크기가 정해질 때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유없는 악의를 오랜 시간 받아내며 잔뜩 웅크린 가여운 짐승들을 발견했을 때부터 였을까? 산 가문을 더 알고 싶다. 그를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그를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게 둥지를 틀었다.

* * *

“받아라. 네 앞으로 온 편지들이다.”

리넛은 깜짝 놀라 구스타프를 바라보았다. 산 가문에 들어온 이후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당한 줄 알았는데, 집사의 손에서 먼저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외부와 교류를 끊었던 가문이다. 가문에서 들고 나는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까지도 신경 쓰일 수 있었다.

‘식재료로 외출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잘 보인 뒤에 우편 허락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구스타프는 리넛이 들고 있는 편지의 굳어 있는 밀랍 인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서재의 촛불 아래에서 저 봉인을 깔끔하게 녹여 열었다가 다시 붙일 방법 따위는 수십 가지도 넘게 떠올렸었다. 가문을 수호하는 집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검사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러지 않았다. 타인의 비밀을 등 뒤에서 훔쳐보는 음습함은 그가 평생 바쳐온 집사의 미덕이 아니었으므로. 쥐새끼처럼 행동하느니, 차라리 눈앞의 아이를 조금 더 날카롭게 감시하는 편이 노신사의 긍지에 걸맞았다. 겨우 청소와 요리 준비 정도를 돕는 하녀가 가문을 흔들만한 비밀에 접근할 방법도 없었다. 게다가 최근 리노어는, 정말로 자신을 받아준 저택에 은혜를 갚겠다는 듯 열심이었다. 제 쓸모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은 ‘한 번 믿어볼까’하

는 틈새를 만들었다.

"…조심히 읽어라. 외부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려 저택의 일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구스타프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열며, 평소보다 조금 더 묵직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어젯밤의 고뇌를 털어냈다. 리넛은 그 말에서 미약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래서 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구스타프 님, 제가 편지를 보낼 방법도 있을까요? 고향의 친구들이 보내준 것인데, 저도 답장을 하고 싶어서요.”

고향의 친구라는 얘기에 구스타프의 눈썹이 조금 누그러졌다.

“외부로 나가는 서신은… 저택의 사정상 간단하게라도 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군.”

구스타프의 말에는 ‘이제 가문에 들어온지 며칠도 되지 않은 네가 혹시 서신에 어떤 걸 쓸지 모르니 의심이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된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하지. 저택의 소문을 확인이라도 하겠다고 몰래 잠입해서는, 소문의 실상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지 누가 아는가?

‘어, 그거 뭔가…… 내 얘기가 맞나…?’

구스타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럴게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넛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긋 웃었다.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엄포는 정보원인 그녀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의뢰소 식구들과 주고받는 편지에는 그들만의 철저한 암호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손에 들린 편지를 꺼내 같이 읽어보자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만한 내용은 없을 터였다.

하루를 정리한 리넛이 마지막으로 디아의 이부자리를 살피고 방으로 돌아왔다. 서랍에 넣어둔 편지를 꺼내 그 중 하나를 펼쳤다. 리브의 글씨였다.

「다녀올게. 도착해서 연락하겠음.」

‘지금쯤 쉬르크비크로 가고 있겠네.’

리브는 산 가문의 대물림되는 사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디아가 애타게 찾던 ‘로즈힙 묘목’을 직접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다시 만날 때는 아마 해를 넘긴 후일 것이다.

‘병증을 찾을 열쇠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친구가 새로운 곳의 적응은 어떤지, 건강한지 하는 등의 가벼운 문장들이었지만, 대치법을 이용한 단어들을 원래의 뜻으로 치환하면서, 동시에 격자 모양으로 글자를 건너뛰어 읽자 숨겨놓은 정보들이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산 가문의 저주와 병에 관해서는 사교계에서도 별 소득 없음. 소문 수집 중, 아주 찜찜한 정황을 하나 포착했음. 우리의 과거 의뢰 중 하나가 산 가문과 얽힌 듯함. '눈물여울 새 연회'를 떠올려 볼 것.」

"눈물여울 새 연회라면……."

파비안이 던진 단서는 리넛의 기억을 헤집으며, 수년 전 왕도 사교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어느 화려하고 유쾌했던 여름날의 기억 속으로 그녀를 사정없이 이끌고 들어갔다.

당시 한 신흥 백작은 가문 대대로 연회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악평에 시달리고 있었다. 빠른 유행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전통을 고집한 연회를 열어 크게 실패한 게 원인이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고급 은도금 식기와 악단을 고용해 연회를 준비해도 소용 없었다. 시시한 치들만 와서는 음식과 술을 축 내고 가는 식이었다. 관심받는 것을 좋아했던 백작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제발 '신선하고 품격 있는 파격'을 기획해 달라는 것이 의뢰의 요지였다.

의뢰소가 이를 수락했다. 파비안 역시 사교계 유명인사로, 어디를 가나 황금 촛대와 벨벳 커튼으로 장식된 연회장에 질려가던 참이었다. 변화를 주려면 대담하게 벽을 허물어야 했다. 리넛과 리브는 우선 실내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오페라 극장 등이 위치해 문화의 중심지가 된 극장 지구를 살폈다. 하지만 연회를 열기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았다. 다음으로는 귀족지구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그러다보니 외곽의 울창한 사유림과 호숫가까지 발길이 닿게 됐다. 대낮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호숫가는 본래 뱃놀이나 조용한 데이트를 즐기는 심심하고 정적인 장소였다. 그곳에서 리넛은 우연찮게 기적 같은 돌파구를 찾아내 연회를 설계했다.

왕도의 중심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동물, 사교계가 명명하길 호반새의 일종인 '눈물여울 새'였다. 그 작은 새들은 번식기가 되면 에메랄드빛과 황제의 공작석을 섞어놓은 듯한 영롱한 깃털을 뽐냈고, 우거진 침엽수림 사이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플루트 같은 청아한 울음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리넛은 백작에게 지시해 호숫가 자갈밭 위에 화려한 개방형 파빌리온을 세우게 했다. 귀족들이 비단 드레스와 부드러운 염소가죽 구두를 더럽히지 않고 청량한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카펫을 깔았다. 그리고 이 연회의 핵심 요소로, 당시 왕도의 전수공업 장인들이 비싼 수정 렌즈를 깎아 만든 황동 '오페라 글래스'를 참석자들에게 지급했다. 야외 연회, 희귀한 새, 값진 기념품. 여기까지만으로도 귀족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관심을 돈으로라도 사고자 했던 의뢰인은 기꺼이 지불했다. 빈 파빌리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거기에 리넛은 귀족들의 유치한 호승심을 자극하는 문구를 백작의 입을 통해 흘렸다.

"자, 내기합시다! 이 깊은 침엽수림 속에 숨은 에메랄드빛 새를 가장 먼저 찾아내어 그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독점하는 분께, 오늘 백작 가문이 내놓는 최고의 명품 포도주를 선사하겠습니다!"

전략은 적중했다. 따분한 사교댄스와 가식적인 대화에 신물이 나던 오만한 귀족들은 마치 수렵 대회에 나온 사냥꾼처럼 흥분했다. 그들은 레이스 장갑을 낀 손으로 황동 오페라 글래스를 쥐고 기민하게 렌즈의 초점을 맞추며 숲을 훑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숨은 새를 찾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가 되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는 새를 찾는 척 숲속으로 슬쩍 숨어들기도 하고,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놓고 바라보지는 못했던 이성을 오페라 글래스로 조준하며 느긋하게 훔쳐보기도 했다. 연회는 대성공이었고, 리넛은 의뢰소로부터 묵직한 의뢰금을 챙겼다. 리넛에게 그것은 그저 유쾌하고 완벽한 성공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연회 며칠 뒤, 은밀한 응접실들 사이로 흘러나왔다는 후일담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망원경을 들고 새의 깃털을 찾던 몇몇 귀족들이, 숲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시덩굴과 핏빛 이끼가 벽을 집어삼킨 음산한 독채 오두막.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배율 높은 광학 렌즈가 들려 있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뜰과 창가를 정밀하게 들여다본 귀족들은 사르르 핏기가 가신 채 비명을 삼켰다고 했다.

"돌바닥에 검붉은 피가 잔뜩 눌어붙어 있어! 대지에 인신공양이라도 바친 게 분명해!"

"창가에 거꾸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저 섬뜩한 형체들은 대체 뭐지?"

"잠깐, 저 오두막 외벽에 걸린 문양…… 저건 분명……!"

귀족들은 자신들이 저주의 증거를 목격했다며 빠르게 소문을 날랐다. 연회 당일에는 흥을 깨지 않으려 조심하던 이들이, 저택으로 돌아가기 무섭게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한 것이다. 이교도의 제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직접 오두막을 목격한 한 귀부인은 기운을 정화하겠다며 사제들을 불러 소금을 뿌리고 지방 영지로 내려가 버리기도 했다. 밀실에서 주고받았던 자극적인 소문은 반짝 사교계를 휩쓸다 이내 사그라들었다. 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저주가 묻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얼마 안 가 치정극 사건이 벌어진 탓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의 주인이 산 가문이었구나.'

그때는 그저 입을 털기 좋아하는 귀족들이 숲속에서 술김에 헛것을 보고 과장해서 말을 뿌렸다고 생각했다. 빠르게 사장되며 활자로도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비안의 입을 통해서만 듣고 잊어버렸다. 되짚어보니 연회를 열었던 호수는 회문저택 지근거리에 있었다.

"하……."

리넛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의뢰를 받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이유는 애먼 피해자를 만들거나, 가해자를 돕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의뢰인을 구제하려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됐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화살을 쏘았다니. 그리고 그 눈 먼 화살을 맞은 가문이 원래도 피투성이로 구르던 가문과 사람들이었다니.

자신의 손으로 귀족들에게 쥐여준 망원경이 공작가의 목을 죄고 숨을 조르는 감시 도구가 된 것 같았다. 오두막이 정말 평범한 오두막이라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산 가문과 공작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다. 리넛은 사고처럼 마주친 진실에 윽, 하는 신음을 길게 흘렸다.

* * *

식사 시간이 되어 하인들이 공용으로 쓰는 거실의 두툼한 참나무 식탁에 산 가문의 고용인들이 모여 앉았다. 주방장 딜랴가 허허 웃으며 리넛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토기 대접과 거칠게 구운 호밀빵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특제 수프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딜랴가 만들면 늘 특제 수프였다. 리넛이 힘없이 스푼을 들려다 말고, 식탁 중앙에 놓인 유리 단지로 시선이 멎었다. 그 안에는 점성이 강하고 어두운 진홍빛의 액체가 아가리를 벌린 채 가득 담겨 있었다. 오전에 주방장이 빵에 투박하게 발라주었던 잼.

'돌바닥에 검붉은 피가 잔뜩 눌어붙어 있어! 대지에 인신공양이라도 바친 게 분명해!'

조금 전 파비안의 편지를 보고 떠올린 장면이 문득 튀어나오자 생리적인 거부감에 몸이 잘게 움찔 떨렸다.

"왜 그러니 리노어, 어디 몸이 좋지 않니?"

곁에 있던 유모가 걱정스레 묻자, 리넛은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요, 수프가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으로 먹었던 저 잼 말이에요. 빛깔이 참 고운데…… 혹시 무슨 과일로 만든 건가요?"

주방장 딜랴가 으쓱하며 탁자에 턱을 괴고 스푼으로 허공을 지휘하듯 휘저으며 말했다.

"야생 산딸기랑 붉은 비트,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배합해 졸인 잼이지. 산 가문의 고유한 비방이랄까."

"한창 가문이 번성했을 땐 거대한 무쇠 가마솥에 몇 백 리터씩 달여서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다더구나."

유모가 아련한 눈으로 말을 받았다.

"물론 나는 아주 옛날 이야기라 본 적 없지만 말이야. 사실 이 레시피도 정확하진 않아. 내가 아주 어릴 때, 지하 창고의 토기 단지에 밀봉되어 있던 해묵은 잼을 맛본 적이 있거든? 그 맛을 겨우 흉내 내 본 거지. 각하께서 도통 식사를 못하실 때 혹시 저거라면 드실까 해서."

"매번 얘기해주지만, 거의 비슷해. 딜랴,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가문의 맛을 손끝만으로 재현해 내다니 말이다."

"몇 백 리터씩이나요?"

리넛은 침을 삼켰다. 과연 그만큼 깊은 풍미가 있기는 했다.

"그만한 양의 잼을 어떻게 이 좁은 주방에서 다 감당했을까요?"

지금의 주방은 다양한 동제 조리기구와 오븐으로 가득 차 있어, 그만치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걸 만한 화덕이 보이지 않았다. 유모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잼을 달이는 정제실이 따로 있었단다. 여기서 멀지 않은 외곽 숲인데, 야생 산딸기 군락지 바로 옆에 돌로 지은 독채 작업실을 두고 썼지. 그래…… 관리하는 이가 없으니 지금은 완전히 덩굴에 뒤덮여 엉망이 되었겠구나. 원액을 짜고 탕을 끓이다 보면 돌바닥에 진홍빛 과즙을 잔 잔뜩 흘리게 되는데, 그게 열기에 바짝 눌어붙으면 아무리 솔질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서 하인들이 고생을 꽤나 했지."

"그때 창가에 매달려 있던 허브 뭉치들도 넣는거 아니예요?"

딜랴의 말에 유모가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다.

"아냐 딜랴. 그 약초와 허브 뿌리들은 향을 보존하고 해충을 쫓으려고 둔 거였어. 매달아 말려두곤 했는데 향이 멀리 퍼져서 효과가 좋지."

"뭣!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것도 잼에 들어가는 재료인 줄 알았죠. 내가 이제껏 잼 만들 때 계속 약초를 넣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했어요? 어쩐지 뭔가 맛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싶었지!"

“거의 비슷하대도?”

유모와 딜랴는 빛바랜 옛 기억이 즐거운 듯 대화가 길어졌다. 하지만 리넛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딜랴와 유모가 주는 정보를 바로바로 씹어 삼켜 소화하느라 이명이 일듯 귀가 먹먹해졌다. 머릿속 오페라 글래스의 초점이 선명하게 맞물리며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식사 전, 편지를 읽으며 생긴 고민의 실마리를 바로 잡게 됐다.

‘유모와 딜랴가 말한 정제실이 소문의 오두막이라면?’

귀족들이 망원경 너머로 보며 기겁했다던 ‘돌바닥의 검붉은 피’는 그저 들러붙은 산딸기 과즙이었고, 창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제물의 시체’는 향을 보존하려 말려둔 약초 뿌리였을 뿐이었다. 오해가 풀려 속이 시원해짐과 동시에 리넛은 도로 갑갑해짐을 느꼈다.

‘이미 그때 그 소문으로 산 가문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이유없는 비난과 욕을 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문을 걸어 잠근 산 가문은 자신들이 오해를 쓴 것도 모른 채 지금처럼 이렇게 저택 안에서 서로만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괴한 소문이 나도록 발판을 깐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손에 쥔 스푼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리넛은 거대한 죄책감의 구렁텅이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잼을 만들었다던 무쇠 가마솥에 빠져 발부터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리넛은 펜을 쥐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성은 오히려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파비안이 읽어낼 격자 암호를 꼼꼼히 배열하며 답장을 써 내려갔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의뢰를 받아야겠음. 본격적으로 산 가문에 대해 조사해주길 바람.」

이 편지를 받은 파비안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정보를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편지를 봉인해 서랍 깊숙이 숨긴 리넛은 후,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 * *

리넛은 새벽에 눈을 뜬 후로 잠에 다시 들지 못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차라리 몸을 움직여 잡스러운 생각을 떨쳐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채비를 마치고 뒷문을 통해 식재료 외부창고로 갔다. 딜랴에게 외부창고를 소개받은 후, 리넛은 자신도 창고를 관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힘은 자신이 훨씬 낫다며 말리던 딜랴도 결국 리넛에게 백기를 들었다. 쓸모를 보여서 저택에서 얼른 자리를 잡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하녀의 간절함을 흉내냈다.

‘조만간 새 식재료가 들어온다고 하니 얼른 창고를 정리하자.’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할 것, 이번주까지는 두고 볼 수 있는 것, 저장기한이 넉넉한 것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분류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제법 지나 있었다.

"앗, 벌써 언니 혼자 아침 준비하고 있겠네. 얼른 들어가자."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가던 그 순간이었다.

깔깔깔, 꺄르륵.

낮고 은밀한 어둠이 깔린 밖에서 들려온 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였다. 순간 리넛의 척추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이번에야 말로 진짜 아이 유령이다!'

산 공작가문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라니. 리브가 연극 보고 눈물 흘리는 소리, 파비안이 가문 후계자 수업 듣는 소리처럼 현실성 없는 소리에 리넛은 반사적으로 주방에서 가져온 작은 과도를 품에 찔러 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저택 복도는 리넛이 가문에 들어온 뒤로 조금이나마 환해졌다. 저택에 들어온 첫날, 램프가 없어 벽을 더듬으며 복도를 걸어다녔다는 리넛의 말에 구스타프가 창고의 초를 꺼내줬다. 그녀는 저택을 종종걸음으로 다니며 열심히 촛대에 초를 꽂았다. 그런데 지금 소리가 난 쪽은 주인 각하나 고용인들이 이용할 일이 없어 여전히 어두운 복도였다.

어둠과 촛불이 일렁이는 복도 모퉁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민하게 다가가던 그때였다.

"왁!"

"으악!"

어둠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작은 형체에 리넛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품속의 칼을 쥐려던 손이 허무하게 허공을 갈랐다. 어룽어룽한 불빛에 드러난 것은, 동그란 눈에 통통한 뺨을 가진 진짜 어린아이였다.

"아하하! 어른이 아기처럼 넘어졌대요!"

"어허, 토르드! 아빠가 저택에서 함부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뒤에서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아빠 유령까지?"

"응?"

잘못 들었다는 듯이 남자가 쳐다봤다. 붙잡고 일어나라는 듯 남자가 손을 내밀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스스로 일어났다.

"아! 네가 혹시 '리노어'냐?"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진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리넛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 * *

남자는 유모의 조카, '닐스'였다. 아이는 그의 아들 '토르드'였다. 이들은 산 가문의 저주니 귀신이니 하는 유언비어를 전혀 믿지 않는 강인한 이들이었기에, 가끔 유모를 보기 위해 저택을 찾곤 했다. 지난번에는 리넛이 식재료를 구하러 외출했던 시간에 방문하는 바람에 마주치지 못했던 것이다. 유모가 미안한 듯 리넛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달랬다.

"많이 놀랐니? 미쳐 귀띔해주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보다 리노어, 네가 저택에 이 변화를 가져온 거지?"

며칠 새에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있었다. 유모에게 물어보니 새로 들어온 하녀가 있다고 했다.

"과연,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 다르군. 이 집은 좀 깨어나야 해요 이모. 저주라는 헛소리에 갇혀서 산 사람까지 무덤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잖아요? 이 기회에 아주 싹 다 뒤집어엎어야 해요!"

"닐스."

유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닐스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과거 공작 부처의 고통과 남매의 힘든 아기 시절을 지켜봤던 기억 탓에 변화에 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기억이 없는데다 거침없는 성격의 조카 닐스는 달랐다.

"리노어, 우리가 각하를 설득할 수 있을거야. 지금 함께 각하를 뵈러 가자!"

"네, 네?"

닐스의 억척스러운 이끌림에 반쯤 등 떠밀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사크의 앞이었다.

“각하, 이왕 용기 내신 김에 조금만 더 마음을 먹어 보세요. 요즘 몸도 많이 나아지셨다면서요? 이게 다 바뀌어보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닐스는 공작 각하 앞에서도 전혀 무람없었다. 이사크가 어릴 때부터 종종 봐왔기에 가끔 그들은 나이 차가 적은 삼촌과 조카 사이 같기도 했다.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담.’

리넛은 아직 공작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의뢰를 어떻게 비밀리에 해결해나가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어차피 데뷔탕트에 데뷔하려면 가문이 지금보다는 대문을 열어야할테고, 이런 내부의 변화는 불가피하겠지. 닐스 씨에게 묻어가면 오히려 자연스럽겠어.’

닐스가 일장연설을 끝내고 이제 네가 한마디 해보라는 듯 리넛을 일별했다. 그에 리넛이 바닥과 닐스 사이 그 어디쯤을 멍하니 바라보던 눈을 들어 이사크를 쳐다봤다. 시리게 푸른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볼에 살이 좀 붙었나? 눈 밑이 거뭇하던게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택에 들어온 날 이후로 처음 보는 이사크였다. 리넛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각하, 큰 걸음을 한 번에 내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가벼운 변화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 어두운 덧창의 판자 몇 개만 떼어내어 방안에 따스한 햇빛을 들이는 일이요.”

이사크는 하녀를 바라봤다. 닐스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죽 보고 있던 참이었다. 최근 늘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미열이 내려 머리가 한결 맑았다. 몸의 고통이 가라앉자 늘 날카롭게 서 있던 신경도 누그러져 있었다. 식탁에는 이전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리와 재료들이 눈에 띄었다. 입 안도 더 이상 헐지 않고 있던 상처들도 나아가자 입맛이 돌고 식욕이 생겼다. 몸이 좀 나아지니 주변을 둘러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 늘 오가던 복도가 이전보다 환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저 하녀가 들어온 후부터 시작됐다.

‘식재료를 직접 사러 시장을 오간다더니.’

딜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택에 받아주기만 하면 믿고 맡겨준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더니, 야무진 외모만큼이나 부지런하게 밥값을 하고있는 듯 했다. 이사크는 낮게 한숨을 쉬듯, 그러나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뗐다.

“허락하지. 내 집무실부터 해보고, 괜찮으면 저택의 창 전부를 작업하도록 해.”

“잘 생각하셨습니다 각하! 그럼 지금 제가 바로 도구를 가지고 와서…….”

반색하는 닐스의 말꼬리를 이사크가 잘라냈다.

“아니. 리노어 네가 하도록 해. 네 계획이니 네가 생각한 바가 있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각하.”

디아가 저택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달라져야 했다. 그러니까 디아를 위한 것이다. 굳이 닐스 대신 리노어가 자신의 집무실을 작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도구를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신난 닐스를 따라 나간 리넛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혼자 집무실을 찾았다. 이사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그녀가 창가로 다가갔다. 잠시 판자를 살핀 후 가죽 장갑을 턱 아귀로 당겨 끼며 철제 지렛대를 치켜들었다.

“잠, 잠깐. 그…… 막대로 한다고?”

“네? 네. 못이 제법 깊게 박혀 있어서 손으로는 떼어내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이사크는 슬쩍 리넛의 팔목을 쳐다봤다. 저런 팔로 직접 작업을 하겠다니. 아무리 그녀가 하녀라고는 해도, 사지 멀쩡한 성인 남성이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장면이었다.

“이리 줘.”

리넛에게 성큼 다가간 이사크가 손에 들린 지렛대를 가져왔다.

“각하? 직접 하시게요?”

“내 방이다. 판자 몇 개 뜯어내는 것쯤은 나도 할 수 있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작 각하가 직접 할 일은 아닌데요.’

리넛은 잠시 머뭇거리다 장갑을 벗어 건넸다.

‘하지만 각하의 경우에는 뭐든 몸을 움직여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중요

하지.'

창백한 뺨에 고집스러운 빛을 띤 이사크는 호기롭게 덧창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평생 칼과 펜만 쥐어봤지 거친 공구는 쥐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렛대 날을 어디에 밀어 넣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철끝을 나무에 헛디디며 툭툭 소리를 냈다. 이사크의 눈가에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다.

"아, 흠. 이렇게 되어있었군."

뒤에서 지켜보던 리넛이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힘을 줘 꾹 내리눌렀다. 동작 하나 하나가 어색하기 그지 없었다.

'흠, 이쯤에 넣고…….'

이사크가 체중을 실어 힘껏 지렛대를 내리누른 순간이었다. 낡은 판자가 아슬아슬하게 비틀어지며 고정되어 있던 녹슨 대못 하나가 팅! 하고 튕겨 나갔다. 동시에 손아귀의 힘 배분을 잘못한 이사크의 손이 거친 목재 겉면을 그대로 쓸어내렸다.

"윽."

낮은 신음과 함께 이사크가 지렛대를 떨어뜨리며 손을 감싸 쥐었다. 리넛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반사적으로 그의 앞으로 뛰어들었다.

"각하!"

급하게 이사크의 손을 잡아채 돌려보니, 희고 고운 손바닥 가장자리가 거친 나무 가시에 긁혀 붉은 피가 맺혀 있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으나 늘 아프던 사람이라 리넛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리넛은 제 손이 하녀라는 신분도 잊은 채, 이사크의 손을 감싸 쥐고 입으로 후후 불며 상처에 엉겨붙은 이물질들을 날려보냈다. 살결을 간지럽히는 리넛의 미온하고 따스한 실바람 같은 숨결이 이사크의 손바닥에 닿았다.

"잠시만요, 약을 가져올게요!"

리넛이 잡을 새도 없이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 쪽팔리게."

이사크가 손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만 질끔 감았다. 리넛이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평온한 기색을 만들어냈다.

약을 가져온 리넛은 속상한 얼굴로 손에 박힌 가시가 없는지 살폈다. 이사크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쥐고 있는 리넛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원래 가시에 찔리면 그런 것인지, 그녀가 붙잡고 있는 손바닥 전체가 화끈거렸다. 이사크는 귓가가 조금 붉어진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리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아픈 것은 나한테 별것 아니야.'

"……여기가 아프다."

생각과 달리 말이 반대로 튀어나갔다.

"당연히 아프시겠죠!"

리넛이 단호하게 받아치자 이사크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얌전히 손을 내어주었다. 가져온 약을 발라주고 천으로 손을 꼼꼼히 감싸주는 내내, 이사크의 시선은 리넛의 헤이즐넛 색 머리칼과 속눈썹, 코끝과 입술을 계속 덧그렸다. 치료가 끝날 즈음에는 리넛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늘 비난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한 그는, 이렇게 작게 산들바람처럼 불어오는 신뢰와 호감만으로도 한없이 열리려는 마음의 문을 붙잡았다. 하지만 손을 다친 탓인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문이 자꾸만 덜컹거렸다.

치료를 끝낸 리넛은 판자를 쉽게 떼어냈다. 백 년 묵은 먼지를 뒤집어쓴 덧창의 틈새로 날카로운 철 끝을 끼워놓고, 노루발망치로 지렛대의 등덜미를 힘차게 내리치자, 콰직! 하는 비명과 함께 단단히 맞물려 있던 낡은 판자가 오랜 침묵을 깨고 뜯겨 나갔다. 이날의 작은 소동과 소음을 기점으로, 저택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판자들이 마침내 하나씩 철거되기 시작했다.

* * *

"저기 벽면에 걸린 양가죽 휘장들은 이미 너무 빛바랬으니 다 떼어내야 해요. 날이 따뜻해질 때 즈음에는 가볍고 밝은 리넨 천을 새로 재단해 걸면 저택이 한층 더 생기 있어 보일 거예요."

육중한 저택의 덧창을 단단히 막고 있던 버팀목과 무거운 판자들이 하나둘 걷어차이자, 싸늘한 겨울 공기와 함께 오랜 세월 차단되어 있던 눈부신 햇빛이 세차게 쏟아져 들어왔다. 갑작스레 밀려든 한기에 실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방마다 비치된 벽난로에 장작을 몇 가치씩 더 밀어 넣어야 했고, 빛이 닿지 않던 구석구석마다 수십 년 묵은 먼지 더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대대적인 비질이 필요해졌다. 필요한 일손이 배로 늘어나 딜랴와 구스타프까지 합세해야했지만 그 모든 아쉬움과 불편함은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훨씬 사람 사는 곳 같아졌네.'

햇빛과 바람이 들치는 것만으로도 음산하던 저택이 거짓말처럼 환하게 깨어났기 때문이다. 방안을 채우는 신선한 겨울 공기는 그 어떤 사치스러운 향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해방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던 리넛이 펄럭이는 천 자락을 매만지며 야무지게 입

을 열었다. 닐스가 창고에서 찾아낸 것들을 두고 고용인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벨벳 태피스트리와 다마스크 식탁보들은 습기로 얼룩지거나 이미 가망 없이 곰팡이가 핀 것들만 제외하고, 전부 잿물에 푹 삶아 깨끗하게 빨아 쓰면 되겠어요. 햇볕에 바짝 말리면 쓸만한 것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식기류는 광택이 죽고 거뭇하게 녹이 슬긴 했지만, 식초를 섞은 부드러운 모래로 정성껏 문질러 닦아내면 예전의 빛을 금방 되찾을 테고요.”

“시간이 걸리긴 해도 그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닐스는 토르드를 아예 유모에게 맡겨두고 저택 대 단장에 가장 열심이었다. 예전부터 저택을 보며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뜯어고치고 손을 보겠다고 작정을 한 눈치였다. 그 소원을 풀기 위해 이사크로부터 ‘저택 보수와 수리를 위한 비용 일체 지불’을 당당히 약속 받아내기도 했다.

‘몰락해 간다지만 공작 가문에는 아직 축적된 재물이 제법 있는 걸까? 아껴야 할 돈을 펑펑 쓰고 있는건 아냐?’

평민인 그녀로서는 유서 깊은, 그러나 3대째 은닉 생활 중인 공작 가문의 재산을 비슷하게라도 추측하기 어려웠다.

“자자, 여기 샌드위치 하나씩 먹으면서 하자고.”

“감사해요.”

딜랴가 들고 있던 바구니 천을 걷어내고 모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하나씩을 나눠줬다. 그녀 역시 저택에 일손을 돕고 있었고, 각자 맡은 청소와 세탁을 하다 보면 다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애매했다. 그 덕에 요즘 식사는 딜랴가 만든 샌드위치로 해결하고 있었다. 바로 먹을 생각이 없는듯 닐스가 샌드위치를 던졌다 받길 반복하며 리넛에게 물었다.

“그래서 리노어, 생각해냈다는 해결책이 뭐야?”

바쁘긴 해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던 공작가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창고에 쌓여 있던 내부 자재들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저택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외부에서 목재나 석재 같은 본격적인 수리 자재들을 들여온 뒤 무너진 벽을 보강하고 마당을 갈아엎어야 했다. 관절이 쑤시는 나이의 중장년층 셋과 젊은이 두 명 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젠가르트 편력단을 부르면 어떨까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고 우물거리던 리넛이 입안에 든 것을 꿀꺽 삼키고선, 빙긋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지금 크로네에 와있나?”

“네. 어제 시장에 갔다가 편력단이 동남부와 서부를 찍고 국경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크론발트를 들렸다는 걸 들었어요.”

‘신문을 바로 사서 읽을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알았겠지만.’

리넛은 의뢰소를 운영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소식지를 사들여 읽는 버릇을 두었다. 하지만 공작가에서는 신문을 받아올 하인도 없었고, 리넛이 매일 외출해 사오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제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뒤늦은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게 누구지?”

구스타프가 고개를 갸웃했다. 유모와 딜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이젠가르트 편력단은 크론발트 국경 너머, 베르크무트 산악 지대 출신의 편력 직인단이다. 장인 수련을 마친 석공과 목수들이 정식 정착지를 찾기 전까지 각지를 떠돌며 돈을 벌었다. 리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우리 크론발트 제국 사람은 아니고, 아이젠가르트 연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신성한 노동과 그에 합당한 대가만을 믿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보수만 확실하다면 그보다 성실한 기술자들은 없을 거예요.”

주워들은 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음산한 미신이나 산 가문의 저주 따위는 호탕하게 비웃어넘길 것 같았다. 말할수록 머릿속에서 뚜렷하게 힘을 얻어가는 자신의 계획에 리넛은 눈을 빛내며 휙 뒤를 돌아봤다. 이사크가 문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고용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저택 보수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느닷없이 찾아온 뒤부터 저렇게 서서 말없이 듣고 있었다. 대답을 기대하는 리넛의 눈빛에 이사크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구니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으잉? 각하. 각하 식사는 조금 이따 소연회실에 차려줄 거야.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

“됐어. 나랑 디아 식사도 같이 샌드위치로 해결할테니 귀찮게 따로 요리 하지마.”

정말 괜찮다는 듯 샌드위치의 포장을 벗기는 이사크에게 리넛이 물었다.

“각하, 편력단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택에 외부인들 들이는 일이는 일이었다. 하나도 아닌 여럿,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이었다. 이사크의 결심이 필요했다.

"우리 왕국과 연방 사이에 이런 인력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군."

가문이 제법 긴 시간 세상과 교류를 끊었던 탓에 잘 알지 못했으리라. 이사크는 조금 씁쓸한 기분에 가라앉으려다,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리넛과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가 새싹의 새순같다는 생각에 방금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까먹었다. 한없이 복잡해지려는 생각이 허리를 끊긴 듯 싹둑 잘려 나갔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처지 아닌가?"

이사크의 허락은 자신이 들어도 시시하게 떨어졌다. 아무렇지 않게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물었다.

* * *

리넛은 그길로 곧바로 평민지구로 나가 편력단의 십장이라는 브로르를 수소문해 만났다. 부글부글한 턱수염을 호탕하게 쓸어내린 그는 제안을 듣자마자 껄껄 웃었다.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드는 공작가라고? 상관없소! 겨울이라 비수기라 일감이 없어 손가락만 빨던 차인데 아주 반가운 소리요!"

성격만큼이나 쉽고 유쾌한 포섭이었다.

그날 이후, 회문 저택은 사상 유례없는 활기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거구들이 저택으로 들어와 옛 고용인들이 쓰던 버려진 별채를 순식간에 뜯어고쳐 자신들의 임시 숙소로 삼았다. 공작가는 그들에게 안마당과 외부 벽 보수를 요청했다. 그 외에도 편력단은 저택 이곳저곳을 탐색한 후 손 봐야할 곳을 일러주었고, 이사크는 망설임 없이 모두 수락했다.

그들이 합류하면서 덩달아 눈에 띄게 변한 것 중 하나는 저택의 식탁이었다. 편력단이 자신들의 방대한 식사거리를 시장에서 떼어올 때마다, 산 가문의 식재료까지 같이 사들여 온 것이다. 리넛이 넌지시 부탁한 덕이었다. 덕분에 공작가 사람들은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매일같이 저택 안으로 넉넉히 들여왔고, 주인뿐만 아니라 고용인들의 식탁까지도 비로소 공작가다운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일손이 늘어나면서 다시 주방으로 복귀한 딜랴는 풍부한 식재료를 보고 소녀처럼 설레하며 연신 실력을 뽐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진 않았다. 드물게 왕립 도서관을 찾은 귀족들이나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회문 저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됐다. 그들은 가문비나무 거리를 오가는 마차와 청동 대문 너머의 풍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미개한 외국인들이 저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군."

“어찌 보면 어울리는 조합이야. 저들끼리 모여있으니 우린 피해가기 더 편하지 않은가?”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눈치챈 브로르와 편력단원들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기술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보란 듯이 정원의 깨진 대리석을 망치로 부수며 호기롭게 소리쳤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자연과 우리 스스로뿐이야. 척박한 바위산과 혹독한 베르크무트에서 자라나면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인간의 감정은 바위에 낀 이끼만도 못해!”

사람들이 던지는 창 같은 말들은 대부분 공작가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휘발되었으나, 한 곳만은 달랐다.

가문비나무 거리를 밤낮으로 두드리던 망치 소리와 호탕한 노동 노래가 왕도 크로네에서 가장 오만하고 견고한 벽을 가진 오딜 후작가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잿빛 대리석과 짙은 색의 가구로 장식된 후작가의 실내는 숨이 막힐 만큼 정제된 위압감을 풍겼다. 후작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문비나무 거리를 감시하던 정보원이 보내온 짤막한 서신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젠가르트 석공과 목수들이 저택에 상주하며 외벽을 허물고 내부를 죄다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공작이 그 자들에게 주머니를 열었다는군요.”

곁에 서 있던 가문의 수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후작의 시선은 서류 한구석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일정하게 톡톡 두드렸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을까.”

후작의 목소리에 서늘한 의구심이 번졌다. 산 가문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 눅눅하고 폐쇄적인 저택 안에서 스스로 말라 죽어 가야 했다. 그것이 그들이 정해둔 완벽한 수순이었다. 가문의 주인들이 예외 없이 뼈가 녹고 쇠약해져 가던 것은, 왕도의 귀족들이 비웃는 ‘음산한 미신’이나 ‘가문의 저주’ 따위가 아님을 후작가는 알고 있었다.

이번 대 공작 역시 조만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터였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의 행보였다.

“구스타프 영감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아니면 공작이 빙글빙글 돌다 못해 아예 정신이 나간 건가?”

“최근에는 산 가문에 외부 우편이 도착하기도 했다 합니다. 우편을 배달한 적이 있다는 전령이 나타났습니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면 겨우 쥐고 있던 것도 잃고 마는 법이지. 가문비나무 거리에 사람을 붙여라.”

철저하게 고립된 가문이 저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우편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나마 남은 재산이라도 보전해야 얼마 없는 고용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병사하기 전에 굶어 죽는 일이라도 없을 텐데.

공작가가 숨죽인 채로 살아간 지 오래되어 감시를 방심하며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었다.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했다.

“어디까지 알아내면 되겠습니까?”

“편력단이 알아서 저택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왔다갔다 하던 사람도 있었겠지. 공작가 사람 중 누가 그 문을 주로 들락날락 거리는지 알아봐.”

쓸모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 고용인이라면 쳐내면 되고, 공작 그 자신이라면 무릎을 끊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된다. 지금 그들이 두드려 깨고 있는 것이 금이 간 마당 대리석이 아니라, 제 가문이 겨우 버티고 선 받침대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후작의 눈이 어둡게 빛났다. 가문비나무 거리의 망치 소리가 활기를 더해갈수록, 오딜 가문의 어둠 속에서 산 가문을 향해 뻗어가는 촉수 역시 한층 더 날카롭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 *

“너희가 온 곳은 바위산이라며. 어떻게 생긴 이끼가 자라?”

“응? 아가씨. 이끼는 다 같은 이끼 아냐?”

“그럼 혹시 바위 사이에 핀 꽃을 본 적은 없어?”

“아! 그거라면 본 적 있지.”

리넛은 의외의 조합을 흘끗 쳐다봤다. 저택 안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던 디아가 온종일 편력단 옆을 지켰다. 사교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조잘조잘 나누는 대화가 제법 매끄러웠다. 대체로 이방인과 이국이 궁금한 디아 주도였다. 리넛 역시 그 옆에서 체임버메이드로서 그녀를 보좌하며 중간중간 편력단의 업무에 의견을 내거나 저택 안의 일을 도왔다. 닐스는 전체적인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았는데, 허락받은 예산 내에서 브로브와 협상하는 수완이 꽤 좋았다. 딜랴는 식재료에 보답하듯 솜씨를 부려 맛있는 간식을 내왔고, 가끔은 구스타프가 예산 서류들 사이에서 벗어나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흥이 나는 노동요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눈에 보인다면, 수십 년간 고여 있던 저택의 음산함이 그 소란스러움에 쩡, 하고 깨어지는 것만 같았다. 유령이 진짜 살았다 한들, 이 무지막지한 소음과 활기 앞에서는 귀를 막고 도망쳤을 것이 분명했다.

이사크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새로운 치료법을 쓰거나 특별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다. 이전과 바뀐 것은 오직 음식과 거주 환경뿐이었으나, 오래 앓던 병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그는 덧창의 판자를 떼어낸 뒤로 단 한 번도 집무실의 커튼을 친 적이 없었다. 뿐만아니라 낮에는 늘 창을 열어두었다.

"각하. 그러다 감기에 걸린다니까요."

"유모. 방 안에 있는데도 햇빛과 바람이 닿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워. 그렇지 않나?"

앞마당을 공사하는 떠들썩한 사람 소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업무를 보고 있노라면, 비로소 자신과 저택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감기를 걱정하는 유모의 잔소리가 드물게 통하지 않는 나날이었다. 사실 가끔 피로감이 느껴지고 미열이 돋기도 했으나, 해열제를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되는 수준이었다. 한 가문이 아주 깊은 잠에서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 * *

리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잘 도착했음. 묘목도 구했음. 조만간 전령 편으로 보내겠음.」

암호를 해독해 내려가던 리넛이 좋은 소식임을 확인하고 눈이 번쩍 떴다. 그녀는 디아의 방문 앞에 서서 작게 노크했다.

"아가씨, 침실을 봐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요즘 디아는 아침 식사 후 정리를 위해 방을 찾아가도 만날 수 있었다. 단원들이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을 맞춰 나갔기 때문이다. 방안에 들어서자 디아가 화분을 들여다보며 물을 주고 이파리를 닦아주고 있었다. 리넛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업무 중 하나였다. 그 모습을 지나쳐 구겨진 침대 시트를 펴던 리넛이 별 일 아닌 듯 운을 뗐다.
"참, 아가씨. 쉬르크비크에서 소식이 왔어요. 로즈힙 묘목을 구했대요."

"뭐?"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등 뒤로 느껴졌다. 디아의 은은한 미소를 기대하며 리넛이 뒤를 돌았다. 디아의 흰 뺨이 상기되어 있었다.

"정말? 정말로 구했대?"

"어……, 네. 저택으로 배달될 거예요."

"고마워, 리노어! 정말 고마워."

디아가 리넛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생각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에 리넛의 뺨도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남매가 예쁘긴 정말 예쁘구나.'

이사크가 처연하고 애달픈 느낌이라면, 디아는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이었다. 계속 뚫어지게 구경하게 되는 미인임은 같았다.

"리노어, 네게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아가씨."

"내 방에 있는 옷장도 이제 네가 관리해주었으면 해."

"옷장을요?"

리넛이 놀라 되물었다. 여주인의 의복을 관리하는 것 역시 체임버메이드의 역할이었지만 이제껏 디아가 시키지 않아 손을 대지 않았다. 외출할 일도, 예쁘게 단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디아는 이사크의 병색이 가시고, 저택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로즈힙 묘목을 구했다는 리넛의 말에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던 빗장을 열었다.

자신 역시 이 고여 있는 물 같은 삶에서 벗어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장 화려한 사교계에 데뷔탕트를 치르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늘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오라버니를 저 역시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피어올랐다.

디아는 휑하게 비어 있는 자신의 드레스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좀 사뒀으면 해."

'디아, 다른 영애들처럼 리본이나 레이스 같은 것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봐. 겪어보고 너에게 맞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면 돼. 공작 영애로 태어나서 주어진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

타까워 하는 말이야.'

이사크가 언젠가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면 오라버니가 좋아서 더 힘이 날지도.'

"그렇게 해요, 아가씨."

리넛은 살짝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디아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외출 준비를 위해 디아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 옷을 맞추려면, 가지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많지 않은 옷이 걸린 옷장을 뒤적이던 리넛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멈추었다. 그곳에는 다른 옷들과는 느낌이 다른, 초록색 드레스 한 벌이 걸려 있었다. 디아가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단 곳곳이 바랬지만, 깃과 소매에 달린 장식은 눈이 멀 만큼 섬세하고 귀한 것들이었다.

'아가씨가 입기에는 무늬나 느낌이… 원숙한데.'

"아, 리노어. 그 옷은 어머니 옷이야."

"그렇군요. 관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말 아름답네요. 아주 귀한 장식을 달아둔 걸 보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드레스였겠어요."

리넛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드레스의 자락을 만졌다. 이 드레스는 입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끌어다 주었을 것이다.

'선대 공작부인의 유품이라니, 나중에 옷장에서 옮겨 제대로 보관을 해야겠다.'

리넛은 드레스를 다시 집어 넣으며 옷장 정리를 마쳤다.

"그럼 아가씨, 채비를 마치는 대로 나가볼까요?"

리넛의 활기찬 목소리에 디아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산 가문의 갇힌 아가씨가 마침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 * *

왕도 크로네의 귀족 영애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마담 솔베이그 의상실'은 사교계의 욕망이 가장 화려하게 직조되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진 양초 향과 최고급 다마

스크 실크의 빳빳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위를 살피니 길드 마스터가 상류층 부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리넛은 긴장한 디아를 이끌고 의상실 한구석, 부드러운 양모 카펫이 깔린 대기석으로 향했다. 디아는 낯선 조명과 하인들의 시선이 익숙하지 않은 듯, 허리춤에 매달린 은제 샤틀랭의 체인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잠시 여기 앉아 계세요 아가씨. 처음 옷을 맞추시는 거니, 기본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재단사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올게요."

"응, 알겠어."

사실 일반적인 명문가 영애들의 경우라면 의상실에 들어서는 순간, 길드 마스터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상석으로 안내했을 것이다. 가문의 문장이 정교하게 새겨진 마차의 마크,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맞춰 입은 리버리의 색상과 은제 배지가 그들의 지위와 재력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디아가 입고 있는 옷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유행을 아예 타지 않는 평범한 드레스였다. 급한대로 가진 옷 중에 제일 외출복다운 것을 골라 레이스를 뜯어내고 심하게 주름진 장식을 다듬어 정리를 하긴 했으나, 계절마다 새로운 비단을 지어 입는 왕도 크로네 귀족 영애들의 눈을 속일 순 없었다.

하물며 리넛 역시 자신이 어느 가문의 고용인인지 밝힐 그 어떤 표식도 달고 있지 않았다. 만약 '산 가문'의 인장을 당당히 드러내놓았다면, 이곳까지 오는 마차를 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해 아직도 저택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터였다. 마담 솔베이그 의상실의 거만한 도제들이 그들을 향해 은근한 무시가 섞인 냉담한 시선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리넛은 디아의 허락이 떨어지자 곧장 의상실 안쪽의 작업실로 향했다. 초를 켠 마네킹들 사이로, 원단을 가위질하고 있는 수석 재단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주변에서 실을 꿰는 도제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노력하며 리넛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랜만이에요, 마이스터."

갑작스러운 부름에 돌아선 수석 재단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에이피나?"

기민한 가위질과 빠릿빠릿한 손놀림 덕에 정식 직인으로 삼고 싶어 했던 탐나는 인재였다. 손기술이 조금 좋은가 했더니, 뛰어난 눈썰미와 현란한 말솜씨로 하프룬 백작 영애를 설득해 값비싼 빛맞이절 축제용 드레스를 주문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데리고 있으면 장차 기술 좋고 수완 좋은 재단사가 될 재목이었다.

"다시 일할 마음이 든 거야?"

쭉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만뒀던 아이다. 혹시 그 사정이 해결되어 의상실로 다시 돌아온 건가 싶어 기대하며 물었다.

"아니요.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지금은 에이피나가 아니라 '리노어'라는 이름으로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눈에 띄게 수석 재단사의 얼굴에서 흥미가 식었다. 리넛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모시는 아가씨를 위한 최고의 드레스를 짓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왔답니다. 선생님의 정교한 재단법은 누구도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석 재단사는 의심스럽게 리넛을 흘겨보았다. 굳이 의상실 입구에서 길드 마스터를 만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아가씨께서 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당연하고, 하나 더 약속해. 내가 이걸 수락하면 내 도제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그럼요. 약속할게요."

'약속은 공짜. 약속은 공짜.' 리넛은 어렵지 않은 부탁을 냉큼 수락했다. 고민 끝에 다시 거절하더라도 별 수 없겠지.

"아가씨께서 대기실에 기다리고 계세요."

리넛은 수석 재단사를 디아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어머……."

수석 재단사가 입을 가리며 작게 감탄했다. 길드 마스터 몰래 챙길 수 있는 뒷돈도 매력적이었지만, 대기석에 앉아 있는 영애를 본 순간 재단사로서의 영혼이 요동쳤다. 크로네에선 보기 어려운 북부 빙하만의 만년설처럼 투명하고 처연한 아름다움. 볕을 보지 못해 창백한 디아의 피부는, 상판 위에 비단 자락을 펼치는 재단사라면 누구라도 당장 제 은가위를 들고 싶게 만드는 매혹적인 뮤즈의 그것이었다.

"아가씨, 제 장인 직인을 걸고 사교계에서 가장 눈부신 실루엣을 만들어 드릴게요."

은밀한 계약이 성사되고, 본격적인 치수 측정이 시작되었다. 디아는 처음에는 낯선 과정들에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하얀 광목천이나 줄자를 대는 것, 코르셋을 조이는 등 몸을 닿는 일은

리넛이 해주었기에 긴장을 풀었다. 수석 재단사가 가져온,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물결치는 피외르뒤 풍의 최고급 브로케이드 천이 어깨를 감쌌다. 흰 피부와 은발로 인해 자칫 무채색처럼 보이던 디아가 화사하게 살아났다. 그것만으로도 당당하고 기품 있는 공작 아가씨로 보였다.

'모시는 주인이 멋있고 아름다우면 이만한 고용인들의 자부심도 없구나.'

리넛은 경직된 자세로 오래 서있던 디아의 팔을 살짝 주물러주며 말했다.

"가봉 틀을 잡았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아가씨. 첫 외출에 향유 냄새를 너무 오래 맡으셔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랜만의 외출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걱정한 것도 있었다. 리넛은 수석 재단사와 함께 다음 방문일을 정하고 디아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드레스의 가슴 장식에 달아줄 액세서리와 귀걸이를 보러 보석 상회로 향했다. 크로네 귀족들은 꽃장식을 달 수 없는 대신 복식의 화려함을 정교한 세공품으로 증명하곤 했다. 리넛은 질 좋은 보석을 고르는 안목은 없었지만, 특유의 예리한 눈썰미로 디아의 은발과 창백한 피부에 어울리는 보석들을 골라냈다. 과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대신 깊고 은은한 바다의 청명함을 담은 사파이어와 정교하게 깎인 에메랄드 귀걸이는 디아의 귓가로 가자 그 가치가 훨씬 높아보였다.

"아가씨의 고결한 분위기에는 너무 번쩍이는 것보다, 이 차분하고 깊은 광택이 훨씬 잘 어울려요."

"……네가 골라주는 것은 전부 마음에 들어, 리넛."

디아는 보석이 박힌 은제 거울을 보며, 칭찬이 수줍은듯 웃었다.

액세서리 구매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왕도 중심가에 위치한 유서 깊은 찻집에 자리를 잡았다.

"아가씨. 귀족의 예법이라는 지루한 양피지 교본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더 쉽고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글보다 눈으로 배우는 게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저기 레이스 부채를 쥐고 있는 영애들을 보세요. 홍차 잔을 들어 올릴 때 소서를 왼손으로 받치는 각도, 가볍게 웃을 때 자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타이밍……. 그냥 저들이 하는 몸짓을 그대로 훔쳐서 아가씨의 것으로 만드시면 된답니다."

디아가 주변을 슬쩍 돌아보자 리넛의 말마따나 영애들이 다 비슷한 동작으로 차를 마시거나 웃고 있었다. '내가 이만큼 좋은 선생에게 잘 배웠어요'를 저마다 뽐내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가문에 붙은 수많은 수식어에 '도둑질을 하는' 정도 하나 더 붙는 것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

"아가씨이……."

디아가 던진 농담에 리넛이 퍽 난처한 소리를 내자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디아는 리넛의 말대로 주변 영애들의 은밀한 대화와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며 찻잔을 쥐어보았다. 특유의 정적이고 고요한 선이 더해져, 오히려 주변의 어설픈 영애들보다 훨씬 더 가문 깊은 지체 높은 아가씨다운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렇게 둘의 외출은 종종 성사되었다. 어느 날은 양산이나 장갑을 샀고, 어느 날은 촛불이 켜진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며 까르르 웃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자매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저택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디아에게, 마차를 타고 성벽 밖으로 나오는 이 외출은 큰 모험이자 여정이었다. 처음에는 마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나 지척을 지나는 말발굽 소리에도 깜짝 놀라 리넛의 뒤로 숨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새 다음 외출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식사 후 '영애들에게 훔친대로' 차를 우아하게 마실 때는 지난 기억에 킥킥 웃다가 이사크의 의아함을 사기도 했다. 해질녘 저택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지평선을 보고, 왕립 도서관 앞에서 내려 리넛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순간이 모두 좋았다. 디아는 비로소 고개를 당당히 든 채 세상의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동안 편력단의 손끝에서 산 가문의 오래된 외벽은 매일 조금씩 허물을 벗었다. 길게 자라 저택을 목 졸라매던 담쟁이덩굴이 낫끝에 잘려 나갔다. 다 쳐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리넛의 말에 남겨둔 덩굴은 흰 외벽에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패턴처럼 보였다. 금이 간 돌 틈새에는 새로운 회반죽이 채워졌다. 과거 가문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문에 흰 칠을 하는 날에는 공작가 고용인들이 한 명 씩 나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각자 다른 기억을 떠올리는 그들을 리넛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 * *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뢰소 방문 필요.」

'무슨 일일까.'

리넛이 짧은 한숨을 내쉬며 파비안의 편지를 접었다. 마음 같아서는 혼자 외출을 다녀오고 싶었지만, 오늘은 의상실의 수석 재단사와 약속한 가봉일이자, 디아와 새로운 찻집을 가기로 한

당일이었다. 리넛은 수런거리는 속마음을 숨기며 디아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의상실에 도착하자 수석 재단사가 가위와 하얀 광목천을 든 도제들을 거느리고 디아를 맞이했다. 어떻게 설명을 해두었는지, 길드마스터는 이쪽을 힐끗 한 번 쳐다보고 관심을 거두었다. 핀을 꽂아가며 상체의 품과 스커트의 주름을 조율하는 가봉 작업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거울 앞에 선 디아의 몸짓을 꼼꼼히 체크한 뒤, 리넛은 디아를 이끌고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따뜻하게 우려낸 카모마일 차와 가벼운 티푸드가 식탁에 차려진 것을 확인한 리넛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가씨, 잠시 이곳에서 차를 드시며 숨을 돌리고 계셔요. 나온 김에 고향 쉬르크비크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할 우편물만 급히 부치고 오겠습니다. 전령의 마차가 곧 떠날 시간이라 서둘러야 하거든요.”

핑계를 위해 그녀는 저택을 나올 때부터 스크립을 어깨에 매고 나왔다. 내부는 텅 비어있었다.

“응, 천천히 다녀와, 리노어. 여기 있을게.”

디아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리넛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골목 너머 뒷길에 위치한 의뢰소로 달렸다. 두꺼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자 위에 크로네 주변의 지형도와 낡은 양피지 문서들을 잔뜩 펼쳐져 있었다. 문서를 이렇게 두고 자리를 비울 사람은 없기에 바로 방을 둘러보니 파비안과 눈이 마주쳤다.

“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파비안? 오늘 아침에 네 편지를 받았어.”

“우선 앉아서 숨을 골라요.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헐떡거리는 리넛을 진정시킨 파비안이 미지근한 물을 따라 건넸다.

“만나기는 어려우니 쪽지를 적어두고 서랍에 넣어두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린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니 좋아요.

살짝 웃는 얼굴을 보니 걱정이 조금 가시는 기분을 느끼며 잔을 받아 마셨다.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한 과거 의뢰를 기억해냈나요?”

“응.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전해준 후일담도 떠올랐어.”

파비안이 탁자 위의 문서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소문 속에 등장했던 오두막을, 사람을 시켜 찾아봤어요.”

“어땠어?”

“유감이지만 산 공작가의 소유가 맞는 것 같아요. 가문 휘장이 걸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오랜 세월 방치되다 보니 이끼와 마른 덩굴로 뒤덮여 음산해 보일 뿐이에요. 제단이라든지, 저주받은 주술 흔적도 전혀 없었구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거긴…….”

“예전에 가문 사람들이 다 함께 야생 베리를 따다 잼을 만들던 작업실일 거야.”

리넛이 파비안의 말을 가로채며 씁쓸하게 읊조렸다. 어떻게 그걸 아냐는 듯 파비안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리넛은 저택의 유모와 딜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다.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산 가문이, 자신들의 공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한 번 더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죄책감 때문에 떨리는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파비안이 양피지 모서리를 짚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공작가의 오늘날 모습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악재와 불운이 겹친 것이 아니라고?’

리넛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도저히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가 없길래, 공작가의 몰락 전후로 귀족계의 변화를 함께 추적해봤거든요. 3대 전 레오폴트 산 공작이 갑작스레 병을 얻고 자리에서 물러난 순간부터를 시작으로 친다면, 지금껏 누가 제일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알아요?”

“누군데?”

“오딜 후작가요.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공작가를 추적하는 곳곳에서 후작가의 이름과 계속 마주쳐요.”

“오딜…….”

“그래서 당분간은 공작가와 후작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린도 가문의 계보나 역사에 관한 서류에 접근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슬슬 서재에 접근해보려고 했어. 나도 찾게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유할게.”

"좋아요. 그리고 린."

"응?"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나 오딜 후작가와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일은 피하세요. 정말 그들이 이번 의뢰의 배후가 맞다면 우리는 크론발트 왕국에서 가장 강한 귀족가 중 하나를 적으로 두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알겠어. 조심할게."

"린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바로 이 의뢰에서 손 떼기로 해요."

"그럴게."

리넛은 저를 생각해주는 파비안의 걱정이 고마웠다. 그와 별개로 마음 한켠은 싸늘했다. 해결하고자 마음 먹은 의뢰에서 생각지 못한 큰 적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참, 파비안. 영애의 데뷔탕트를 슬슬 준비하려면 크로네 사교계의 생리를 뼛속까지 아는 진짜 시녀나 예절 선생, 그리고 춤 선생이 필요해. 나로는 한계가 있어서 말이야."

"그렇겠네요. 저도 믿을 만한 은퇴한 시녀나 사교계 사정에 밝은 인물이 있는지 수소문 해볼게요."

짧은 시간 유죄를 확정받은 리넛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터덜터덜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나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생각을 이을 수 없었다. 창가 자리, 디아가 앉아 있어야 할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찻잔과 주간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

리넛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설마 파비안이 말한 오딜 후작가의 사람들이 디아를 알아보고 사람을 푼 것일까? 차림새는 허름해도 아름답고 고운 아가씨는 나쁜 의미로 가치가 높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납치라도 당했다면? 이제 막 세상 구경을 시작한 아가씨는 남들의 호의와 계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 했을 것이다.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했다. 리넛은 미친 사람처럼 찻집을 뛰쳐나와 번화가의 인파 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화려한 마차 바퀴 소리마저 디아를 싣고 떠나는 납치범의 행렬처럼 들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골목과 대로를 미친 듯이 헤매던 리넛의 시선이 문득, 한 귀퉁이에 자리한 거대한 종묘상회 차양 아래에 멈춰 섰다. 흙먼지와 푸릇한 잎사귀들이 뒤엉킨 그 번잡한 가게 앞, 가냘픈

실루엣이 보였다. 디아였다.

“아가씨!”

리넛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디아의 어깨를 붙잡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디아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리노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픈 거야?”

“아니, 아픈 건……! 대체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제가 잠시만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원망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제야 디아는 자신이 리넛을 뛰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리노어. 그냥 찻집 창밖을 보는데, 건너편 상회 매대에 낯익은 잎사귀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걸어 나왔어.”

“건너편이요? 아…….”

리넛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디아와 들어갔던 찻집이었다. 정처 없이 뛰다보니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있었다.

“그보다 내가 이곳에 다녀오겠다고 쪽지를 남겨두고 나왔는데, 못 봤나보구나.”

찻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빈자리를 보고 바로 돌아나온 리넛이었다. 평소 같았다면 혹시 남긴 쪽지는 없는지, 찻집 주인에게 영애가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보며 찬찬히 상황을 살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전에 파비안에게 들은 내용이 내용인지라, 그녀답지 않게 비이성적으로 굴었다. 스스로에게 한심함을 느끼고 있는데 디아가 품에 안고있던 흙 묻은 화분을 들어보였다. 가시 돋친 줄기 끝에 아직 피지 않은 작은 봉오리가 맺힌 묘목이었다.

“라벤더 묘목이야. 로즈마리와 함께 사가려고.”

“하지만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침실에 화분을 둘 곳이 없는 것은 아시죠?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아가씨는 화분과 함께 침대에 누우셔야 할지도 몰라요.”

리넛의 합당한 지적에 잠시 망설이던 디아는, 이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건네듯 나지막하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저택 안쪽에 정원이 있어. 오라버니도 잘 모르는 나만의 온실이야.”

“네?”

리넛의 눈이 커졌다. 산 가문의 본관은 이제 구석구석을 파악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온 방을 뒤집어 엎으며 단장을 해댄 덕택이다. 하지만 그 외 공간은 잘 알지 못했기에, 디아의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유리 천장으로 빛이 아주 잘 들거든. 거기라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도 살 수 있을 거야."

디아는 품에 안은 묘목을 감싸 안았다.

'각하는 비밀 외출이라도 하지, 아가씨는 단순히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가씨는 저택 내부에서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아가씨의 하녀로서, 그 세계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 * *

저택으로 돌아와 구스타프에게 의상실 영수증을 건넸다. 잠시간 영수증을 바라보던 그가 각하의 집무실로 가보라는 얘기를 했다.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일까? 하지만 구색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로 맞췄는데…….'

"혹시 각하께서 그간의 영수증을 보고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최대한 흥정을 해서 덤탱이를 쓰지 않고 구입한 것들이에요."

변명하는 리넛에게 구스타프가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듯 의아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아닐 거다. 그리고 영애님 앞으로 배정된 예산은 충분해. 오히려 그간 거의 쓰지 않은 탓에 넉넉한 수준이지."

'다행이다. 아직 재산은 괜찮은가봐.'

구스타프에게 인사하고 이사크의 집무실로 가서 노크했다.

"각하, 부르셨다구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던 이사크가 고개를 들어 리넛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요즘 디아와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동생에 대해 보고 받고 싶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리넛이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가씨께서는 이제 한결 마음을 열고 외출을 즐기시는 편입니다. 어제는 시내의 큰 상회에 들러 직물도 구경하시고, 새로 맞춘 옷과 어울리는 작은 장신구 몇 가지를 고르며 무척 즐거워하셨어요."

이사크의 만년설처럼 차갑던 눈매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괴혈병의 고통이 가라앉은 그의 안색은 전보다 확연히 호전되어 있었고, 그 덕에 가시 돋친 냉소 대신 나른하고 온유한 본연의 분위기가 은은하게 맴돌았다.

"다행이군."

이사크가 깃펜을 내려놓으며 손깍지를 꼈다.

"디아는 어려서부터 저택에서만 지내다보니 또래의 다른 영애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평범한 기쁨들을 제때 맛보지 못했지. 리노어, 네가 곁에서 아이를 잘 이끌어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내 동생을 잘 부탁하마."

동생을 향한 지극한 애정과 신뢰가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리넛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더라면…….'

아찔한 상상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입술 안쪽을 깨문 리넛은 서둘러 감정을 추스르고 믿음직한 하녀처럼 답했다.

"아가씨께서는 연극 한 편을 보시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깊이가 깊으세요. 조금 늦었더라도, 하나를 해보시면 열을 깨달으시는 분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연극……?"

"네, 연극이요. 지난번에 모시고 갔었는데 아주 흥미있게 보셨어요."

그간 이사크는 구스타프에게 디아와 리넛의 외출에 대해 대략적으로 전달받아왔다. 의상실이나 찻집처럼 여성들이 외출 때 갈 곳들을 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연극이라니…….

'……그건 나랑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사크가 갑자기 떠오른 의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리넛이 다음 주제를 꺼냈다.

"참, 각하. 아이젠가르트 편력단이 진행하는 외부 공사의 진척도가 제법 빠릅니다. 올해가 끝

나기 전에 맡은 작업들이 모두 끝날 것 같아요.“

"음, 그들의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빠르기까지 하군."

이사크의 반박자 늦게 대답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그들은 곧바로 연방으로 돌아가는가? 당장은 모르더라도 저택 곳곳에 아직 손보아야 할 곳이 많을 텐데. 가능하다면 그들을 조금 더 저택에 붙잡아두고 싶군. 다시없을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다시없을 기회. 그 단어를 듣던 리넛이 오늘 오전, 파비안과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오두막'이 번뜩 생각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 숲속에 방치된 오두막을 공사하는 건 어떠세요?"

"오두막?"

"예, 저도 딜랴와 유모에게 들은 것이에요. 선대까지 가문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라구요. 편력단의 손을 빌려 보수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되살리면 어떨까 합니다.“

리넛 마음의 짐이자 음산한 소문의 온상을 산 가문의 이름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다. 동시에, 공작가 사람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 수 있을 지도 몰랐다.

"오두막이 있다는 곳은 사방이 트인 숲속이니 봄에는 아가씨와 가벼운 소풍을 즐기실 수도 있을 테고, 여름에는 근처 한적한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이전처럼 야생 베리를 따다 함께 잼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각하의 요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구체적이고도 다정한 제안에 이사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두막이라. 어린 시절 들은 기억은 있네만, 잊고 있었어. 관심을 둘 여유가 없기도 했지.”

그때 그의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무작정 맡기기 어렵군. 가문의 재산을 쓰는 일이니 말이야."

이사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코트 자락이 부드럽게 펄럭였다.

"지금 같이 가보겠나, 리노어?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

조금 갑작스러웠지만 리넛에게도 오두막을 해결할 다시없을 기회일지도 몰랐다.

"아, 예. 각하. 길을 알아 오겠습니다."

* * *

뒷문을 나서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을 때, 리넛의 심장은 묘한 설렘으로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늘 음침한 저택 복도나 딱딱한 집무실에서만 마주하던 이사크와 단둘이 사방이 트인 숲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생경한 자극을 주었다.

'언젠가에는 각하가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좋겠어.'

자갈이 밟히는 소리와 숲의 서늘한 향기 속에서 이사크가 앞서 걷고, 리넛이 뒤에서 길을 알려줬다. 그녀의 손에는 딜랴가 그려준 오두막 지도가 들려있었다. 간간히 방향을 알리는 리넛의 목소리, 종종 머리 위 어딘가에서 울리는 새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자주 들리는 풀이 스치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때, 이사크가 걸음을 멈추고 리넛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도를 달라는 뜻인가?'

"여기서 북동쪽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예요."

리넛은 그의 손에 지도를 건넸다. 그러자 이사크가 눈썹을 들썩였다.

"이 앞부터는 축축한 진흙 길이야. 혹시 넘어질지도 모르니 손을 잡는 게 좋겠군."

"아, 네."

리넛이 손을 얹었다. 둘의 손 사이에 갇힌 종이 지도가 바스락거렸다.

'이런 지형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바로 잡아드려야겠다.'

이사크가 겪는 통증에는 다리도 해당됐던 걸까? 걷는 뒷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그의 손을 잡은 채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다보니 어느새 야트막한 터가 나오더니 오두막이 나왔다.

'소문보다는 덜 흉하고, 기대보다는 더 못쓰겠네.'

이사크와 리넛은 각자의 속도로 오두막과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단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어떤 자재를 구해야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뒤편의 외벽을 살피던 리넛이 주변을 돌아보자 이사크가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을 빙 둘러 앞으로 나오니 그가 나무뿌리에 앉아있었다. 굵은 뿌리가 어지럽게 얽혀있어 여럿이 앉아도 공간이 남을 정도였다. 이사크 옆에 어느정도 자리를 두고 곁에 앉았다.

‘간만에 숲 냄새를 맡네.’
눈을 감고 숨을 들이키던 리넛이 문득 입을 뗐다.

“어릴 때 집이 숲속에 지은 나무집이었거든요. 이런 오두막과는 달랐지만요.”

저택과 의뢰소같은 건물에서 지내다 간만에 본 나무집이 반가워 절로 옛 추억이 떠오른 탓이었다. 이사크는 그녀가 들려주는 얘기를 조용히 들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숲속에서 놀다가 빨간 열매를 발견하고 잔뜩 따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어깨너머로 봤던 것처럼 어설프게 잼을 끓였어요. 그리고 빵과 함께 저녁을 준비해놓고 엄마가 오길 기다렸어요. 처음 해본 요리여서 엄마가 맛있게 먹어주길 기대하면서요.”

삐요, 삐요, 하는 새의 울음소리가 문장 사이의 공백을 잠깐 메웠다.

“엄마가 기뻐하면서 묽기 그지없는 그 잼을 빵에 발라 듬뿍 한 입 베어 무셨는데 글쎄,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반응을 보고 실망한 저도 손가락 끝으로 콕 찍어 맛봤는데. 세상에, 제가 아는 모든 신맛과 떫은맛을 가져다 대도 그 잼 맛에는 부족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따온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였어요. 빨개진 혀를 내밀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서로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내뱉고 아차 싶어 리넛이 황급히 이사크의 눈치를 살폈다. 편안한 공간에 있다보니 저도 모르게 옛날 추억을 뱉었는데, 그게 그의 앞에서 할 만한 얘기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은 채였다. 그래서 황급하게 덧붙였다.

“그, 보잘 것 없는 기억이에요.”

하지만 이사크는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보잘 것 없지 않군. 따뜻한 기억이야. 내게는 없는 종류의 것이기도 하고.”

리넛의 얼굴이 난처함과 미안함으로 물드는 것을 그는 조용히 바라봤다.

‘나를 안쓰러워하는구나.’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리넛이 미안해하는 결핍은 그에게 없는 것이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이사크는 음습한 진심을 속으로 숨겼다.

"확실히 네 말대로 형태를 새로 잡는다면 훌륭한 요양처가 되겠어. 리노어, 저택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네 노력과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낼 때마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내게 바라는 보상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나?"

리넛의 눈빛이 기민하게 빛났다. 기다렸던 기회였다.

"허락하신다면 저택의 서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문의 역사나 크로네의 복식 자료들을 공부해 두면, 앞으로 데뷔탕트 준비를 더 완벽하게 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재라…… 구스타프에게 일러두지."

어차피 가문의 비밀 서류 같은 것은 이사크의 집무실 금고에 있었다. 하녀가 서재를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 * *

리넛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디아의 시중과 식사 준비, 보수 공사가 끝난 곳들의 뒷정리나 청소를 했다. 밖에서 사온 묘목을 한창 온실에서 키우느라 바빠 디아와의 외출은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어차피 웬만큼 필요한 것들은 다 맞추거나 구매했기에 문제 없었다.

일과를 모두 끝내고 밤부터는 활자들 사이를 헤집기 바빴다. 먼지 쌓인 가문 기록지의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길이 다부졌다. 글자를 읽는 것은, 그녀의 취미이자 특기였다.

'산 공작가의 기묘한 내력과 질병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을 거야.'

마침내 역대 공작가의 연대기가 적힌 양가죽 철을 찾아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 필요한 부분부터 훑기 시작했다.

『왕국력 461년, 겨울. 레오폴트 1세 각하 장기 요양. ……레오폴트 공작이 향년 57세에 이르러 돌연 급격한 기력 상실과 극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가문의 시의들이 과로와 노화가 공작의 건강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왕 폐하의 배려에 따라 북쪽에 위치한 사냥 별장으로 처소를 옮겼다.……이주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안색이 호전되었고 육신의 활력을 회복하였다.……이듬해인 왕국력 462년, 봄 공작이 본성의 집무실로 복귀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호흡곤란과 사지 마비를 동반한 급성 쇠약증이 재발하였다. 영주가 끝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왕국력 468년, 여름.……선대 공작의 뒤를 이어 가문을 승계한 발두어 공작이 재위 6년 차에 접어들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역질에 붙들렸다. 잇몸은 검게 변색되어 피가 멎지 않았으며, 야간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왕실에서 공작의 투병을 염려하여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국왕의 친필 서명이 각인된 문진과 만년필이 위문품으로

당도했다. 공작은 왕가의 은혜에 경의를 표하고자 와병 중에도 간이 책상을 침대에 두어 위문품을 곁에 두고 정무에 전념하였다.』

『왕국력 475년, 가을. ……발두어 공작이 46세의 나이로 영면에 든 후, 후계자인 고트프리트가 공작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성년이 채 되기도 전인 20세의 이른 나이부터 선대 공작과 완전히 동일한 증세—부패하여 피가 흐르는 잇몸,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극한의 고통—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초빙된 의원들이 온갖 처방을 올렸으나 영주의 육신은 나날이 메말라갔고, 결국 왕국력 480년, 고트프리트 공작은 겨우 32세의 나이로 영면하였다. 이로써 가문에는 오직 12세에 불과한 어린 후계자 이사크 각하만이 남게 되었으니, 이는 산 가문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잔혹한 잔혹기였다.』

여기까지 적힌 뒤로는 몇 장 안 가 기록이 끊겼다. 일대기를 적는 기록수마저 가문을 떠난 탓 같았다. 리넛의 기록이 끝나자 저도 모르게 멈추었던 숨을 몰아 내쉬었다. 화려한 공작가의 계보 뒤에 숨겨진, 대를 이어 서서히 말라 죽어 간 역대 공작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아픈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을 테고, 자식 역시 아픈 부모를 보며 공포를 느꼈을 터였다. 책장 위로 촛불이 일렁였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리넛은 연대기를 찾은 날부터 며칠을 같은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숨겨진 조각들을 찾고, 또 찾았다.

'확실히 이상해.'

처음에는 그저 이유없는 증세들로 이르게 목숨을 잃은 비극만 보였다. 그러나 찬찬히 한 줄씩 뜯어보고 비교해보자 몇 가지 특징들이 눈에 띄었다.

'먼저 산 가문 자체가 짧은 수명을 갖고 태어나는 집안 같지는 않아. 드물게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기엔 이사크의 증조부인 레오폴트 공작까지는 오히려 장수했어.'

리넛이 펜을 돌렸다.

'마찬가지로 건강하던 레오폴트 전 공작에게 증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거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르게 사망했고, 그 뒤로는 사망 나이가 점점 빨라졌어. 증상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꽤 겹치는 것도 같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라…… 작위를 이양하고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지.'

그녀의 눈이 이사크의 이름을 찾았다.

'이사크는 무슨 마음으로 열두 살의 나이에 작위를 이양받았을까. 공작이 된 후부터 하루하루 아파가는 몸을 느끼며 지옥으로 발을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을까? 전대 공작은… 어린 아들에게 죽음의 굴레와도 같은 관을 씌워주며 어떤 심정으로 눈을 감아야 했을까.'

담담한 글자들에서 부모와 자식이 느꼈을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져 더 비극처럼 다가왔

다.

* * *

쿵, 쿵. 둔중하고 정직한 도끼질 소리가 안마당의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아이젠가르트 편력단이 산 가문의 저택에 머문 지도 몇 주째, 본관 건물의 뼈대를 바로잡고 축축하던 벽지를 뜯어내 새로 석회를 바르는 대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한때 유령이나 드나들 것처럼 황량했던 마당 한가운데에는 장인들이 베어 넘긴 침엽수 장작과 잡초 더미들이 거대한 탑처럼 쌓였다.

그때 양손에 묵직한 청동 주전자와 주먹만 한 나무 잔들을 쟁반 가득 받쳐 든 리넛이 작업장으로 걸어 나왔다.

"여기 와서 얼어붙은 몸 좀 녹이면서 하세요."

리넛이 쟁반을 커다란 통나무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마자, 장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주전자 입구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조차 단숨에 녹여버릴 것 같은 새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커다란 나무 잔에 주전자를 기울이자, 꿀을 듬뿍 넣어 조린 진득한 과일 시럽을 탄 따뜻한 우유가 한 잔 가득 채워졌다.

"오, 리노어! 안 그래도 목구멍이 바짝 마르던 참이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군!"

수석 목수가 거친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큼직한 나무 잔을 낚아채듯 쥐었다. 그가 커다란 입으로 한 모금 크게 들이켜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장기 깊은 곳까지 뜨끈한 온기를 퍼뜨리는 기운에 단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크하아!" 하며 깊은 탄성을 내뱉었다.

"달고 뜨겁고 고소하고, 역시 속 채우기엔 이만한 게 없지!"

"처음에는 술이 아니라고 투정부리셨잖아요."

그들을 가볍게 흘긴 리넛이 자기 몫의 잔도 채웠다.

"뭐?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우유로도 몸에 불이 확 붙는구만!"

"어이구, 좋다! 역시 겨울엔 이 맛이지!"

투박한 턱수염을 기른 단원들이 서로 짐짓 시치미를 뗐다. 호로록 잔을 들고 마시는 리넛의 눈에 마당에 쌓인 장작들이 보였다.

"저기 나무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저거? 저건 안돼."

"벌레가 좀 먹고 결들이 거친 것들이 많아서 귀족들이 쓰는 가구로는 영 별로야."

"저것들로 뭘 만들어봤자 금방 부서지거나 삭아버릴걸."

"그렇구나."

리넛이 아쉽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재 하나하나가 소중한 공작가인데. 그때 브로브가 다 마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지, 내일이면 해의 마지막 아닌가? 크로네에서는 새해 전야를 어떻게 보내지?"

"음, 주로 기름진 고기와 따뜻한 술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죠."

리넛은 어머니와 보냈던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았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젠가르트 식 새해 전야 어때? 정확히는 베르크무트 식이지!"

"그게 뭔데요?"

브로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리넛이 귀를 쫑긋 세웠다.

* * *

새해 전야였다. 리넛은 딜랴와 함께 주방에서 쉴 새 없이 고기와 주전부리, 술을 꺼내어 담았다. 풍미를 위해 어제부터 양념에 재우고, 오랜 시간 장작불에서 끓이고 데운 것들이었다. 준비되기 무섭게 단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차례대로 음식들을 받아 갔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주방에서 뒷정리를 시작하는 리넛을 딜랴가 말리며 그녀의 앞치마를 풀어 당겼다.

"자, 자, 그만두고 우리도 이제 나가보자고!"

어제 단원들에게 '베르크무트 식 새해 전야 행사'에 대해 듣고 식사 시간에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딜랴와 유모, 구스타프까지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구스타프가 이사크의 허락까지 받아오자 단원들도 기뻐하며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아 공작가의 안마당에는 거대한 장작산이 높게 쌓였다. 딜랴와 함께 안마당으로 나가보니 둘이 마지막 참석자인 것 같았다. 장작더미 주

변으로 높고 낮게 잘린 통나무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다. 그 나무들을 의자 삼고 테이블 삼아 모두들 즐겁게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리넛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바로 옆에 앉은 단원이 잔을 건넸다.

"공작가 특제 잼을 탄 북방식 독주야. 달큼한 맛에 계속 꿀떡꿀떡 마시다가는 훅 취할테니 조심하라고!"

"고마워요."

리넛이 따뜻한 술을 한 모금 삼켜보니 목이 화끈한 것이 독주가 맞았지만, 곧바로 달콤한 맛이 입을 감싸줬다.

"맛있다……."

간만에 마시니 술이 입에 더 잘 달라붙었다.

"어이, 거기 불 좀 당겨보라고!"

누군가 호탕하게 외치자 브로브가 장작더미 아래로 횃불을 던졌다. 메마른 바늘잎에 불이 붙자마자, 순식간에 불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노을지는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화르륵, 타닥타닥 튀는 불꽃의 붉은 빛이 안마당의 거친 돌벽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북인들은 한해의 마지막 밤, 격식을 던지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육신을 녹이는 축제를 즐긴다고 했다.

'일반적인 귀족 가문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일단 이렇게 큰 불을 피울 빈 마당이 없을 터였다. 산 공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새해 전야 축제였다.

"자, 다들 잔을 채우게! 공작 각하께서 베풀어주신 고기와 술이 흘러넘치는데 손을 놀려서야 되겠나!"

아이젠가르트의 사내들이 투박한 양철 잔을 부딪치며 호쾌하게 웃어 젖혔다. 단원의 목에 목마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 불꽃의 꼭대기를 바라보는 토르드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향신료를 넣고 구운 고기가 술맛을 돋우었다. 그녀 역시 오늘만큼은 최근의 긴장과 예민함을 내려놨다. 장인들이 돌아가며 건넨 북방식 독주를 몇 잔 얻어마신 탓에, 리넛의 하얀 뺨에는 발그레한 취기가 기분 좋게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하나둘씩 목소리를 얹어 노래를 불렀다. 어느정도 노랫소리가 커지자 단원들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왁자지껄한 소리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옆의 단원에게 듣길 전통 춤이라는 듯 했다.

"뭣들 하는 거야. 리넛 양, 디아 아가씨, 딜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새해맞이 춤을 춰야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어, 엇. 전 춤은 잘 못 추는데요!"

리넛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단원들은 아랑곳 않고 그녀의 손을 이끌어 모닥불 주위로 끌어당겼다. 당황해서 돌아보니 이미 디아와 딜랴는 일어나서 춤을 배우고 있었다.

'딜랴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마저……!'

누군가 가죽으로 간단한 북을 만들어 본격적인 박자를 얹었다. 다행히도 춤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손뼉을 치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흥과 리듬만으로 금방 배우는 춤이었다. 빙글빙글 돌며 옆 사람과 발뒤꿈치를 맞추거나 팔짱을 끼는 동작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돌아갔다. 단원들과 손을 맞잡고 모닥불 주위를 둥글게 돌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안마당을 가득 채웠다. 격식도, 신분의 체통도 없는 기이하고도 정직한 축제였다.

'이제 좀 앉아서 쉬어야겠는데.'

술을 마신 뒤 춤을 췄더니 열기가 올라와 취기가 훅 번졌다. 마지막 파트너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통나무 의자에 앉았다. 콧김으로라도 술을 날려 보내려고 색, 색, 숨을 크게 내쉬고 있자 옆의 누군가 잔을 건넸다.

"저는 이제 더 못마셔요……."

"술이 아니고 물이야. 마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사크였다. 리넛이 그를 발견하고 생긋 웃었다. 방금 마지막으로 춤을 춘 파트너가 각하였나보다.

"나오셨네요, 각하."

술에 취해 약간 풀린 눈, 춤을 추느라 조금 흐트러진 앞머리. 리넛이 쉴 새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더운 숨결에 섞인 달콤한 향신료와 술 냄새가 이사크의 뺨에 닿았다. 붉은 불꽃이 그녀의 뺨을 계속 어루만지고 있었다.

'귀엽군.'

오늘 밤 리넛은 혹독한 밤바람을 막기 위해 도톰하고 귀여운 방한복을 껴입고 있었다. 결이 굵고 단단한 청록색 거친 모직으로 지은 튜닉형 상의는 퀼팅 자수가 촘촘히 들어가 몸을 동글동글하고 포근하게 감쌌고, 깃과 소매 끝단에는 뽀얀 양모가 가득 덧대어져 있어 그녀가 움직

일 때마다 폭신한 털이 기분 좋게 들썩였다. 술기운과 불꽃의 열기 때문에 달아오른 하얀 목덜미 위로, 귀를 덮는 앙증맞은 양털 모자가 비스듬히 넘어가 있는 모습은 안마당의 그 어떤 풍경보다 이사크의 시선을 강렬하게 붙들었다. 마당에 리넛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리넛이 그에게서 물잔을 받아 마셨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도 뭘 드리고 싶은데…… 뭐, 뭐가 있지?"

이사크는 됐다고 거절하는 대신, 리넛이 하는 양을 구경했다. 뭘 줄지 궁금했다. 리넛은 볼록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아!'하고 꺼내 이사크의 눈앞에서 펼쳐 보였다. 말린 라즈베리와 견과류였다. 오늘 주전부리로 준비했던 것을 술김에 넣어둔 모양이었다.

'이것도 귀엽군.'

이사크는 손으로 받아가는 대신에 리넛의 손목을 쥐고 고개를 내렸다. 손바닥 위에 있는 것들을 입을 벌려 그러모아 가져갔다. 손바닥을 이사크의 입술이 훑고 지나갔다. 간지러웠다.

"고맙네. 리노어."

이상한 느낌에 손을 꼼지락거리던 리넛이 움찔했다.

'각하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취기 탓에 리노어가 리넛,으로 들린 것이다.

"각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이없는 질문에 이사크가 피식 웃다가 돌연 심각해졌다.

'내가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나?'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몰라, 리노어."

"와……. 결국 들켰구나."

리넛이 자신이 무슨 소리를 뱉는지도 모른 채 손바닥을 짝 쳤다.

"그럼 설마 제 애칭도 아세요?"

"애칭이 뭐지?"

"역시 이건 모르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제 애칭을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이사크는 그 애칭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물을 줬으니 보답으로 알려줘.”

“네……?”

물을 받긴 했는데, 내가 보답을 안했던가……? 갚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리넛이 갸웃거리자 이사크의 어깨가 축 쳐졌다.

“나는 애칭을 부를 만한 사람이 디아 말곤 없어.”

아……. 순식간에 리넛의 눈이 촉촉해졌다. 안 그래도 요즘 그녀는 가문의 연대기를 매일같이 읽으며 이사크에 대한 동정이 치솟던 때였다.

‘애칭을 알려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없다니.’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꿋꿋하게 자란 그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하지만 저는 평민이고 이사크는 공작이었다. 비교가 되지 않았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못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내 애칭이라도 알려주고 싶어.’

리넛의 눈동자가 이사크를 올곧게 향했다.

“린이에요. 린.”

쿵.

이사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거칠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유록색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자신을 직시해오자 시작된 진동이었다. 사지가 뒤틀리는 발작이 시작됨을 느낄 때 두려움에 두근거렸던 느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아픔이나 통증을 느낀지 제법 됐다.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심장이 날것 그대로 터뜨리는 명확한 충격이었다. 귓가에 장인들의 노랫소리와 북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제 흉벽을 두드리는 격렬한 고동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이사크는 순간 당황해서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근거림은 대체 뭘까.'

그러나 혼란스러운 의문은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모를 수가 없었다. 통증이라는 안개가

걷히며 맑아진 그의 푸른 눈동자는, 오직 제 옷자락을 쥔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녀의 얼굴만을 올곧게 좇고 있었다.

자신의 잿빛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마침내 이 눈부신 햇빛과 온기 속으로 자신을 이끌어내 준 이방인.

"린."

이사크는 숨이 막힐 듯한 설렘 속에서 마침내 정적을 깨고 나지막이 발음해봤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혀가 굴러갔다.

"네가 궁금해."

"어떤 거요? 궁금하신 부분은 제 추천서와 신분 서류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 다 나와있어요… 그 외에는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리넛의 눈이 감길 듯 가물가물했다. 이사크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노래는 언제 불러줄 거지? 잘한다고 당당하게 써놨잖아."

"노, 노래요?"

리넛이 놀란 듯 움찔하며 잠을 깼다. 취해서 잠이 오는 와중에 명확한 기억이 스친 탓이다. 어쩌지. 뭐라고 변명을 해야할까.

"지금 불러주는 것은 어때? 다들 시끄러워서 나밖에 듣지 못할 거야."

"그럼 딱 한 소절만 부를 테니까 잘 들으셔야해요."

의외로 거절하지 않고 부르겠다는 답이 왔다. 정말 자신있는 걸까? 이사크는 앉아 있던 통나무 의자를 끌어다가 리넛 가까이로 몸을 붙였다. 잘 들으라고 했으니 별 수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큼, 큼 하며 목을 다듬던 리넛이 노래를 시작했다.

'음.'

노래가 절정을 향해 갈 때는 이사크가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을 바싹 넣었다. 노래를 끝낸 리넛이 혼자 박수를 짝짝짝 쳤다. 그 모습이 귀여워 헛웃음이 났다.

"이거 취업사기로군."

"헉!"

의뢰소도 눈치 채고, 내가 가문에 일부러 잠입한 것도 알아버렸구나.

“그것까지 알고 계셨나요? 언제부터? 각하, 그건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각하를 도우려다 보니… 아니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맞긴한데…….”

이쯤 됐을 때는 리넛의 말이 입술 밖으로 제대로 내뱉어지지 못하고 먹히며 웅얼웅얼대는 소리로 들렸다. 그 소리까지도 귀담아들으려는 이사크의 어깨가 계속 리넛 쪽으로 기울기만 했다. 가해자가 난처하고, 피해자는 즐거운 밤이었다.

* * *

‘이쯤이면 다 됐나?’

리넛은 아침에 일어나 첫 일과로 어제 새해 전야 행사가 남긴 흔적들을 뒷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모닥불의 장작을 뒤적거리며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던 중이었다.

쿵, 쿵, 쿵.

허리를 벌떡 세워 대문을 바라봤다.

‘이 시각에 공작가를 찾아올 사람이 누구지?’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대문의 덮개를 조심히 열었다.

“누구세요?”

“리넛!”

‘어라!’

리넛이 덮개 너머의 존재를 확인하고 황급히 대문을 열자마자 와락 품에 안겼다.

“성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따뜻한 포옹과 함께 새해 인사를 건넨 이는 다름 아닌 프레이야였다.

“우리 왔어, 리넛.”

그리고 그녀의 딸 리브였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걸 부탁했다며?”

프레이야의 품에는 포목천으로 쌓인 더미가 있었다. 그 형체를 가늠하던 리넛이 말했다.

“설마?”

“맞아. 로즈힙을 가지고 왔단다!”

“이걸 직접 가지고 와주시다니… 아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얼른 허락을 받고 올게요!”

리넛은 치맛자락을 쥐고 저택으로 뛰어 들어갔다. 예고도 없는 방문에 리넛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구스타프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각하께 말씀드릴테니 우선 손님들을 들여보내라. 바람이 차가워.”

구스타프의 배려에 꾸벅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대문으로 뛰어나가 프레이야와 리브를 데리고 하인 거실로 들어왔다. 이사크의 허락을 받고 돌아온 구스타프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리브와 프레이야는 예법을 갖추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산의 위대한 주공을 뵙습니다.”

“앉게. 리노어의 편지를 받고 왔다고 들었어.”

살짝 조바심이 난 리넛이 대신 설명했다.

“각하. 여기 있는 프레이야 씨는 쉬르크비크에서 온갖 질병과 약초를 공부해온 저명한 약제사예요. 그리고 옆의 리브는 제 친우이자, 경험이 많은 의학자랍니다.”

“그렇군.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로 왔지?”

그때 응접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리며 디아가 들어왔다.

“오라버니!”

응접실의 풍경을 훑던 디아가 프레이야의 품에 있는 천과 지푸라미 더미를 발견하고 빠르게 이사크에게 걸어갔다.
“제 부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리노어를 통해서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나봐요.”

“네가 부탁했다고?”

“네. 크로네에선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쉬르크비크에서 이곳까지 와주다니요! 공작 가문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답도 없이 돌려보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작 영애로서 권한은 관심도 없더니, 이럴 때 갑자기 가문을 내세우는군.’

그때 뜻밖에도 구스타프가 입을 뗐다. 주인이 손님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끼어든 적이 없는 그였다.

“약제사고 의학자시라면, 여러 환자들을 만나보고 처방도 해봤겠군요?”

“그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의 유일한 약제사 밑에서 일을 배웠고, 또 제 딸이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각하. 남는 방이 많으니 며칠 머물게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아닙니다.”

웬일로 디아와 구스타프의 쿵짝이 잘 맞았다. 이사크는 애초에 리넛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적당한 대접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쯤되니 혹시라도 거절했다간 등쌀에 괴로울지도 몰랐다.

“좋소. 저택의 사정이 그대들에게 그리 안락하지는 않겠으나 베푼 은혜를 보답받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충분히 머물도록 해.”

이사크의 허락이 떨어지자 디아가 바로 프레이야에게 다가가 묘목을 살폈다.

“디아. 우선 짐을 풀 수 있게 놔둬.”

“아, 맞아. 내가 마음이 급했어……. 조금 이따 리노어와 함께 내 방을 꼭 찾아줘. 알겠지?”

“예. 꼭 갈게요, 아가씨.”

리넛은 설레는 마음을 추스르며 적당한 격실에 프레이야와 리브를 데려갔다. 직접 먼지를 쓸고 닦고 단장했던 방이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질문을 던졌다.

“리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로즈힙 묘목을 저택으로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왔지. 묘목을 든 전령들이.”

“네가 직접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 그리고 프레이야 이모도요.”

“내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준 게 리넛, 너라며? 덕분에 얼굴을 까먹을 뻔하다가 기억해냈어. 고맙다.”

“그냥 저에게 들은 공작 가문의 병증에 대해 학구적 열망이 생겼다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엄마.”

“어머? 우리 딸은 언제쯤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까?”

티격태격하는 둘을 보며 리넛이 쿡쿡 웃었다. 모녀의 상봉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았다.

“아 참, 저는 여기서 ‘리노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 리노어. 이곳 생활은 조금 어때?”

리넛이 그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프레이야가 궁금해 할, 서재에서 찾아낸 역대 공작들의 증세에 대해서도.

“음, 그건 확실히 나도 직접 읽어보고 공작 각하도 진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

“책은 제 방에 있으니 가져다드릴게요. 일단 짐을 풀고 쉬시다가 식사를 하고 아가씨께 같이 가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방문을 닫고 나오는 리넛의 표정이 밝았다. 저택 내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뻤다. 충만한 새해 첫날이었다.

* * *

"어머 세상에."

“우와…….”

디아가 안내한 저택 안쪽의 온실 문이 열리는 순간, 프레이야와 리넛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잿빛 석회질 토양이 지배하는 크로네는 본래 침엽수림만 무성할 뿐, 사철 꽃을 피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척박한 땅이었다. 그러나 온실 내부에는 철을 잊은 장미와 이국적인 초목들이 총천연색의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한 온실 내부의 공기는 계절을 잊게 만들었다. 머리 위를 둥글게 감싸 안은 투명한 유리 천장 위로 겨울 햇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 빛을 받아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흡사 한여름의 정오처럼 눅눅하고도

다정했다. 프레이야가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자세히 살피더니 손으로 흙 한 꼬집을 집어 비볐다.

“흙에 뭔가 하셨군요?”

디아가 반색하며 답했다.

“응. 사실 이 온실은 어머니가 가꾸시던 곳이야.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흙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셨거든. 아마 크로네에서 이 정도까지 꽃을 피운 가문은 없을걸?”

치켜든 턱과 올라간 어깨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머 아가씨. 귀족 가문이 아니라 크로네 전체에서 유일무이할 거예요. 더 뿌듯해하셔도 좋아요.”

프레이야가 그 마음을 알아주듯 한 번 더 치켜세워줬다. 꽃과 식물에 대한 둘의 대화가 이어지자 리넛은 살며시 혼자 온실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크론발트 왕국 남부의 따뜻한 영지에서나 간신히 구경할 수 있는 핏빛 장미들이 줄기를 뻗어 격자무늬 철망을 타고 올라갔고, 잎사귀마다 은빛 이슬을 머금은 진귀한 열대 꽃들이 보석처럼 무리 지어 피어 있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는 진한 흙 냄새와 짓이겨진 풀 향기가 섞여 올라왔다. 사방을 뒤덮은 푸른 덩굴식물들은 벽면의 잿빛 대리석을 아예 집어삼킨 채, 마치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초록색 성벽처럼 온실을 에워싸고 있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밀폐된 유리 벽 안에서 수많은 송이의 꽃들이 한꺼번에 토해내는 아찔하고 짙은 향취는 허파를 가득 채우다 못해 머리통을 하얗게 마비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디아와 프레이야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배경음처럼 멀어지는 가운데, 유리 벽을 만지는 리넛의 손끝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이 저택의 대문이 다시 열리는 날, 이 온실은 크로네 사교계 모두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 * *

프레이야가 디아의 온실을 보며 느낀 감동은 하루를 넘지 않았다.

"대체 어째서 이렇게까지 병을 방치하셨었나요?"

"수소문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왕도에 퍼진 이후론…… 그 누구도 이 저택의 진료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프레이야를 주인 각하를 치료해줄 의사로 여긴 집사의 태도가 공손했다. 이사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설명을 하려면 길었고, 그렇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그도 답을 몰랐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문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는 병환 또한 놓쳤군요. 요즘 시대에 괴혈병이라니, 치료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병증으로 너무 오래 앓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으시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사크의 맥을 짚고 몸 이곳저곳을 덮고 있는 상처를 살폈다. 너무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 지워지기 시작한 것들까지 흉터는 다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증상들은… 중독일지도 모르겠군요."

“중독이라고?”

구스타프와 이사크가 동시에 프레이야를 바라봤다. 약초를 잘 안다는 것은, 독초를 잘 안다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척박한 북방에서 오랜 세월 터득한 지혜로 단번에 본질을 꿰뚫었다. 그리고 어제 리넛에게서 가문의 저주라는 전대 공작들의 사인과 사정에 대해 전해 들었다. 증조부인 레오폴트 1세부터 대대로 공작들만이 서서히 뼈가 녹아내리며 요절했던 역사, 그리고 똑같은 본성에 머물면서도 크게 아픈 증상이 없었던 공작 부인들. 지극히 건강해보이던 공작 영애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 기간, 특정 인물에게 특정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외부 요인에 의한 중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컸다.

"당장 각하께서 사용하시는 집무실과 침실을 폐쇄하세요. 쓰시던 가구와 식기류, 공간, 입던 옷까지 다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해보시고, 차도가 있으시다면 중독이 확실한 거겠죠. 그땐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과 약도 섭취를 병행하세요."

확신에 찬 목소리에 구스타프와 이사크가 설득됐다. 의심이 많은 환자들을 달래는 방법도 익숙한 그녀였다. 홀린 듯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프레이야가 나가고서 둘은 의사의 처방을 따를 방법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행히 최근에 끝난 저택 보수 공사로 새로운 집무실과 침실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옷이나 집기류는 급한대로 기성품을 구해다 쓰면 될 것이다.

“더 지시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던 이사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식사도. 식당도 자리를 옮겨야 하겠군. 아까 그러지 않았나? 쓰던 공간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예? 하지만 같이 식사하시는 영애님께선 무탈하신 것을 보니 소연회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아냐. 이런 것은 고칠 때 한 번에 확실히 하는게 낫지. 어디에 원인이 있을지 몰라. 오늘부터

식사를 고용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지."

"어떻게 각하께서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어제 새해 전야의 밤에, 같이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니 즐겁더군. 음식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먹으면 더 빨리 낫지 않겠나?"

그 말에 구스타프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주인은 자신의 건강에 절절 매는 집사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각하께서, 새해 전야에 사람들과 불꽃을 바라보며 맛보았던 함께하는 식사의 온기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 * *

"이게 다 뭐지?"

이사크가 물었다. 딜랴가 씩씩하게 답했다.

"딜랴 특제 양파 수프야! 양파가 해독에 좋다고 하더군. 당분간 수프는 양파 수프를 먹는 것으로 여기 모두 합의했으니 걱정 마."

프레이야의 진료 이후 이사크가 앓고 있던 병 중 하나가 괴혈병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들이 필요한지 구스타프를 통해 주방에 전달된 뒤 일어난 일이었다.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과한 것 같지 않나?"

이사크가 세숫물 그릇 크기의 접시에 담긴 수프를 스푼으로 무기력하게 휘저었다. 너무 많은 양에 보는 것만으로도 살짝 질렸다. 그때 유모가 뽀얀 계란이 탑처럼 쌓인 보울도 이사크 앞으로 가까이 끌어다 놨다.

"제가 껍질을 까서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드셔 주실 거지요?"

"유모……."

눈이 침침한 유모가 자신을 위해 손수 계란껍질을 깠다고 한다. 맛있게 먹어보여야 하겠지만 이 역시 양이 너무했다. 보기만 해도 목이 텁텁하게 막혀왔다. 괜히 가슴을 작게 두드리니 이번에는 디아가 찻잔을 밀어주었다.

"오라버니, 식사를 다 한 뒤에는 이 차도 꼭 다 마셔. 로즈힙 차야. 조금 쓰더라도 다 마셔야 해."

"각하, 몸에 좋은 것은 으레 쓰답니다."

"맞아. 이제 포도주나 포도주스는 그만 찾고. 프레이야에게 들었는데, 오라버니가 포도주스를 찾은 것도 다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거래. 마시면 입안의 열감과 고통을 식혀주니까.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을 찾았으니 이 차를 대신 마셔."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반짝이는 눈빛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정말 다 먹고 빨리 나아야 끝날 것 같았다. 콱 막힌 목을 조금 뚫어보기라도 할 생각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을 각오하고 삼켰는데 의외로 달달한 맛이 났다. 고개를 갸웃하며 잔을 내려놓는데 리넛과 눈이 마주쳤다.

'잼, 잼!'

리넛이 한 손으로는 옆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식탁 위에 있는 잼을 콕콕 가리키며 열심히 외치고 있었다. 차가 쓴 것을 알고 미리 잼을 타두었다는 뜻인 것 같았다. 저를 생각해준 마음이 기꺼워 웃음이 났다.

"얼레? 먹을만 한 가봐? 잘됐다, 오라버니. 한참 남았으니까 더 마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줘서 그런지, 달게 느껴지는군."

이사크가 리넛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 까지는 아니라 충성과 애정 정도인데……. 혼잣말을 속으로 삼킨 리넛이 붉어진 얼굴을 고개를 숙여 내리며 수프를 떠먹었다.

그래, 양파 수프와 계란을 질리도록 먹으면 어떠한가. 이사크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만한 새해 첫날이었다.

* * *

리넛은 이사크가 새로 쓰게 된 침실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닐스가 단원들과 함께 집무실을 꾸미고 있었기에, 오갈데 없어진 이사크는 아까부터 침실 문가에 기대서 리넛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참이었다. 그때 구스타프가 공작을 찾아왔다.

"각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라고?"

"예. 크로니케 가문의 차남이라고 합니다. 미리 약속해둔 것이 있으십니까?"

침대보를 탁탁 털던 리넛이 몸을 움찔, 했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다.

"아니. 전혀 연이 없는데. 일단 만나보지."

“각하. 제가 바로 응접실에 차를 내갈게요.”

고개를 꾸벅 숙인 리넛이 침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안보이게 된 순간부터는 거의 뛰듯이 걷기 시작했다.

‘파비안이잖아!’

방금 대화를 들으며 리넛은 소리를 낼뻔한 것을 참았다.

‘파비안이 공작가까지 무슨 일이지? 또 급한 일이 생겼을까? 왜 직접 왔지? 혹시 우편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나? 아니면 우편으로 전할 수 없는 일일까?’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찻잎의 위치를 한 번에 찾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이사크를 위한 로즈힙 차와 파비안이 즐기는 허브차를 준비해 트레이에 받쳐 들고 응접실로 갔다.

‘조금 머물면서 방문 목적을 알아내야겠어.’

응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자 정말로 파비안이 이사크와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런 공고를 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듣고 왔지?”

“여기 소개장을 보여드리면 각하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던 중이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했다. 트레이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침 이사크의 찻잔을 내려놓는데 파비안이 이사크에게 봉투를 건넸다. 겉면에 인장이 찍혀있기에 흘끔 쳐다봤다.

‘우리 의뢰소 시길이잖아!’

“이곳 소개를 받고 공작 영애의 선생이 되기 위해 찾아왔다고?”

파비안 앞에도 찻잔을 내려놓는데 약간 쏟고 말았다. 파비안이 그것을 보고 바로 소서를 잡아 돌려 흘린 찻물이 자신 쪽으로 가게 했다. 이러나저러나 이사크는 그 장면을 볼 겨를이 없었다. 눈앞의 소개장에 시선을 뺏겼기 때문이다.

「의뢰를 수락하겠습니다.」

‘정말로 내 의뢰를 들어준다는 것인가?’

왕도 거리에 비밀 외출을 나갔다가, 의뢰소라는 것을 듣게 됐다. 위신과 명예를 회복해주고,

추문과 유언비어를 지워준다고 했다. 디아가 데뷔탕트를 치를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간 공작가에는 아들만 태어났기에 그나마 사교계 데뷔와 진출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다. 가문의 사정을 알고도 결혼을 하겠다는 영애들도 있었고, 혹여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방계 중 양자를 구해 후계자를 세우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딸은 달랐다. 귀족 영애는 데뷔탕트를 통해 사교계에 진출하지 않으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가주로서 자발적으로 저택에 갇히는 것과, 날개를 꺾이고 저택에 갇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쉽고 소중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뢰소에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 기억에서 잊어가던 즈음이었다. 암묵적으로 거절을 당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의뢰를 받아준다니. 그것도 데뷔탕트 선생을 함께 보낸 터였다.

"이 소개서의 주인과 무슨 사이인가?"

우선 이사크는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다. 파비안이 고개를 저었다.

"저 역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받은 서신입니다. 소개장과 함께 동봉되어있던 편지는 저에게 쓴 것이었지요. 이 일을 받아들인다면 제게 필요한 것을 안겨주겠다구요."

"그게 뭐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작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그 말에 잠시간 고민하던 이사크가 다시 물었다.

"이 일의 무게를 알고 찾아온 건가?"

산 가문과 엮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감안하고 왔느냐는 물음이었다. 파비안이 찻잔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각하, 저처럼 가문의 의무에서 벗어난 자작가의 차남들은 생각보다 아주 편리한 신분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교계 모두가 저를 가벼운 바람 같은 존재로 여겨주니까요. 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혹은 그 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 본가는 그저 철없는 막내의 방랑이라 치부할 뿐입니다. 가문의 안위에 흠집이 나더라도 생채기 수준이겠지요."

어느 정도는 진실, 어느 정도는 거짓이었다. 파비안이 자작가의 후계자 자리에 대한 부담과 기대가 없는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작이 그를 내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위험에 목을 매는 미련한 짓을 즐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찮고 힘든 일은 저와 맞지 않아서 말이지요. 제 안위는 제가 가장 끔찍이 아끼니 염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산뜻한 목소리가 말의 내용에 신뢰를 실었다.

“공작 영애의 선생이 되어 뭘 가르칠 수 있지?”

“우선 사교계가 처음이신 영애를 위해 눈치 빠르고 재치있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보통 영애들의 춤 선생은 같은 여성인 시녀나 귀부인들이 맡겠지만, 제가 상대가 되어 춤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비안이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이쯤 진행되자 리넛은 정말 그가 좋은 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이사크가 거절할까봐 저도 모르게 옷의 주름을 꼭 쥐고 있었다.

‘눈앞의 이 자는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의뢰소를 믿어보는 수밖에.’

소문으로 들었던 의뢰소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랬기에 이사크 역시 용기를 내 의뢰를 했던 것이니까. 그는 처음 보는 자작가 영식보다는 소개서에 찍힌 인장을 믿어보기로 했다.

“좋아. 데뷔탕트를 잘 준비해주면 가문에서도 보상을 하지.”

“이미 받기로 한 것이 있지만,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공작가의 감사를 받을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욕심을 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었다. 수상하거나 의뭉스러운 구석 없이 정말 대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구스타프. 저택 내에 수업을 할 만한 곳이 있나?”

“연회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좋아. 리노어, 네가 선생을 연회장으로 안내해주고 디아와 자리를 마련해줘.”

“알겠습니다, 각하.”

리넛은 파비안과 함께 응접실 문을 닫고 나온 뒤,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일반적인 하녀의 모습을 흉내 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밖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으로 파비안을 끌고 갔다.

“파비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참고로 나는 똑같은 대사를 리브에게도 했어.”

나와 일하는 동료들은 이런 깜짝 방문을 즐기는 걸까? 이상한 공통점을 찾은 리넛의 얼굴이

놀란 듯 기쁜 듯 복잡했다. 파비안이 그런 리넛을 향해 싱긋 웃어줬다.

“린이 저번에 공작 영애의 데뷔탕트 준비를 위한 선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가 될 수 있으리라곤 생각을 안해봤어.”

“고민하다 보니 가까이에 적합한 선생을 두고 멀리 찾을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알게 된 것을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며, 춤도 잘 추고 사교계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딱 맞지 않나요?”

“어휴…… 그래. 듣다 보니 네 소개를 읊는 줄 알았어. 그것보다…… 이렇게 드러나도 괜찮겠어?”

의뢰소 일을 하며 셋은 의뢰인에게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리넛 정도야 변장과 다른 이름을 써가며 직접 부딪히기도 했었다. 의뢰소의 장이라는 책임감도 어느정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비안은 그럴 것까지는 없거니와 그는 귀족이었기에 들켰을 때 위험이 늘 잔존했다. 그리고 이번 의뢰는 공작가와 후작가까지 얽혀있었다.

“린만 혼자 이곳에서 위험을 감수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라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나붓나붓해서, 주변에 여지를 흘리고 다니는 유랑 같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리넛은 파비안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꺼내는 얘기라는 것을 알만큼 오래 그를 알아왔다.

“위험해질 수 있는 건 파비안 너도 마찬가지야. 이곳에 들락날락하다가 너나 가문의 이름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까 들으셨잖아요. 저는 철없는 막내의 방랑이라고 생각해주겠지요.”

어차피 이미 이사크에게 선생으로 고용된 이상 무를 방도는 없었다.

“일단 아가씨를 이곳으로 모시고 올게. 인사부터 나누고 저택을 나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고 가. 그간 알아낸 것들이 있으니까.”

리넛은 파비안을 연회장에 두고, 디아를 찾아 온실로 갔다. 디아는 프레이야와 함께 뭔가 열심이었다. 꽃과 식물을 안마당에 키울 방법을 어떻게 찾아본다는 것 같았다.

“아가씨. 아가씨의 춤 선생님께서 지금 연회실에 와 계세요.”

“뭐? 내 춤 선생?”

디아는 리넛을 따라간 곳에서 파비안을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소 얼떨떨했으나 자신을 위해 저택까지 찾아온 선생에게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눈 뒤 수업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정해지자 파비안은 디아의 춤 실력을 파악해보고 싶다고 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디아는 의외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새해 전야 때도 느꼈지만 역시, 춤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리넛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파비안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디아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

"영애님, 영광을 누려도 되겠습니까?"

"어……."

처음 받아보는 제안에 디아가 당황한 듯 리넛의 눈치를 살폈다. 리넛이 뒤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미소를 보내자, 디아는 조심스럽게 파비안의 손을 잡았다.

파비안의 리드는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웠다. 디아는 익숙하지 않은 스텝에 꼬여 귀끝까지 붉어지기도 했으나, 파비안이 입으로 잡아주는 박자 감각에 몸을 싣자 이내 연회장의 나비처럼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부드럽게 원을 돌기 시작했다. 둥글게 퍼지고 다시 몸에 감기는 드레스의 끝에는 풀물이 들어있었다.

간단한 춤곡이 끝나자 파비안은 담백하게 떨어져 신사의 인사를 건넸다.

"좋습니다. 감각이 아주 훌륭하시군요, 영애님!"

"감사해요."

둘의 첫만남이 나쁘지 않은 듯 했다. 다음 수업을 기약하며 디아는 다시 온실로 돌아갔고, 리넛이 파비안을 저택 밖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연회실을 나와 대문까지 향하는 길에서 둘은 주위를 조심해가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각자 알게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지금 저택에서 프레이야가 머물면서 공작을 치료하고 있어. 리브는 자신이 아는 의학자들과 약제사들을 찾아가 더 알아보겠다며 떠났고."

"그렇군요. 저도 그 이후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혹시 네가 오늘 방문한 이유가 도서관도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공작가가 있는 이 거리까지 제가 종종 오가는 것은 크게 수상하지 않을 거

예요. 왕립도서관에 가나 보다 할 테니까요. 물론,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금방 들통나겠지만요."

요즘 왕립도서관의 가장 최다 방문객이 파비안 자신이라고 했다. 최다 방문객에게 주는 두꺼운 서적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말에는 살풋 웃음이 났다.

"그래서 알아냈다는 건 뭐야?"

파비안이 목소리를 조금 더 죽이고 리넛과의 살짝 거리를 좁혔다.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산 가문과 후작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마치 접점을 일부러 지워낸 것처럼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량적인 지표들을 확인해봤어요. 레오폴트 전 공작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된 때를 출발점이라고 보고, 그 이후부터 가문이 사회적으로 사장된 지금까지의 귀족계에 일어난 주요 변화와 추이를 중점으로요. 그랬더니 산 가문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무섭게 가문이 부흥하고, 가장 이득을 본 곳이……."

"오딜 후작가겠구나."

"맞아요. 레오폴트 전 공작이 가진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요양을 떠난 후에 추밀원 상임 의장직을 차지한 것이 후작가예요. 그 기간에 고친 법령 하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영지에 제법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갔더라구요. 당시 법령을 지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가문들도 여럿 있었고,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은 가문은 따로 있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의장직 자체가 국왕의 귀를 독점한다는 걸 떠올려보면 주도했던 가문이 후작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능성 있는 얘기네."

"한 가지 더 있어요. 뒤이은 발두어 공작까지 증상이 발현된 이후로는 대를 걸쳐 가문 내부 관리가 소홀하게 되니 가신들이 재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간 모양이더군요. 확장 중이던 사업도 있었는데, 주인의 부재로 표류하며 막대한 위약금과 손해도 발생했어요. 와중에 가문은 가주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얼마를 부르든 의사를 데려와 치료해보는데 여념이 없었으니 금고가 비는 것을 감당해야 했겠죠. 그래서 대대로 관할하던 교역로 통선세 징수권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권한이 여러 귀족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작가의 손에 넘어간 상태예요. 왕도로 향하는 모든 곡물과 비단 상단이 길목마다 오딜의 문장이 박힌 세관에 통행세를 바치고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왕국 전체의 부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죠."

자세히 살피고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이상 공작가의 몰락이 후작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을만큼 교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공작가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 그때그때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들을 챙겼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기는 하네."

걸으며 대화를 나누다보니 대문에 도착했다. 대문을 연 리넛은 파비안이 가는 길을 배웅하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파비안이 그녀를 뒤돌아봤다.

“린. 오늘 공작을 만나보니 아픈 사람 같지는 않더군요.”

“응. 내가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나아졌어. 지금은 프레이야도 살펴주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혹시 ‘눈물여울 새 연회’ 의뢰로 공작가에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린은 충분히 그에게 갚았어요.”

“파비안…….”

“이번 의뢰에 후작가가 얽혀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린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다. 이사크의 건강을 회복해주고, 저택의 분위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리넛 혼자 해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등장과 존재가 발판이 되었다. 리넛 역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과연 감당 가능한 의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의 의뢰였다면 바로 발을 뺐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저택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저택 안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공작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끈덕지게 달라붙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전처럼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네 말이 맞아, 파비안. 너무 걱정하지마. 나 역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마무리할 테니까.”

리넛의 대답에 조금 안심이 됐다는 듯 파비안이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혼자서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되어 끙끙 앓을까 걱정했는데, 앞으로 저택에서 종종 그를 만나며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후련했다.

‘왜 웃고 있지?’

안마당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리넛을 이사크가 집무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창 업무를 하다 찌뿌둥한 몸이라도 펴 볼 생각에 일어났다. 몸을 자주 움직여주라는 프레이야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때 창밖으로 크로니케 자작 영식과 리넛을 발견했다. 배웅하는 길인 듯했다. 둘의 거리가 조금 가깝지 않나 싶어 살피다보니 어느새 창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무슨 얘기라도 나누고 있나 보려 했는데 뒷모습뿐이어서 확인이 어려웠다. 그런데 대문을 열어주고 돌아오는 리넛의 얼굴이 볼살이 살짝 통통하게 올라와있는 것이, 미소를 띠고 있는 듯했다. 거리가 멀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표정 구별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기분이 이상했다. 아무래도 그녀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한 번 더 보여줘야 했다. 그는 마

음을 품은 여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지 몰랐다. 대신 동정을 사는 방법은 알았다. 그리고 그 동정에 기대어 적선하듯 그녀가 건네주는 보살핌이 달고 탐탁했다.

"구스타프, 지금 리노어에게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 * *

이사크를 마주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공작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기도 했다. 이 의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 여기 있는 모두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무실로 향했다.

'아가씨의 수업에 대해 물어보시려나?'

집무실로 들어가 공작에게 인사를 건넨 리넛의 귀를 의심하는 이사크의 말이 꽂혔다.

"왔나, 린?"

'잘못 들었나?'

그가 자신의 애칭을 알고 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리넛이 말을 이었다.

"네, 각하. 아가씨의 선생님께서는 방금 저택을 떠나셨어요. 다음 수업은 글피로 잡혔습니다. 아가씨께서도 춤을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렇군. 수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가 잘 살펴줘."

"그럴게요, 각하."

"혹시 지금 외출할 수 있나?"

"네. 필요한 게 있으세요?"

"새 옷과 신발을 맞추고, 셔츠와 잠옷도 필요해. 그리고…… 집무실에 둘 흑단나무 문진과 새로 깎은 청동 만년필, 실링 왁스 전용 화로도 주문해야겠어. 실크 크라바트와 커프스링크, 외출할 때 갖출 새 가죽 장갑과 지팡이까지 전부."

"잠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목록에 리넛은 다급하게 이사크의 말을 가로막았다. 다 기억할 수가 없어 메모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네가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같이 외출할 거니까.”

“각하께서요?”

이사크가 외출을 한다는 소리에 리넛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그간 가끔씩 고용인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저택을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정식 외출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프레이야 말대로 기존에 내가 쓰던 것들을 모두 바꿔야 하는데. 알다시피 나는 어디서 그것들을 구매해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게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네가 동행해 주겠어?"

‘저번에 저보다 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던데요.’

툭 튀는 반박을 곱게 접어 넣고 리넛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적당한 값을 치르는 것만은 정말 모를지도 몰랐다. 가문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면 자신이 곁에서 잡도리를 해야 했다.

“그럼 바로 채비를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지, 린.”

집무실을 나가려던 리넛이 다시 멈칫했다.

‘잘못 들은게 아니야.’

녹이 슨 듯 잘 돌아가지 않는 고개를 돌려 이사크에게 물었다.

“저, 혹시 각하……. 방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음? 린이라고 불렀지.”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사크가 미간을 찌푸렸다.

“네 애칭이라고 했잖아. 네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거라면서. 그래서 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제, 제가요?”

“이런. 기억이 안나나? 새해 전야 때 말이야.”

리넛의 얼굴이 낭패감에 물들었다. 사실 새해 전야 때 간만에 마신 술에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다. 신나게 박수를 치며 빙글빙글 춤을 췄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흐렸다. 드문드문 떠오르는 장면들이 꿈 같기도, 진짜 있었던 일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날 만난 고용인들이나 단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어서, 저 역시 곱게 자리를 떠서 방으로 가 잠들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사크에게 뭔가 잘못 내뱉었다.

"아, 하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가르쳐드렸네요. 그런데 혹시 다른 말을 한 것은 없나요?"

'내 본명이나 의뢰소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겠지, 제발. 제발!'

"네 고용이 취업 사기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

오, 신이시여……. 아무래도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여러 거짓말 중 어떤 정체를 실토했는지 몰라서 리넛은 입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걱정말게.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진 주인된 자로서 너그럽게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빙긋 웃는 이사크의 미소가 정말로 용서한 자의 그것이었다.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다고 해도 별 수 없었다. 이사크가 저렇게 나와주는 판에, 리넛은 눈을 딱 감고 상황을 회피하기로 했다.

"가, 감사드려요. 앞으로 각하를 더 열심히 보좌할게요!"

냅다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내가 부탁하면 가끔은 노래를 들려달라고 할 걸 그랬나?"

괜히 좋은 사람 행세를 하려다 기회를 하나 날린 것 같았다. 후회되는 마음을 뒤로하고 이사크도 얼른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 * *

신분을 숨긴 채 두꺼운 모직 망토를 뒤집어쓰고 나선 왕도의 시장통은 북적이는 활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어깨에 밀려 자연스럽게 리넛과 밀착될 때마다 이사크의 귀끝이 순간순간 멈추자 리넛이 왜 그러냐는 듯 계속 돌아봤다.

"셔츠와 바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고르고, 크라바트나 커프스 단추에 색을 넣는 것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 기성품 의복 액세서리를 살피고 있는 리넛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봤다. 열심인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단추의 색이 시뻘건 색이든 샛노란 색이든 상관이 없었다.

"단추는 공작가문의 상징색인 진녹색이나, 머리색인 은색은 어떠세요?"

"녹색으로."

이사크는 리넛의 눈 색과 더 비슷한 것을 골랐다.

"크라바트는 얼굴과 가까우니 각하의 눈 색과 같은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푸른색의 크라바트 몇을 집어들어 이사크의 눈을 쳐다봤다가, 크라바트를 봤다가를 반복했다. 혹시 꼬실 수 있을까 싶어 자신을 볼 때마다 눈을 휘어가며 웃었더니, '눈색이 잘 보이지 않으니 크게 뜨라'며 핀잔이나 받았다.

"그런데 각하. 아까 지팡이도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의 뜻은……."

"맞아. 나도 이제 사교계에 다시 나가봐야지."

"역시 그러실 생각이셨군요."

이사크는 사교계가 처음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공작위를 받을 때 작위식을 위해 사교계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공작의 권한을 의무적으로 행사해야하는 일이 있을 때 왕도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위의 누구와도 일절 교류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끝낸 뒤 바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쌓인 곳에 머물며 굳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디아의 방패막이 되어주어야겠지.'

디아를 혼자 사교계로 내보낼 순 없었다. 그 전에 자신이 미리 사교계를 나가 조금씩 눈도장을 찍고 분위기를 살펴둬야, 데뷔탕트 당일에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디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에 빠져드는 이사크를 리넛이 건져 올렸다.

"전대 공작 각하께서 쓰시던 지팡이가 있지 않나요?"

"가문 대대로 쓰는 것이 있지. 하지만 프레이야가 내 물건들은 다 바꾸는게 좋다고 하던데."

“아, 그렇다면 그 지팡이를 쓰는 것이 좋겠어요, 각하. 가문의 위세와 전통을 드러내는 지팡이를 어떻게 기성품으로 쓸 수 있겠어요. 독이라면 걱정 마세요. 독한 술을 발라 천으로 닦아내면 문제없을 거예요.”

프레이야와 리브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덧붙였다.

“각하의 물건들을 전부 그렇게 술로 닦아낼 수 없으니 새로 구비하는 것을 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택 내에서 당분간 쓰시는 거라면 몰라도 외출 때 입으실 옷이나 액세서리를 이런 곳에서 구매하실 순 없지요.”

“그래. 네 말을 따를게.”

이사크가 순순히 답하자 리넛이 만족한다는 듯 웃었다.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 테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저택에 돌아가면 각하의 옷 한 벌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가씨가 드레스를 맞춘 의상실에 옷을 보내면 치수를 맞춰서 각하의 옷도 지어줄 거예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려던 이사크가 멈칫했다.

“저택에 돌아가나?”

“당장 쓰실 것들은 모두 샀어요. 나머지 품목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작업을 하면 쓸 수 있을 테고요. 더 필요한 것이 남으셨어요?”

고개를 돌리고 몰래 인상을 썼다.

‘생각해내. 생각해내.’

그는 벌써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과거의 기억이 불쑥 솟았다.

“연극을 보고 싶어.”

“연극이요?”

“그래, 네가 저번에 디아와 보고 왔다며 자랑했었잖아.”

“아니 그건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보고를 드린 거죠, 공작 각하.’

리넛이 적절한 표현을 찾는 사이에 이사크가 다시 선수를 쳤다.

“오늘은 볼 수 없는 건가, 연극이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궁금했는데…….”

눈썹을 내리며 축 처진 목소리로 끝을 뭉갰다. 사실은 혼자서 연극을 본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나의 다정한 하녀는 자신을 애련하게 여기며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리넛은 예상대로였다.

“아니예요, 각하. 하루에도 몇 번씩 극이 있어요. 마침 최근에 새로 올라온 극이 재밌다고 하니 보러 가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 그럼 보러 갈까?”

순식간에 리넛의 손에 들린 물건을 빼앗아 값까지 치른 그는 나머지 짐들도 챙겨 양손에 들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섰다. 갑작스레 자신이 할 일을 놓친 리넛이 황망해하다가 종종걸음으로 이사크를 뒤따라가며 붙잡았다.

“잠시만요, 각하!”

“짐은 내가 들지.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는군.”

“아……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극장이 있는 곳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앞서 걸을게요.”

“아, 그렇지. 나는 길을 모르지. 안내를 부탁해, 린.”

극장이 위치한 문화의 거리로 방향을 헤매지도 않고 걷던 이사크가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 리넛이 곁으로 오자 함께 속도를 맞춰 걸었다. 오늘 새로 걸렸다는 극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알 바 없었다. 연극을 보는 리넛을 보는 것이 제일 재밌을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는 최고의 배우였다.

* * *

샹들리에의 촛불이 부드러운 호박빛으로 바닥을 비추었다. 저택의 개보수 공사가 끝난 본관 연회실은 한결 아늑하고 정돈된 공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버지널의 왈츠 선율이 그 공기를 잔뜩 들이쉬며 돌아다녔다.

“토라 유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시범 삼아 한 곡을 가볍게 친 유모의 곁에 있던 리넛이 감탄하듯 말했다. 디아의 춤 연습을 위해 무도회 곡 멜로디가 필요했기 때문에, 파비안이 가문에 고용된 전속 악사나 외부 거리의 악사를 부를까 고민하던 차였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수업을 주제로 얘기가 나오자 이를 듣고

있던 유모가 자신이 버지널을 연주할 수 있다며 나선 것이다.

“전대 공작부인께서 춤을 좋아하셨지. 고트프리트 전 공작께서 아프신 이후엔 저택에만 머무시면서 생활하셨어. 간병에 지쳐가시는 부인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게 뭐 없을까 하다가 제대로 배워봤단다. 그 이전에는 자장가 정도만 칠 수 있었거든.”

연회실에서 유모의 연주에 맞춰 둘만의 무도회를 즐겼을 전대 공작 내외의 모습이 그려졌다.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빠른 곡은 칠 수가 없구나. 물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지만 말이야.”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유모님. 얼마간 박자를 익히시고 나면 선생님께서 구르시는 박자로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다행이구나. 그런데…… 각하께서는 왜 저기 계시는지 알고 있니?”

“아….”

유모의 말에 연회실 구석에 서있는 이사크를 흘낏 바라봤다.

‘할 일이 없으신가.’

춤동작에 앞서 파트너에 대한 인사부터 배우고 있는 파비안과 디아를 보고 있었다.

‘극성 부모. 그런 성향이신가? 여동생 수업을 저렇게 참관할 정도라면…….’

미래에 태어날 이사크의 아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유모에게는 에둘러 대답했다.

“각하께서도 곧 연회에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춤을 봐두시려는 것 아닐까요?”

“어머,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런데 각하께서는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춤을 다 익혀두셨는데.”

“춤이라는게 유행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때 파비안이 춤을 시작하려는 듯 유모를 향해 정중하게 고갯짓을 보냈다. 유모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려다 말고 말했다.

“각하께서도 함께 배우시는 게 어때요? 춤을 안 춘 지 오래 되셨으니 몸이 잘 기억하고 있나 스텝을 밟아보셔야지요.”

"뭐? 난 괜찮아."

"아, 각하께서도 춰보시겠습니까?"

"됐어. 보는 걸로 충분해. 디아와 짝을 맞추면 둘 다 어설퍼서 춤이 엉망이 될걸."

"음? 아가씨께서는 당연히 선생님께 배우셔야지요. 자 리노어. 여기 내 옆에서 멀뚱히 있지 말고, 각하를 좀 도와드려요."

"예? 제가요?"

"……."

리넛과 이사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혹시 새해 전야 때 제 춤과 유연하지 못한 관절을 못 보셨나요? 손사래를 치며 입을 떼려는데 갑자기 이사크가 연회장 중간으로 걸어나왔다. 그 덕에 거절할 틈도 없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끌려나가듯 걸어왔다. 마주 보고 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럼 두 분께서는 저와 디아 영애의 춤을 보며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비안의 말을 신호로 유모가 무도회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사크는 리넛의 손이 제 손바닥 위로 얹어지는 순간 피가 역류하듯 굳어버렸다. 허리께에 닿는 그녀의 감촉에 그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무섭게 날뛰기 시작했다. 공작으로서 과거에 배웠던 격식 있는 무도회의 스텝을 떠올리려 했으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자꾸만 발이 어긋났다. 그걸 느낀 리넛의 예리한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이사크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의 손을 단단히 맞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각하, 제게 힘을 빼고 몸을 맡기세요. 혹시 넘어지실 것 같으면 붙잡아 드릴게요."

리넛이 이사크의 단단한 허리를 과감하게 받쳐 들며 포지션을 완전히 리드하기 시작했다. 결코 바로 옆에서 물 흐르듯 진행되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춤이 아니었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추는 것만이 목표인 것처럼 정직하고 정박의 춤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지켜줘야할 유약한 공작으로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사양할 필요는 없지.'

이사크는 몸에 힘을 더 빼고 리넛의 품에 안기듯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 무게를 느낀 듯 리넛이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표정으로 스텝을 밟았다.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마저 느껴졌다.

'작고 따뜻하고 말랑해.'

처음 안아본 여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안온했다. 가까이 갈수록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겨우내 불다가 이른 봄이면 사라질 산들바람인가 했다. 조금 더 머문다면 꽃샘바람쯤 되겠지. 그래서 약간의 창을 내주었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네가 좋아, 린.'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주체할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어쩔 줄을 모르던 이사크가 리넛의 귓가와 목덜미 쪽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눈을 질끈 감고 있던 그에게 리넛이 작게 속삭였다.

"걱정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자연재해였다. 그는 손 쓸 방법이 없었다.

* * *

수업이 끝난 디아를 이사크가 연회장에 남겨 세웠다.

"디아, 데뷔탕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강요는 하지 않을테니, 네 생각을 말해줘."

드레스도, 데뷔탕트도 결국은 모두 여동생의 행복을 위해서였으므로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어제 저택에 왕실 전령이 도착해 서신을 주고 갔다. 왕실의 사교계를 담당하는 궁내부에서, 오는 이른 봄에 열릴 데뷔탕트 연회 공식 초청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답장을 하려면 디아의 의중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디아는 짐짓 굳은 표정으로 이사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오라버니는 이제껏 자신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몸이 너무 아파 거동이 힘들지언정 가주의 업무나 부담을 그녀에게 떠넘기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거의 처음으로 끈질기게 부탁을 한 것이 데뷔탕트였다. 여전히 그녀는 가문의 부활이든 사교계 진출이든 큰 관심이 없었고, 드레스를 꽉 조여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야 하는 무도회는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 시간에 땅을 한 번 더 갈아엎고 싹을 도닥이는게 좋았다.

'하지만 혼자서 오래도록 아쉬워하고 후회하겠지.'

디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저택에 오래 머물수록, 그리고 또래 영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래 귀부인이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사크는 스스로를 다그칠 것이다. 그때 디아를 조금 더 설득하지 못한 자신을. 정작 디아에게는 티도 내지 않으면서.

'그럴 바에 눈 딱 감도 한 번 들어주는게 나도 마음이 편할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한 디아가 이사크에게 말했다.

“알겠어. 오라버니 말대로 데뷔탕트에 나갈게.”

“진심이야 디아?”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이번 데뷔탕트에 나가면, 나중에 내 소원을 군말 없이 딱 하나만 들어줘.”

“그 소원이 뭔지 지금 말해주지는 않겠지?”

“비밀이야. 아직 정하지 않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래. 오라버니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마.”

늘 디아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던 이사크는 자신이 동생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음에 기뻐했다. 그랬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을 덥석 받아주는 그를 보며 디아는 속으로 의미심장한 웃음을 삼켰다.

이사크는 그 길로 자신의 동생이 장성하여 국왕과 왕비에게 첫인사를 올리고 사교계에 정식으로 발 붙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격식 있는 알현 청원서를 작성해 왕실의 전령 편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청원서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영애와 가주에게 무도회 당일 지참해야 하는 '궁정 무도회 출입증' 한 장이 가문비나무 거리의 끝, 회문저택에 도착했다. 궁내부가 붙인 벽보에서 ‘산 공작가’를 찾아낸 크로네 사교계가 뒤집어진 것은 당연했다.

잔잔하던 크로네 수면에 돌을 던진 산 가문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지난 몇 주간 가문에 생긴 큰일이라면 아이젠가르트 편력단이 모든 보수공사를 마치고 저택을 떠난 것이었다.

“그간 감사했소.”

“별말씀을. 덕분에 겨울까지 짭짤한 보수를 받아간다고! 든든한 주머니로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어깨를 펼 수 있겠어.”

“이대로 바로 아이젠가르트로 돌아가는 건가?”

“그렇지. 이제 순방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말이야, 공작이 괜찮다면 여기 몇 단원들을 두고 가고 싶네만.”

“두고 간다니?”

“애초에 우리같은 편력단들이 지역을 떠도는 건 평생을 바쳐 일할 정착지를 찾기 위한 수련의 마지막 과정이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단원 중 몇이 이곳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하하하.”

브로브의 뒤에서 단원 몇이 앞으로 나왔다. 모두 목공들이었다.

“바위산이 대부분인 베르크무트와 달리 여기 크로네는 침엽수림이 발달했더군요. 마음껏 써도 남아돌 만큼 자원이 풍부하고, 나무의 질도 좋습니다. 각하께서 허락하신다면 공작가에 남아 저택의 일을 하면서, 별도로 목공 일을 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테지요.”

“연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크로네에 남겠다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나?”

“베르크무트에서는 장성한 자식이 자립해서 제 몫의 돈을 버는 것을 부모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이 소식을 반길 테지요. 그리고 국경만 넘으면 연방이니, 그리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바다를 건너 자리를 잡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넘기만 하면 된다는 그 국경이 혹독한 바위산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여의찮은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굳이 그 점을 꼬집지 않은 이사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서는 거절할 것 없는 좋은 제안이었다.

“남아준다면 내가 더 고맙지.”

“하하. 우리 단원들의 진가를 알아봐줘서 고맙군! 그럼 성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브로브와 나머지 단원들이 담백한 인사를 남기고 뒤돌아 떠났다. 아마도 이들을 다시 보게 될 일은 없을 터였다. 하지만 저택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며 추억을 떠올릴 순 있겠지. 한동안 시끌벅적하던 가문이 조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다른 가문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웅크리는 겨울이지만, 산 공작가는 계절을 모르고 동면에서 깨어난 동물 같았다. 가문 한 명 한 명 모두 바쁘기 그지없었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공작의 건강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 프레이야의 말을 따라 주변 환경을 바꾼 덕이었다. 중독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한동안 고용인들이 충격에 빠져 죄책감에 땅굴을 팔 기세였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힘을 내서 수습을 해야 한다는 프레이야의 단속에 다시금 힘을 냈다. 공작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술로 닦아냈다. 술로 닦지도 못하고, 다시 쓰기도 애매한 것들은 모두 모아 불로 태웠다. 기존 집무실과 침실의 천을 모두 갈고, 모든 창을 열어두고 몇 날 며칠을 환기 시켰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 한동안은 임시 격실을 계속 이용하면서 더 두고 보기로 했다.

실력을 입증해낸 프레이야는 곧이어 해독하기 위한 처방전을 냈다. 딜랴에게는 해독에 좋은 음식과 재료들을 받아 적게했다. 딜랴는 해독뿐만 아니라 몸을 보신하고 원기를 돋우며 살을

찌울 수 있는 영양 좋은 메뉴들을 매일같이 개발하느라 거의 하루종일 주방에 머물렀다. 이사크에게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조언을 줬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것을 느낀 이사크는 뛰거나 검술 연습에 매진했다.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탁에 발개진 볼을 하고 땀에 젖은 채 나타나기도 했다.

닐스는 결국 공작가에 남은 단원들과 함께 저택 관리 담당으로 고용되었다. 그는 저택을 고치며 이 일이 적성에 꽤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단원들과 함께 저택을 마저 꼼꼼하게 손봤다. 분수를 들이거나 대리석 조각 기둥을 세우는 일, 내부 연회장이나 소연회실, 마차 현관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분들을 모두 챙겼다. 끝없이 설계 도면과 견적이 날아들었다. 이에 구스타프는 늘 영수증에 파묻혀 있어 피곤해 보일 때면 딜랴에 의해 강제로 보양식을 먹어야 했다.

디아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더니, 대문에서 본관 건물까지 이어지는 진입로를 아예 담당해 맡았다. 길을 따라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는 그녀가 고집하여 마련한 널찍한 공터가 잡혔다. 그곳에 정원을 만든다고 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침엽수 잎들을 매일같이 긁어모으고, 그것들을 흙과 섞는 작업에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이사크가 땀에 젖어 나타난다면, 그녀는 흙투성이가 되어 식사했다. 어느 쪽을 보든 귀족 같지는 않았다. 덕분에 리넛은 저택에 떨어진 흙뭉치를 줍다보면 디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유모는 춤 수업을 위한 버지널을 연습하더니, 첫날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나아진 실력으로, 더 오랜 시간 앉아 칠 수 있게 되었다. 프레이야가 고용인들의 건강도 모두 같이 챙겨봐준 덕이었다. 시큰거리던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줄자 이전보다 자주 방 밖으로 나와 얼굴을 비추며 공작 남매와 고용인들을 살폈다. 유모가 한결 편안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는 것으로도 공작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힘이 났다.

리넛은 그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좌하며, 본격적으로는 이사크의 사교계 진출 준비를 맡았다. 디아의 데뷔탕트보다 우선 일어날 일이었으므로 잠시 체임버메이드 역할을 내려놨다. 마담 솔베이그 의상실을 오가며 이사크의 옷을 맞추고, 종종 함께 외출을 나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다. 귀족이 쓰고 입는 것들은 맞춤 제작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는 일들이 허다했다. 의복에 넣거나 몸에 지니는 향료 주머니인 포맨더나 향수 원액을 파는 가게들에 들러 말린 꽃, 허브, 향신료를 조합해 직접 조향해보기도 했다. 각하에게 어울리는 향이라며 추천했더니, 그날로 이사크는 매일 포맨더를 품에 지니고 다녔다. 외출했다가 갑작스럽게 쏟아진 진눈깨비를 피하자며 이사크가 손을 잡아 이끌어 들어간 곳이 선술집이었다. 야바위나 다트에 관심을 가지기에 진심으로 말렸더니, 꾼을 상대로 가볍게 돈을 따내며 리넛에게 윙크를 날려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선술집이 처음이라며 에일 맥주나 거친 고기파이를 먹어본 적 없는 듯 리넛이 주는 음식만 조심스레 받아먹었다. 어느날은 공공 목욕탕이 생겼다기에 함께 가보았더니, 신분이나 성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 얇은 가운만 걸치고 탕에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경악해서 그대로 나왔는데, 둘 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사크는 리넛의 도움과 가문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무도회에 나갔다.

* * *

크로네에서 겨울 사교계의 첫 일정은 주현절 무도회였다. 성탄 시즌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밤.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정교한 가면을 쓴 채 한 해의 가장 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축하했다. 촛대에는 불이 넘쳤고 유리잔마다 빛이 고였다.

리넛은 산 공작가의 사교계 복귀의 첫걸음으로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했다. 가면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서로 눈치채더라도 암묵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시치미를 뗄 수 있었다.

이사크는 얼굴의 반을 덮는 베네치아풍 가면을 골랐다. 흰 바탕에 검은색 넝쿨무늬를 넣은 것이, 회문저택 같지 않냐며 마음에 들어했다. 눈매만 겨우 드러나는 가면을 쓰자 실제보다 훨씬 서늘해 보였다.